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대정 지역의 교육사적 전통

지도교수 양진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허대욱

2004년 8월

제주도 대정 지역의 교육사적 전통

지도교수 양진건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5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허대옥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7월 일

심사 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문 초록>

제주도 대정 지역의 교육사적 전통

허 대 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지도교수 양 진 건

이 논문은 제주도 대정 지역의 복잡하고도 특수한 교육사적 전통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정 지역은 우리나라 본토와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원악유배지로, 중죄인의 유배의 땅이기도 하였다. 그런 만큼 유배인들에 의한 문화적·학문적 영향도 크게 나타난 곳이며, 조선 시대에는 최남단의 유배지로 각계 각층의 많은 유배인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적거 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과 교학 활동을 통해 이 지역에 특수한 교육전통을 이식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 또는 교육적 특수성을 밝히기 위하여 여러 고전과 기타 문헌들을 고찰하였고, 이를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이 지역의 특수성으로는, 대정 지역은 근세에 동·서의 교통이 열리게 되자 모슬포는 그 요충지가 되어 외국 선박 또는 표착인과 접촉이 이루어져 도내에서는 일찍 근대문물이 들어오고 근대화가 이루어진 곳이다. 뿐만 아니

* 본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의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라 이 지역은 일본이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활용하였고, 6·25전쟁 때에는 훈련소가 창설되어 전쟁을 위한 작전지역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동양은 물론 세계사와도 관련이 있는 군사적 기능을 갖고있는 지역이다.

교육사적 전통은 대정 향교와 서당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지만, 유배인 중 동계 정운과 서재 임정하, 추사 김정희 같은 조선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이 곳 대정현에 적거하게 되자 원·근에 학도들이 그를 따라 수학하였고, 그들의 해박한 학문과 강직 공명한 성품은 학도들에게 큰 감명과 감화를 주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제주와 대정의 학문과 문화기틀을 마련할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정 지역의 독특한 역사적 환경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민란이다, 조선 시대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란의 대부분은 이 지역을 기반으로 일어났으며 이러한 특징은 불의를 타도하려는 이 지역 사람들의 의리와 끈은 절개 때문으로 이러한 의리와 절개도 적거인들의 지식과 기질에 연유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대정 지역 교육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지역 유배인들로서 그들은 교육자 또는 자기완성 자로, 현지 주민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현지의 학문향상과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제주도과 대정 지역의 관계	6
1. 제주도과 대정 지역의 관계	6
1) 선사 시대	6
2) 주호(州胡) 시대	7
3) 탐라(耽羅) 시대	8
4) 조선 시대 및 그 이후	9
2. 제주도에서 대정 지역의 위치	10
3. 제주도에서 대정 지역의 기능	12
III. 제주도 대정 지역의 조건	14
1. 입지조건	14
2. 역사적 조건	16
1) 양제해·방성칠난	16
2) 이채수난(辛丑聖敎亂)	17
IV. 제주도 대정 지역의 교육사적 전통	23
1. 제주유배문화의 재조명	23
1) 유배의 개념	25
2) 유배의 성격	27

3) 제주도 유배의 내용	28
4) 유배문화와 대정	30
2. 근대 이전의 전통	58
1) 유배인의 교학활동	58
2) 대정향교	60
3) 대정서당	91
3. 근대 이후의 전통	97
1) 민족사상 교육	97
2) 근대학교	101
3) 현대학교	103
V. 요약 및 결론	112
1. 요약	112
2. 결론	116
참고 문헌	121
<Abstract>	12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를 이른바 지역연구라고 한다. 이러한 지역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역연구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것은 인간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 중의 하나이며, 이 수단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유용성을 겨냥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역연구에는 협의와 광의의 두 가지가 있다. 협의의 지역연구는 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개별국가나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시도한다. 즉 인간행위와 제도를 맥락적, 학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광의의 지역연구는, 협의의 지역연구와 함께, 지역들간의 혹은 개별국가들간의 비교연구와 이들의 상위에 존재하는 초국가적인 현상이나 제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지역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되어온 학제적 접근은 지역연구가 어느 특정 분야에 의해서 주도되어왔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한 지역의 전체를 탐구한다는 인식이 심어지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검토되고 있다. 완전한 의미에서의 지역연구는 사회과학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의 모든 부분들과 여러 분야의 자연과학이 참여하는 것을 요구한다.

제주도 대정 지역의 교육전통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도 대정 지역만이 갖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본토와 격리된 絶海

孤島라는 여건 때문에 특수한 교육전통이 싹틀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의 세 현 가운데 하나인 대정현 지역은 제주읍의 서남부 지역으로 동으로는 정의현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우리나라 본토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원악유배지로 중죄인의 유배의 땅이기도 하였다. 그런 만큼 유배인들에 의한 학문적 영향도 크게 나타난 곳이지만, 태풍의 길목이었던 이 지역은 일본(동·서양)과 교역하는 외국 선박이 좌초(鳥水浦)로 인한 표착인과, 6·25당시 육군 제1훈련소와 피난민 등에 의하여 일찍 근대 문물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최남단의 유배지로 각계 각층(士大夫)의 많은 유배인들이 대정 지역에 적거 생활을 함으로써, 특수한 교육전통을 이식하는데 큰 몫을 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대정현의 소재지였던 인성·안성·보성의 세 개 마을에는 그 시대의 유적과 선민의 시와 문장으로 고고한 자취가 남아있다. 그런가 하면 대정 지역은 李在守 亂과 같은 민란이 빈발했던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유배인들의 교학활동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유배인들의 활발한 교학활동과 근대문물이 유입 등으로 이 지역에는 특수한 교육전통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대정 지역을 연구함에 있어서 학제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함에도 교육전통만을 조명하는 이유는, 우선 제주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전통이 특수하기도하며 학제적 접근을 통한 지역연구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정 지역의 교육전통의 특수성을 찾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대정 지역 교육사를 정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주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역연구라는 것은 그 자체로

서의 목적이 아니고 차후에 실질적인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교육의 제대로 이해를 위해 대정 지역의 교육전통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연구의 목적

지역연구의 일반적인 목적은 ‘시간과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살아있는 社會的 實在를 이해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된다. 그것은 좀더 구체화되어서 ‘實在世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지역연구는 아무 것도 아니고, 지역연구의 문제라는 것은 실재세계의 복잡성을 취급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 개념의 광범위성과 모호성을 전제로 할 때, 지역연구의 방법적인 성격은 **개성 기술적**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양진건,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정 지역의 복잡하고도 특수한 교육사적 전통을 제대로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력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도는 고대부터 중죄인들이 형벌로 보내졌던 곳으로 조선시대에 오면서부터는 법제적으로 제주도 유배가 정당화되게 된다. 특히 조선시대에 대정 지역에는 고도의 학식을 갖춘 정치인들이 많이 유배되었는데 이곳에 적거 하는 동안 문화적·학풍적으로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따라서 유배인들이 대정 지역에 이식한 교육전통을 밝혀보고자 한다.

둘째, 조선시대에 들어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란의 대부분이 대정 지역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대정 지역의 특수한 교육사적 전통에서

비롯된 바도 크지만 역으로 특수한 교육사적 전통을 만드는데 대정인들의 절개와 기질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사적 전통과 관련된 대정 지역의 생활세계를 분석해보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이다.

셋째,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대정 지역의 연구를 통해 제주도의 교육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교육사에 대한 무지로 빚어지는 교육의 획일화 현상이나 정체성 부재는 자못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밝히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첫째, 지역연구에서 방법론으로 추구하는 것은 체계적 학제성이며, 이것은 단일 학문분야로 문제들을 나누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세계에 접근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문분야들의 모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교육학이라는 단일 학문분야를 통해 제주도 대정 지역을 들여다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유배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조선시대에 제주도 대정 지역에 유배된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유배인들의 대부분이 당대 지식인들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韓國人名大事典』(新丘文化社, 1983)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韓國人名大事典』은 일제가 만든 『朝鮮人名大事書』이후 현재까지 만들어진 최대의 인명사전으로 『朝鮮王朝實錄』은 물론 『三國史記』, 『高麗史』 등의 정사 및 그 밖의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대정 지역의 실제 유배인 수는 『韓國人名大事典』에서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으며 그 신분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단 유배지와 신분 등 그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韓國人名大事典』으로 조사 범위를 한정시켰다.

세째, 본 연구는 근대 대정 지역 교육전통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조선 시대부터 1970년대까지로 그 기간을 한정하였다.



II. 제주도와 대정 지역의 관계

1. 제주도와 대정 지역의 관계

1) 선사 시대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것은 약 백만년 전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고, 인류만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다. 처음에는 사냥을 하기 위하여 돌을 사용하였으니 이 시대를 舊石器 時代라 하고, 차츰 돌을 다듬고 갈아서 쓰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으니 이 시대를 新石器 時代라고 한다.

제주도에는 애월읍 어음리 빌레못 동굴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관심이 집중된 바 있으나, 대정 지역에도 신석기 시대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고인돌과 돌칼 등으로, 대정 지역을 중심으로 고인돌 38기가 분포되어있다. 또 대정의 가파도에서 磨製石刀가 출토되었고, 무릉2리 좌기동 부근에서 1975년 磨製石斧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고인돌과 함께 대정 지역에는 신석기 유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고인돌이 분포된 곳에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용천수가 풍부한 곳으로, 인간 생활과 물의 관계가 매우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정 지역에도 산이 있어 사냥에 좋을 뿐 아니라 해안선이 길어 물고기와 조개 등 어로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식수를 얻기에 유리하고 어로에 편리한 자연조건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2) 주호(州胡) 시대

三성이 나타나기 이전 시대를 州胡 時代²⁾로 구분한다. 신석기 시대(獲得經濟)를 거쳐 生産經濟로 넘어가 州胡 時代로 접어들어 가게 되었다. 도구가 발달하여 활, 철치(鐵齒-쇠스랑의 한가지) 등이 발명되고, 목축 농경의 단계로 들어갔으며 식기 등도 발명되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상모리 산이수동의 先史時代의 住居址와 쓰레기 무덤(貝塚) 가파도의 선돌 쓰레기 무덤 등이다.

산이수동 유적은 1984년 상모리와 보성리간 국도변 화단을 만들기 위하여 이곳의 흙을 채취하면서 유적의 대부분이 훼손되어 버렸고, 가파도 쓰레기 무덤의 유적지 대부분도 허물어지고 지금은 그 일부만 남아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생산활동은 주로 어로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출토된 토기는 경기도 한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팽이형 토기와 孔列土器가 복합된 형식으로서, 이 계통의 토기가 나온 것은 남한 지방에서는 대부분 구릉지대인 것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바닷가 지역에 쓰레기 무덤과 함께 형성되어 있고 국토 최남단에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無紋土器이고 일부 토기 및 신석기 유물이 섞여있다.

씨족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제주도 각 지역에 씨족부락이 형성되었으니 제주도 씨족 사회는 주위 정세의 영향을 받아 언제 침입할지 모를 적에 대항하기 위하여 씨족이 연합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또 어로활동에 유리한 곳을 찾아 산이수동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2) 後漢書에 ‘馬韓之西南海島上 有州胡國, 마한의 서남 바다 섬 위에 州胡國이 있다.’ 여기서 말한 州胡國은 濟州島를 가르키는 것인데 이것에 근원해서 우리는 기원전 곧 耽羅 시대 이전의 씨족 사회를 州胡 時代로 구분하고 있다.

3) 탐라(耽羅) 시대

주호 시대의 씨족 사회는 한라산 화산 폭발로 붕괴되고 다행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새 씨족 사회가 전개되었다. 한라산 화산 폭발한 뒤 4세기가 지나 삼성 씨족을 비롯하여 여러 지방에 씨족 부락이 형성되고 각 씨족 사이에는 세력의 차가 차츰 생겼고 부족 연합이 필요하게 되자 부족 사회의 지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다투게 되었으니 『영주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三姓이 나타난 900년 뒤 세 사람이 각각 활로 돌을 쏘아서 힘을 시험하니 高가 上이 되고 良이 中이 되고 夫가 下가 되었으므로 民心이 다 高씨에게 돌아가서 高씨를 君으로 삼고 良씨는 臣이 되고 夫씨는 百姓이 되었으며 나라 이름을 탁모라고 하였다.”.....(중략)



탐라시대 대정 지역 즉, 모슬포³⁾ 지방은 행정구역이 어느 지역에 속하였던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신라 진흥왕 때 탐라에 5道 15縣이 설치되어 山南의 海西道 山房村에 속하였고 고려 숙종 10년(1105) 탐라가 군에 편입되었으므로 탐라군 山房村에 속하였으며 고려 의종 7년(1153) 탐라군이 현으로 되었다가 고종 때 탐라가 제주로 개칭되었으므로 제주 山房村에 속하게 되었다. 고려 충렬왕 26년(1300) 山南의 海東道에 兎山, 狐村, 烘爐, 首山, 그리고 海西道에

3) 募瑟浦里의 募瑟은 모슬개(募瑟浦)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살’은 모래의 제주 방언이요 ‘모슬개’는 모래가 있는 개(浦)이기 때문에 모살개가 땅이름으로 고정된 것인데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 ‘모살’이 ‘募瑟’로 변해졌다는 것이다. 최남선도 ‘모슬개’는 ‘모살개(沙浦)’에서 온 것이라 하였다. ‘모슬개’라는 이름은 마을이 이루어지자 마을 이름으로 굳어지고 한자로 표기하여 ‘募瑟浦里’라고 하였으며 ‘浦’를 줄여 ‘募瑟里’라 부르다가 .募瑟浦.라하고 있다.

狷來, 山房, 遮歸, 友川의 縣村이 있었는데 모슬포 지방은 산방촌에 속하였고 山房村은 한라산 右翼의 南에 있는 가장 오랜 부락⁴⁾이며, 산이수동 住居址 그 다음으로 산방촌이 오랜 주거지가 되는 것이다(박용후, 1990: 34~62).

4) 조선 시대 및 그 이후

대정 지역은 우리나라 최 남·서단 읍으로, 조선 태종 2년(1402)에 탐라가 제주로 바뀌어지자 제주는 옛 촌제를 폐지하고 郡(縣)制(濟州·大靜·旌義)를 실시하였다. 태종 16년(병신 1416)에 제주의 西島쪽에 현을 설치하여 현감을 두고 고을 이름을 대정이라 하였다.

대정읍은 옛날부터 대정현의 소재지로서 대정현(또는郡) 右面⁵⁾이라 하였다가, 1910년 韓·日 合併으로서 지방관제 개혁에 따라, 1914년 우면을 대정면이라 하고 대정현 청사 내에서 면 행정을 실시하였다.

1915년 2월 8일에는 島制의 실시로서 濟州郡에 예속되었고, 1933년 면치소를 대정면 보성리에서 대정면 상모리로 이전해 왔다. 1946년 8월 1일 道制가 실시되면서 남제주군 대정면 이었고, 1956년 7월 8일 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지금과 같은 행정(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을 실시하게 되었다.

대정 지역의 모슬포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항도이다. 예로부터 북대평양을 향해하는 선박은 이 곳에 표착 하거나 때로는 약탈을

4) 이것은 山房山 西쪽 박씨밭 부근에 있는 高麗塚 등 古墳群으로 보아 알 수 있다.

5) 大靜縣에는 세 개 面이 있었고, 左面은 14洞: 江汀里, 瀛南里, 道順里, 月坪里, 河垣里, 上文里, 道文里, 中文里, 大浦里, 東中文里, 穡達里, 上狷里, 下狷里, 新狷里

中面은 11洞: 倉川里, 上川里, 通泉里, 紺山里, 和順里, 德修里, 光淸里, 新淸里, 廣坪里, 東沙溪里, 沙溪里

右面은 10洞: 安城里, 仁城里, 保城里, 上墓里, 下墓里, 日果里, 新坪里, 永樂里, 武陵里, 桃源里

일삼은 일도 있었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이 지역을 통하여 일찍 해외 문물에 접할 수 있었다.

대정 지역(모슬포) 앞에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를 중심으로 황금어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일찍부터 어장 침범에 혈안이 되어왔고 그들을 통하여 잠수기어업과 고구마 재배법도 다른 지역보다 먼저 들어왔다

내륙에 위치한 옛 대정 고을(인성, 안성, 보성)은 과거 대정현 현청 소재지로서 마을 중심이 우회도로와 서부 관광도로의 분기점이 되고 있으며 동남쪽에 簾山, 동쪽에 山房山, 또 서쪽에는 摹瑟峯, 남쪽 멀찍이 松岳山 등 특이한 형태의 기생화산들에 둘러있는 넓은 평지이다.

2. 제주도에서 대정 지역의 위치

대정 지역(모슬포)의 수리적 위치로는 동경 $126^{\circ} 10' \sim 126^{\circ} 11'$, 북위 $33^{\circ} 16' \sim 33^{\circ} 17'$ 에 있는 우리나라 최 서·남단에 위치하여 모슬봉 남쪽 기슭에 소도시를 이루고 있다(박용후, 1990: 23). 대정현(인성·안성·보성)은 동쪽으로 정의현의 경계까지 57리, 남쪽으로는 해안까지 10리 서쪽은 제주읍 경계까지 37리 북쪽도 제주읍 경계까지 32리다.⁶⁾

관계적 위치로는 동은 안덕면, 서·남부는 태평양에 면하고, 북은 북제주군 한경면과 접하고 있다.

또 행정구역상으로 대정읍은 남제주군의 가장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76.9km²로 도내 읍·면 행정구역 중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단위 구역이다⁷⁾

6) 東으로는 법환리, 西쪽으로는 판포리까지였으나, 그 후 법환리는 西歸面에, 또 두모, 저지, 조수, 판포리는 舊右面(현 翰京面)에 편입되었다.

연평균 기온은 15.6℃로 한라산 북쪽에 위치한 제주시에 비해 0.5℃ 정도가 높으며 서울에 비해서는 4℃가 높은 편이다. 여름철 8월의 평균 기온은 26.6℃로 가장 높고, 겨울철 1월의 평균 기온도 6℃ 정도로 한국 어느 곳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수량은 연평균 1,688mm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다우지에 속하며 연중 비가 내리는 날은 130일 정도나 된다.

또 이곳은 태풍의 진로에 해당하며, 동북쪽 멀찌기 자리한 한라산과 동쪽편에 우뚝 솟은 山房山의 영향 때문에 바람이 낮은 이 지대로 몰리기 때문에 바람은 거의 연중 불고 그 세력 또한 거센 편이다. 평균 초속은 3.8m이나, 최대풍속은 초당 평균 17.4m로 불고, 강풍이 많이 부는 계절은 8월로, 평균 초당 26m에 이르고 있다. 이 시기는 태풍의 발생시기와 관련되며, 이밖에 봄철인 2~4월에도 바람이 많다(오성찬, 1988: 23).

대정 지역의 모슬포는 3천년의 역사 유적과 함께 송악산 명승을 가지고 있어, 역사와 자연 경관이 함께 하는 곳이다.

그런데 모슬포가 3천년의 역사적 전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기후와 지리적 조건 등 자연적 환경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닷가에는 풍부한 용천수와 주변에 산과 바다가 있어 사냥과 어로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활 환경 때문에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이 곳에 정착하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느니 이 지역에 분포된 38기의 고인돌(支石墓)이 이를 말하여 주고 있다.

또 이 지역은 한라산 남서 사면에 위치하는 관계로 경사가 완만하여 전

7) 行政 단위 면적은 濟州市: 253.9km², 西歸浦市: 263.8km², 翰林: 86.1km², 涯月: 191.3km², 朝天: 152.1km², 舊左: 185.6km²(우도포함), 翰京: 82.5km², 楸子: 6.9km², 南元: 188.2, 城山: 106km², 安德: 105.5km², 表善: 134.9km².

체가 200m이하의 저지대로 구성되어 삼각형 평야를 이루고 있고 삼면의 바다요, 남으로 송악산이 바다로 돌출 되어 바닷가에는 모래언덕을 이룬 곳이 많다. 곳에 따라 낮은 언덕이 있으나 거의 평탄한 땅이므로 밭으로 이용되고 불모지는 거의 없을 만큼 대정의 곡창지가 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알뜨르”라고 부르는 넓은 평지이다. 그래서 옛 농경사회에서는 인간이 주요한 생활터전이 되었고, 지금도 봄, 가을 감자를 비롯하여 배추, 마늘 등 원예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주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해안지대에는 上摹·下摹·日果·永樂·武陵·新桃里가 있고, 중산간 지대에 九億·安城·保城·仁城·東日·新坪里가 있으며, 남쪽에 加波島와 우리나라 최남단 馬羅島 등이 있다.

3. 제주도에서 대정 지역의 기능

대정 지역은 근세에 와서 동서의 교통이 열리게 되자 모슬포는 그 요충이 되어 외국 선박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세에 와서는 그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동북아의 정략적 군사적 요지로 일본의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가 되기도 하였다.

일본은 중국 침략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1926년부터 1930년까지 모슬포 평야에 20만평 비행장을 건설하고 1937년 80만 평으로 확장하기로 하여 사세보(佐世保) 해국항공대 2천 500명과 전투기 25기를 배치하였으며 비행장에서 모슬포항으로 가는 도로를 확장 포장하고, 또 비행장과 산이수동 사이에 군수물자 수송을 위하여 도로를 신설 포장하였다.

비행장 주변에는 격납고 20개를 설치하고 알오름에는 대공 고사포대와

포진지 4개를 설치하였으며 송악산 바닷가와 산 안에는 땅굴 20개를 파서 적 함대에 대비하고 탄약고도 만들었다.

모슬봉 앞에는 많은 兵舍를 짓고 가미가제(神風)호 항공기 조종사를 이 비행장에서 훈련하였다. 이 비행장 건설에는 현지 주민들이 징용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가정 생활의 고난이 막심하였다.

모슬봉에는 일찍 무전시설을 하여 제1차 세계대전 때에는 중국 청도의 독일군 시설 공격에 사용하고 중국 침략전에는 전파탐지기를 설치하여 미군 폭격기 출격을 알리는 데에 이용하였다(박용후, 1990: 119).

일제가 물러간 뒤, 6·25전쟁 때에는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어 우리 국군 양성의 요람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후방 작전지역이 되기도 하였고, 지금은 이 곳에 해병과 공군 부대가 있다.

지금 남아있는 전적지로는 훈련소 창설부대인 29사단 기념비를 비롯하여 훈련소 정문과 강병대 교회 건물 등이 송악산의 자연 경관과 함께 역사 유적을 간직한 채, 도내 유일한 軍都의 관광지로 각광 받고있다.

이런 군사적 기능이 있는 대정 지역(모슬포)의 역사는 동양은 물론 세계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 유적과 송악산도 이제 옛날의 명예를 되찾아야 할 것이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을 함께 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 사장되어버리는 것은 이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기 때문이다.

Ⅲ. 제주도 대정 지역의 조건

1. 입지조건

대정 지역(모슬포)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일본과 교역하는 동남아 및 서양 선박의 항로에 접해 있을 뿐 아니라 태풍의 진로에 해당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외국 선박이 이곳 조수포(홀에미섬)에 표착하는 일이 많았다.

근세에 와서는 인조 6년(1628)에 화란인 벨테브레(朴淵)⁸⁾가 표착하여 우리나라에 歸化하였고, 효종 4년(1653) 하멜의 화란선박이 표착하여 우리나라가 서양 문물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들을 통하여 서양인과 서양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 이들은 본국에 돌아가 “표류기”를 써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게 되었는데, “표류기”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12개 국어로 번역되 제주도 가 ‘켈파트’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켈파트’라는 이름은 ‘가과도’라고 하는 말을 듣고 ‘켈파트’라고 비슷하게 표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하멜의 표류지는 산방산 앞 용머루가 아니라 ‘가과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선장이 표착 당시 죽어 그 곳에 매장되었는데 가과도 맞은편 모래 언덕에서 토지 개량을 위한 모래를 파다가 장신의 해골 1구를 발견한 일이 있었는데 해골이 너무 커서 우리나라 사람과는 아주 달랐다는 것이다.

8) 和蘭名은 Jan Janse Weltyvree로 朝鮮 仁祖때 귀화한 和蘭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西洋(구라파)을 소개하였다.

현종 8년(1667) 중국인 林寅觀을 비롯하여, 경종 원년(1721) 청국인 18인, 영조 9년(1733) 청국인 60인의 표착은 중국 사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정조 7년(1783) 일본인의 조수포(홀에미섬)에 표착으로 일본의 문자와 풍속을 알게 되었으며, 고종 31년(1894)에도 일본 배 한 척이 고구마를 실어 鳥水浦에 표착 하였는데 고구마 재배법과 그 것이 구황 작물인 것도 알게되었다.

광무 8년(1904) 일본의 수송선 南洋丸의 좌초는 화약을 알려 주었고, 융희 4년(1910) 영국함대의 조수포(홀에미섬) 좌초는 여러 가지 금속과 서양의 家畜과 닭, 오리 등을 전 하기도하였다. 이와 같이 모슬포는 외국 문물이 들어오는 창구구실을 함과 동시에 세계를 인식하는 눈을 넓혀주었던 곳이다(박용후, 1990: 85).

모슬포 서북부에 있는 모슬봉은 해발 186m의 높이에 부채를 펴서 거꾸로 세운 듯 정삼각형의 모양으로 대정읍의 한복판에 우뚝 솟아 모슬포의 시가를 안고 있다. 일본이 군사시설을 하였던 곳이기도 하지만, 조선조 시대에는 봉수가 설치되어 왜적 방위의 구실도 하였던 유서 깊은 산이다.

모슬봉 동남쪽 바닷가에는 해발 81m 높이의 송악산이 해안절벽을 이루며 많은 봉우리를 거느리고 있는데 2차 폭발을 거친 외륜화산으로서 해변에 솟아 있기 때문에 높은 모습으로 보인다. 송악산 서쪽에는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의 고사포 진지가 있었으나 패전 뒤 미군에 의하여 폭파되었다.

모슬포 주위에는 동쪽에 산방산과 단산 금산봉이 있고 서쪽에는 해발 100m의 가시악과 41m의 돈두악이 있다. 금산봉은 상모리와 사계리의 경계 위에 있어 대정읍과 안덕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하천은 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발달하지 못하였으니 모슬포는 한라산에서 서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한라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안덕면

화순포로 들어가서 감산천을 이루었기 때문에 모슬포 방면으로는 하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질편한 평야는 제주도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가 되고 있다.

2. 역사적 조건

1) 양제해 · 망성칠난

대정 지역의 독특한 역사적 환경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민란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민란의 대부분은 대정 지역을 기반으로 일어났으며 이런 특징은 조선후기의 역사적 변혁성을 기반으로 한 제주인의 주체력을 표출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특히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민란을 통한 分離主義的 성향의 표출을 통해 대정 지역의 독특한 질서를 대변하였는데 순조년간(1813)에 일어났던 梁濟海의 謀變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는 1811년 평안도에서 농민전쟁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세도정치 폐해와 지방차별대우에 대해 봉기, 항쟁하여야 하며 … 제주도는 반드시 제주인이 自立하여야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신념 하에서 관리들과 서로 계를 조직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비밀히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고 역사를 모집하며 병기를 제조하는 등의 준비를 갖추어 목사와 판관 및 정의현과 대정현의 양 현감을 죽이고 전도를 점령하여 해상로를 봉쇄한 다음 “자치하고 자주”할 음모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 모변이 기도한 궁극적 목표는 별국의 건설로서 이 때 별국의 모습은 그 어휘에서도 감지할 수 있듯이 중앙정부로부터 이탈된 별개의 국가로서 복고적이고도 분리주의적인 성향이 그 이면에 짙게 깔려 있었다.

양제해는 모변의 성사 후 島主는 반드시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당위성은 그 자신이 모변의 주도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했겠지만 이보다는 良乙那後孫이라는 점이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옛 三姓시대의 환상에 기반한 상고적 입장에 터전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분리적 전통에 기인하고 있었다.

이와 유사한 농민봉기는 광무 2년(무술 1898)에 일어난 房星七 난이 있다. 방성칠은 화전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화전세와 장세의 감봉을 요구하며 난을 일으켰는데 “국운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이 곳 제주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고 제주인들의 분리주의 의식을 부추기면서 봉건적 지배통치기구를 부정하고 외부로부터 유배된 적객들에게 관직을 주는 등 통치기구의 수립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방성칠 난은 南學黨이라는 종교적 비밀결사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제주인의 분리주의적 의식에 호소함으로써 봉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는 점에 양제해의 모변과 공통점이 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방성칠 난에는 일부 유배인들이 가세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유배인들의 정치적 성향인 반체제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양진건, 1991: 131).

2) 이재수난(辛丑聖教亂)

이재수난은 광무 5년(1901년) 5월에 일어나 도민과 천주교도가 무력 충돌하여 전도에 걸쳐 1만 여명의 무장 군중이 동원되고 700여명의 사망자가 있었던 제주도의 최대의 민란이요 국제 문제로까지 번졌던 이 민란의 발생지가 바로 대정 고을이었다.

제주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온 때는 1899년으로 중문 색달리 梁用恒이

세례를 받고 입도한 것이 시초였다. 처음엔 입교하는 자가 매우 적었는데, 프랑스 구마슬(具瑪瑟) 신부가 도입 하면서부터 프랑스 공사의 세력과 우리 조정의 ‘외국인 신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대하라.’는 특명을 내세워 교세 확장과 교인 보호에 적극 나서게 되면서부터 교세가 급격히 확장되기 시작했다.

교세가 커지면서 일부 사이비 교도들의 횡포가 매우 심했는데 남의 재물을 빼앗고 청부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부녀자를 겁탈하는 등 패악질이 막심한데도 官에서는 속수 무책이었다. 행패를 부리다 관에서 잡아가도 신부를 앞세워 데려 가버리면 그만이었으니 관의 위신은 처참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목사가 집무하는 방안에 신부가 오만 불손하게 신발을 신고 들어와도, ‘[如我對] 즉, 나와 같이 대하라’는 국왕의 칙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날로 심해지는 천주교의 횡포와 탐관오리들의 가렴 주구를 견제하기 위해 대정군에서는 대정군수 蔡龜錫을 중심으로 吳大鉉, 姜遇伯, 宋希洙 등이 유교단체인 象武社를 결성하게 된다.

점점 강해지는 상무사의 조직을 의심해 오던 교도들이 4월 29일에 송희수의 집을 급습한 사건으로 상무사 회원들과 천주교도들간에 반목과 대립이 계속 되었다. 며칠 후 蔡 군수가 교도 최제보를 남의 처첩을 농간한다는 혐의로 治罪하게 되었는데, 이 소문을 들은 교도 50여 명이 관아를 부수고 최제보를 빼내면서 상무사 간부 4명을 납치했다. 마을 주민들이 상무사 간부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교인 7명이 부상을 입게 되어 서로에 대한 갈등은 점차 가열되기 시작했다.

얼마 있다가 상무사를 중심으로 교도들의 횡포를 규탄하는 민중 대회가 연일 열리고 마침내 5월 16일 제주성 밖 황사평에서 3읍 백성들이 교도들

의 폐단에 항의하기 위해 모이기로 하고 吳大鉉을 장두로 추대했다.

5월 9일 드디어 장두 吳大鉉을 선두로 하여 한 무리는 서쪽으로, 또 다른 무리는 동쪽으로 하여 제주성을 향한 장도에 올랐다. 이 소식을 들은 천주교 측에서는 김 목사를 통해 명월진의 민회소 측에 13일 자정을 기해 대표 회담을 하자고 통보했는데, 그것은 기만에 지나지 않았다. 민회소 측에서 방심하는 동안 崔亨順을 앞세운 무장 교도 10여 명은 회민들이 진치고 있는 야산을 기습하여 장두 오대현을 비롯하여 주동자 6명을 납치해 버렸다.

갑자기 장두를 잃은 민중들은 보성리로 피신했다가 姜遇伯과 李在守를 중심으로 다시 꺾기하려 하자, 이 소식을 들은 교도들이 보성리를 급습하여 일과리 警民長 金奉年 등 3명이 희생되었다.

오열 속에 장사를 지낸 민중들은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 하여 동진 장두에 姜遇伯, 서진 장두에 李在守를 뽑아 같이 죽고 같이 살 것을 맹세했다.

5월 16일 동진, 서진의 4천여 명이 제주성 밖 황사평에 모이고, 교도들은 빈 관아의 무기고를 열어 각종 무기로 무장하여 제주성은 전운에 휩싸이게 되었다. 여러 날 동안 몇 차례의 교전이 있는 후 사태의 악화를 우려한 채 군수의 노력으로 화해의 기운이 무르익어 가다가 프랑스 군함이 도착할 것으로 믿는 교도측에 의해 강화도 무산되고 만다.

5월 23일 교전에서 민중측 산포수 4명이 죽고, 李在守는 교인 넷을 목베어 버렸다. 5월 25일부터는 동·서진에 교수대가 설치되어 잡혀온 교인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시작했다.

5월 31일 프랑스 신부가 요청했던 프랑스 군함이 7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산지포에 도착했고, 6월 2일 강화 진위대 1백여 명, 그리고 6월 3일

일본 순사도 군함을 타고 산지포에 오게 되어 제주는 바야흐로 공포의 섬으로 변하고 말았다. 더 이상 해 보아야 민중 층의 피해가 늘 것을 염려한 서진 장두 李在守는 6월 11일에 투항하고, 동진 민중들도 같은 순서로 손을 들고 말았다. 장두가 붙잡힌 것을 안 민중들이 해산하지 않고 장두의 석방을 계속 요구했지만, 관의 끈질긴 효유와 보리 수확철을 넘기면서 조급해진 민중들에 의해 소요는 끝을 맺게 된다.

이렇게 하여 난은 평정되고, 吳大鉉·姜遇伯·李在守를 비롯한 민란 관련자 40여 명이 서울로 압송되어 평리원(최고 재판소)에서 세 장두는 교수형에 처해지고, 군수 蔡龜錫은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나중에 사면되었다.

한편 프랑스 공사는 민란으로 인한 교당 파괴 등으로 4,150원, 민중들에 의해 죽은 구 신부의 하인 배상금으로 1,000원, 도합 5,150원⁹⁾과 난리로 죽은 교인들이 묻힐 장지를 요구했다.

이 난은 가혹한 징세와 천주교도들의 횡포에 천도민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으로 제주인의 끈끈한 저항 정신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박용후, 1990: 100~108).

이와 관련하여 대정 추사 적거지 앞에 새로 만든 濟州大靜三義士碑¹⁰⁾가 세워져 있다. 영화 ‘이재수 난’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세 명의 장두 ‘李在守, 姜遇伯, 吳大鉉’ 등 세 사람의 장두정신을 기리고 그 희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1961년 세운 것이다.

1901년의 ‘이재수 난’은 프랑스 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천주교 세력과 부

9) 이 金額은 쌀 한 가마에 1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 엄청난 金額이었고, 濟州牧使 洪種宇가 道民들에게 負擔시켜 賠償은 완전히 해결되었다.

10) 三義士 碑는 신축성교란 뒤 60년이 되는, 1961년 교란의 발생지 대정 고을 홍살문 거리(안성리 드레물가)에 대정 유지들의 이름으로 濟州大靜郡三義士碑를 세웠으니 도민의 교란에 대한 심정을 짐작하게 한다. 현재는 추사관 동쪽에 새로 비를 만들어 세웠다.

패한 봉건관료들의 횡포에 대항하여 제주민이 일으킨 반외세 반봉건 투쟁이다. 이 항쟁은 결국 두 척의 프랑스 군함이 파견되고 관군에 의해 장두李在守가 서울로 압송되어 처형됨으로써 막을 내린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우리는 도적을 죽인 것이지 결코 인간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천주교도를 가장한 일부 사이비 교도들이 횡포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그 碑文의 全文이다.

濟州大靜郡三義士碑¹¹⁾

오호라! 이것은 濟州 三義士의 碑이다. 1907년(高宗季年) 佛人이 우리나라에서 宣敎할 때 濟州의 無賴輩들이 敎堂에 投入하여 勢力을 믿고 威勢를 떨치면서 貪虐과 民財를 약탈하였으며 婦女들을 겁탈하여 境內를 騷亂하게 하자 官府에서 禁止하여도 막을 수가 없었다.

대정郡守 蔡龜錫이 郡 士人 吳大鉉과 더불어 象武會를 만들고 同志를 규합하여 그의 勢力을 막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賊徒들에게 피습당하고, 李在守 姜遇伯 두 사람이 義軍을 모집하여 東西 二隊로 나누어 黃蛇坪에서 合陳하니 衆이 수천에 달하였다. 敎徒들은 任意로 官庫의 武器를 꺼내어 義軍을 亂射하니 義軍은 砲手 수백을 모아 여기에

11) 嗚呼此濟州三義士碑也 高宗季年佛人宣敎於國 濟之無賴輩投入敎黨 席勢張威貪虐無厭 剝奪民財 劫奸婦女 境內騷亂 官府禁止而不可得 大正郡守蔡龜錫與郡士人吳大鉉設象武會糾合同志 以渴其勢反爲賊徒所劫持而被囚 李在守姜遇伯二人仗義募衆 分二隊 東西合陳黃蛇坪 衆爲數千敎徒擅發官庫武器亂射義軍 義軍募砲手數百應之 鏖戰十餘討滅四百餘人 時辛丑春也 佛人告急佛兵艦來泊 朝廷始聞報派遣察理御史黃耆淵陸軍參領尹喆圭率兵而來命散義軍招大鉉三人犯法殺人拿致入京 彼據法迫請論告以 八月二十七日處絞刑 在守臨刑歎曰 不得謁吾皇上訴我情實也 國人寃之 嗚呼說敎各國公法也 不可自我民衆擅行殺戮然 彼非宣敎也 收聚賊黨奪掠民財 劫辱婦女擅發庫兵殺人如城夫亂賊人誅姑勿問誨賊人而殘虐百姓 其有義氣者 如何恬視而任渠行虐乎 且舉朝官吏劫於彼之據法論罪而不辨彼之 誨虐國人之罪乎 然因此義士而敎不復犯全濟者謂數十年 功亦可書也 故書之其碑於甲午者愛慕之愈久不忘也 立於大正縣者以義士之出於本縣也.

대응하여 무찔러 싸우기 10여 일에 4백 여명을 토벌하였으니 때는 1901년(高宗 39)봄이었다. 佛人들은 이의 急報를 접하고 佛兵船을 來迫케 하였고, 우리 朝廷에서도 察理御史 黃耆淵, 陸軍 參領 尹喆圭가 派遣해와 義軍을 해산시켰다. 吳大鉉 등 三人은 不法 殺人犯에 적용되어 그 해 8월 27일 刑臺에서 이슬로 사라졌다.

在守는 刑에 임하자 恨歎하며 말하기를 ‘우리 皇上을 뵈고 나의 情狀을 呼訴하지 못 하니 억울하다’ 하니 朝野 에서도 원통한 마음 금치 못하였다.

오호라! 說教는 各國의 公法이니 내 民衆은 殺人을 마음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저들은 宣教를 하는 것이 아니라 賊黨을 모아 民財를 약탈하고 婦女를 겁탈하고 兵器를 마음대로 끌어내어 사람 죽이기를 城夫와 같이 하였으니 그의 賊黨들이 너무나 殘虐함으로 百姓으로서 그 義氣가 있는 자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으랴? 그 뿐 아니라 온 朝廷 官吏들이 法에 따라 論罪함을 겁내어 그들의 無道함을 가르켜 國人을 殘虐하게 한 죄를 왜 묻지 않느냐? 하며 외쳤다. 이로서 여기 三義士로 인하여 西教가 全 濟州를 범하지 못한 것이 수10년이 되었으니 그 功을 남겨 둘만도 하다. 고로 甲年에 그들을 碑에 써서 愛慕하며 더욱 오래수록 잊지 말라는 것이요, 또 大正현에 세우는 것은 義士가 本 縣에서 태어난 까닭이다(우락기, 1980: 282).

천주교도들의 횡포가 비단 大正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의 현상인데 大正을 중심으로 민중들이 뿔뿔 뭉쳐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불의를 미워하는 大正인들의 기백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IV. 제주도 대정 지역의 교육사적 전통

1. 제주유배문화의 재조명

제주유배문화를 재조명하는 것은 지나간 시대의 인물이나 사건을 들춰내 흥미 있는 얘깃거리로 삼자는 것이 아니다. 역사가 지나간 시대의 사건만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 그토록 많은 정력을 쏟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제주유배문화를 재조명하는 것은 진실 규명과 함께 그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어쩔 수 없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편입돼야 하는 것이라면, 그 '역사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시키기 위해서이며 지나간 역사로서 제주유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제주유배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제주도와 육지부 간의 육로와 해로의 전개 과정을 구명함으로써 문명의 영향과 전개과정을 제대로 밝히고 나아가 제주도의 문명 교류사에 대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유배라는 제도가 특히 제주도와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유배인들의 여러 활동들, 특히 교학활동과 같이 인간의 깨우침과 관련된 의미 있는 활동들을 가능케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의 동기와 사기를 진작시켰던 조건이기 때문이다.

제주유배문화란 다름 아닌 그 조건의 결과이며 재조명을 통해 어렵고 척박했던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인간의 깨우침과 관련된 의미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졌던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양진건(2003)은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과 그 이전 “추사 김정희의 제주교학활동 연구” 또는 “면암 최익현의 제주교학활동 연구” 등 연구 논문을 통해 유배인들에 의해 대정과 제주도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깨우침과 관련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집중 조명하였다. 그 결과는 내외적으로 관심을 끌었으며 그러한 관심은 곧 제주유배문화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제주도의 특유한 지적 자산이기에 제주유배문화관 건립 등을 통해 전시, 공유할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였다.

또한 당대의 거물정객이었던 유배인들이 제주도에 정착하거나 또는 제주도 여자와 가계를 맺고 후손들을 남겨 결국 입도조가 되어 제주도의 씨족계보를 다채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조선의 개국과 함께 유배지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제주도에 당대의 지식인들이 자리를 잡거나 일정 기간을 거쳐가면서 아주 독특한 색깔의 제주도 유배문화 형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제주유배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제주도 사람으로서의 가통 확인은 물론 나아가 정체성 확인에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배인들의 활동은 인간의 깨우침과 관련된 계몽활동에 비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배인의 활동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실천되고 이해되어 왔던 소위 ‘좋은 인간관계’의 형성 요인 가운데 하나로 간주할 수 있으며 결국 유배인들의 여러 활동을 통해 제주도 사람들은 당대의 상황 또는 당대의 모순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결국 제주유배문화란 유배인과 제주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진 독특한 행동양식이자 가치체계이다. 인간관계란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이고 생동적인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환경에 대한 포괄

적이고 실천적인 광범위한 모든 관계를 뜻하며 인간은 이러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자기의 본래적인 실존으로 돌아오게 된다(양진건, 2004: 106).

다음은 제주도 각 지역의 유배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대표적 지식인 49명의 제주도내 제1차 유배지 현황

유배지		비고	유배인수	주요 인물
제주시(제주목)			5	최익현, 송시열 등
북제주군	추자도		4	윤상도 등
	우도		2	
남제주군	대정현		34	정온, 김정희 등
	정의현		4	한천, 이시필 등
서귀포시			0	

출처: 양진건(2004), 제주유배문화관 기본 계획, 112쪽.

1) 유배의 개념

유배란 중죄인들을 멀리 보내 쉽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서 민가에서는 유배보다 ‘귀양’이라는 말을 더 썼으며 제주도에서는 유배인을 ‘귀양다리’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배 제도의 기원은 정확치 않지만 고대사회에서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삼국시대부터 행해졌던 것 같으며 실제 법제화는 탐라국이 고려에 완전 편입되어 일개 군·현체제를 갖추게 된 고려시대부터로 판단된다(양진건, 2004: 5).

조선에 와서 정치가 철저히 우승투쟁화 하면서 상대방을 추방 또는 격리시키기 위한 장치로 활발하게 유배 제도가 이용되었는가 하면 나아가 통치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을 완성시키기 위한 기능으로 활용되었다.¹²⁾

조선은 창건 이후 체제안정을 위해 형률을 정비하게 되는데 그 큰 원칙은 대명률, 즉 명나라의 형률에 의거하여 死刑, 流刑, 徒刑, 杖刑, 笞刑 등 5형을 결정하였다.

이 가운데 유배를 보내는 유형은 중죄를 범한 자에게 사형까지는 과하지 않고 원격지로 보내어 종신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流配謂人犯重罪刑殺流法遠方終法遠方終身不得回歸)이었다. 특히 조선시대 유배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국사범들에게 해당되었으며 사형 완화법으로 주로 이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지의 원·근거리가 책정되었고 형기는 원칙적으로 무기종신이었다. 유배인은 사형에서 減一等된 죄인으로써 그들의 성분은 대개가 정치범이었다. 그들은 사면령이 내리던가 정치정세의 변동이 일어나던가 하지 않으면 일생 귀향할 수 없었다.

유배는 거리에 따라 2천리, 2천5백리, 3천리 등, 3등급으로 구분되어 죄인을 황폐된 불모의 벽지나 해변의 주·군·현 내에 보내졌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곤장으로 불기를 치는 杖刑¹³⁾이 함께 이루어졌다.

국토가 넓은 중국에서는 이런 거리 규정이 적용 가능하였지만 국토가 좁은 조선에서는 이를 따를 수 없어 曲行이라는 편법이 사용되기도 했다.

12) 高麗는 元나라의 法을 따랐지만 高麗 末에 이르러 明나라의 政治勢力이 확장됨에 따라 明의 刑律을 따르게 되고 이것이 朝鮮朝에 와서 본격적으로 實施되었다.

13) 『增補文獻備考』에는 유형을 세분화하여 杖 100에 流 2천리, 杖 100에 流 2천5백리, 杖 100에 流 3천리, 杖 100에 遷徒, 杖 100에 充軍, 杖 100에 遠充軍, 杖 100에 水軍充軍, 徒配, 杖 100에 定配, 無期定配, 杖 100에 遠地定配, 邊遠定配, 極邊定配, 杖 100에 絶島定配, 減死定配, 爲奴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종 시대에 들어 각도를 기준으로 3천리, 2천5백리, 2천리 등 3등급에 해당되는 유배지가 결정되었다. 즉 범죄인의 거처지를 표준으로 하여 유형의 등급에 따라 어느 곳에서 어디로 보낸다는 지방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유배는 지방에서보다 중앙에서 왕명에 의해 주로 정치범에게 적용되었던 형벌이므로 그때그때의 정치상황이나 죄인의 신분 차이, 혹은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지도 결정되었으며, 때로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移配) 경우도 있어서 죄에 따른 유배지 결정이란 것이 고정 불변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조선 중기에 들어 당쟁이 치열해지면서부터는 변경이나 내륙 지방으로의 유배는 극소수였고 섬으로의 유배가 대부분이었다.

섬으로는 강화도나 백령도 등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들도 있기는 하지만 왕족 등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이곳에 유배되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연해에 위치한 섬에 유배되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를 비롯하여 흑산도, 진도, 고금도, 완도 등 전라도 연해의 여러 섬들이 그 대상지로 많이 이용되었고, 이 가운데도 제주도야말로 3천리 유배의 상징적인 대상지로 대표적인 역할을 하였다.

2) 유배의 성격

유배는 성격에 따라 還徒, 付處, 安置 등 3 가지로 구분된다.

還徒란 범죄인을 고향에서 천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강제 이주(遷離鄉土一千里外)시키는 형벌로서 이는 피해적 성격을 가진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全家徒邊이라고 하여 일가족 모두를 이주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죄는 부모와 형제, 처자 등 이른바 삼족에 미친다는 삼족연좌제, 가족연좌제의 일종으로 종종 때부터 실시된 이 형이 너무 가

혹하다 하여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付處는 中途付處의 준말로 주로 관원들에게 내려졌던 것으로서 유배지 관내 수령에게 유배인 관리에 대한 재량권을 일임했던 형벌이었다.

安置는 유배인의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제한시키는 것으로 本鄉安置, 絶島安置, 圍籬安置가 있는데 본향안치는 말 그대로 유배인을 고향에 유폐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가장 가벼운 사람에게 적용되었던 형벌이었다. 유배 중에 가장 가혹한 조치인 절도안치는 중죄인을 원악의 도서에 유폐시키는 형벌이었다.

위리 혹은 가극안치는 중죄인에게 적용되었는데 집 주위에 울타리를 치거나(圍籬), 가시덤불을 쌓고(加棘) 그 안에 유배인을 유폐시킴으로써 죄인의 중연금 상태를 내외에 상징하는 조치였다. 가시 울타리로 쓰였던 탕자나무 서식지가 전라도 연안과 제주도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주로 취해졌던 형벌로서 원래 유배인이 원하면 유배기간동안 자신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가족의 동반이 가능했지만 위리안치만은 그것이 불가능(不可與家屬混處)했다.

그러나 위리안치는 상징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유배인의 행동범위를 실제 가시울타리 안으로만 제한했던 것은 아니었다. 유배인의 감시 책임은 관내의 수령이었던 까닭에 수령의 성격이나 재량권 활용에 따라 대개는 형식에 그치는 수가 많았다.

3) 제주도 유배의 내용

제주는 이조 5백년 동안에 걸쳐 수다한 선비들과 傑士들이 유배되어온 눈물진땅이다. 또 많은 사람이 사약을 받고 죽기도 했다. 어느 유배인이 적은 다음의 글귀는 당시 제주의 배경을 잘 말해준다.

“耽羅通國罪地而 流竄那家重典也.”

“濟州는 通國의 罪地요 流配는 나라의 重法이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왕족이거나 중신이거나 누구를 막론하고 왕조에 거역하거나 정사에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사형이 아니면 원지유배를 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국가처벌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제주는 수륙 2천리에 교통이 매우 불편하여 본토와 격리된 지역으로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유배지로서는 최 적지였다(제주도 上, 1980: 255).

제주도 유배를 일컬어 절도안치라고 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島配라고 하였고 도배가 아닌 경우는 遠配라고 하였다. 도배냐 원배냐 하는 것은 순전히 정책적 고려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의 유배형은 즉흥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조선시대는 골육상잔의 당쟁 때문에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유배가 활용되었고 더욱이 원배보다 도배로서 절도안치가 선호되었다. 원래 제주도에는 ‘죄명이 특히 무거운 자가 아니면 정배되지 않는다.’ 혹은 ‘제주목에는 특별한 교지가 없으면 정배되지 않는다.’라고 『大典會通』에 규정하여, 특히 제주도의 유배를 조심스럽게 다루었지만 당쟁이 격화되던 조선 중기부터 남용되기 시작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유교입국의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간 결과 학설의 대립, 학문의 파벌을 잉태시켰고 그것은 나아가 당파의 파벌로 분화되어 정권다툼으로 이어져 끝내는 피비린내 나는 사화나 당쟁 등의 당옥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유배가 남발되었다.

조선시대 유배의 대부분은 지식인의 정치적 수단 고리인 당쟁이 그 원인이었다. 조선의 유배는 그 발생이 주로 정치적 생존경쟁인 당쟁으로부터

터 기인했으며, 당쟁을 통해 정권 장악에 성공한 자들이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취했던 행형의 산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배와 조선 지식인의 정치적 수난과는 대응관계였다.

조선 초기만 해도 유배는 통상 갑산이나 북청 또는 영흥, 초산, 강계 등에 원배로 그쳤다. 서울 근교의 교동은 왕족들의 유배지였으며 그밖에는 충주나 상주 등 이른바 선지에 유배가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 이후 당쟁이 격화되면서 변경이나 내륙으로의 유배 대신, 도배가 격증하였고,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다도해의 여러 섬들이 일급의 유배지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 섬에는 당대의 유명한 선비들이 대거 유배되는데 그 수에 있어서 제주도는 단연 압도적이었다.

이런 점에서 영조33년(1757) 전라도 감사 이창수는 “유배인들이 제주목에 집중되어 있어 그들을 제주 3읍에 분배하였지만 그럼에도 유배인들이 계속 늘어나자 제주 사람들이 매우 곤혹스러워 한다.”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조선 말기의 거물 정객으로 제주유배인의 한사람이었던 김윤식은 “제주목의 유배인들이 나날이 늘어나 마치 섬 전체에 가득 찬 것 같아 제주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웃고 한편으로는 한탄한다.”고 그의 『續陰晴史』에 기록하고 있다(양진건, 2004: 8).

4) 유배문화와 대정

(1) 유배문화

제주유배문화를 논함에 있어 대정현 지역을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선 앞의 조사에서 보듯이 유배인들이 압도적으로 대정현에 많이 왔기 때문이기도 하며 더욱이 그로 인해 유배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

내 보여주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대정 지역은 제주도에서도 가장 바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포구인 모슬포를 일컬어 ‘못살(사람이 살지 못할) 포’라고 비하했던 것처럼 조선시대 원악의 유배지로서 가장 선호하던 곳이었다.

조정의 정치권력 유지를 위해 배척해야 할 당사자들 가운데 중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멀리 추방 및 격리시키기 위한 최적지로 제주도 대정이 이용되었던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정 지역은 제주도 유배문화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당대에 비판적이었던 유배인들과 현지 주민들이 交好하면서 만들어진 제주도 유배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대정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탐라국 멸망이래 제주도의 정신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탐라의 독립을 갈망하는 현지 주민들의 분리주의적 성향은 유배 지식인의 비판적 의식과 묘한 조화를 보이면서 제주도 유배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이루게 된다.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주 특유의 비판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 특유의 비판정신은 제주도내외에서 가해졌던 여러 수탈과 탄압 그리고 박해와 혼란에서 연유된 일종의 저항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배 지식인들의 비판적 실질을 이어받은 이러한 제주 특유의 비판정신은 수 차례의 제주민란이 모두 대정을 중심으로 봉기되었고 민란의 장두들 대부분이 유배인의 후손이거나 유배인과 관련을 맺고 있었던 점등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들이다.

조선조 대표적 유배지인 제주도에 내도 했던 유배인들과 제주도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진 독특한 행동양식이나 가치체계로서 과거는 물론 심지어는 오늘까지도 제주도 전체의 생활영역에 영향을 주며, 제주도 사람들의 태도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

유배문화는 지난날의 제주도가 모든 문명과 단절된 척박한 미개의 절해고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당대의 모든 정치·경제사적 그리고 문화사적 흐름과 호흡을 같이 했던 드라마틱한 현상이었음을 반증한다.

양진건(2004)은 “대정의 역사적 자산인 유배문화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유배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제주유배문화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2) 유배지 대정현

대정 지역(모슬포)은 일찍이 근대문물이 들어온 곳이며,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여 제주 유배인 49명 가운데 34명이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양진건(1999)은 조선 500년동안 제주도에 유배된 사람은 대략 2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식인 4,000여명 가운데 유배인은 대략 700여명이며, 이들 가운데 계급적으로 신분이 확실한 사람은 대략 49명(韓國人名大辭典, 1983)이 제주도로 유배됐다. 전국 유배지역이 240여 군데였던 점에 미뤄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식인 중 상당수가 제주로 유배 온 셈이다.

제주도에는 申鉉(1722년 申壬士禍)과 같이 84세의 최 고령자가 대정현에 유배됐는가 하면 소현세자¹⁴⁾의 3남인 石堅은 4세로 최연소 유배됐다. 유배인의 신분도 다양하다. 위로는 광해군을 비롯 왕족과 외척, 문무 양반, 학자, 승려, 환관이 있는가 하면 도적과 북방의 국경을 넘다 잡힌 범인 등 각계각층이다.

현 단위 중에서도 대정현은 34명이 유배되었으며 진도 27명, 흑산도 15

14) 仁祖의 長子·丙子胡亂때 淸나라의 인질이였다.

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조선의 지식인 유배만 2백여명, 대표적 인물만 50명에 이를 만큼 유배 인들로 넘쳐났던 제주섬. 유배는 제주정신사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친 촉매였다. ‘이재수의 난’의 이재수나, 제주4·3의 좌익계 거물이었던 金達三¹⁵⁾도 유배인의 후손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어떤 인물들이 삭탈관직하여 ‘유형’의 땅 대정 지역으로 들어왔을까.

연산군 때 내관이던 金舜孫은 왕이 옳지 못한 일을 고치도록 직언 하다 유배되었고, 중종 때 李世蕃은 조광조의 무죄를 호소하다 대정현에 유배된다. 그는 적거 7년이 되는 해에 큰 병을 얻게되어 제자들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부인(황씨)과 두 아들이 제주에 오게 되며, 그가 죽자 가족들은 제주도 대정현에 정착하게 된다. 따라서 李世蕃은 古阜 李氏 입도 조로써 오늘날 제주도 대정의 고부이씨 집성을 가능케 하였다.

광해군 때 鄭蘊은 영창대군의 살해 반대 강력한 문책을 상소하다가 광해군의 미움을 사 1614년 대정현에 유배된다. 정운의 문집 『동계집』은 당시 제주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지방유생을 가르치는 등 제주에 많은 기여를 했다.

영조시대에는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세력들이 정조의 왕위계승을 막으려다 발각되고 이를 빌미로 정조의 이복형제인 恩彦君(裊, 대정현에)과 恩信君(제주에)이 유배되는 등 정치·학계에서 10여명이나 유배당했다.

헌종때 金正禧는 운상도 옥사가 재론되며 대정현에 유배됐다. 추사의 9년에 걸친 유배는 실학사상의 제주전과 계기가 됐고, 그의 덕행과 학문은

15) 李在守는 李世蕃의 12대 後孫이며, 金達三도 본명은 李承珍으로 그의 후손이다.

제주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3) 대정현 유배인

대정 유배인 34명 가운데 행적이 확실한 인물을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중종 시대>

① 李世蕃

이세번은 의금부도사로 있다가 조광조가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실시한 현량과에 천거되었고, 조광조 등(己卯諸賢)이 투옥되자 성균관 유생들과 함께 무죄를 호소하다(己卯士禍에 연루됨) 중종 15년(1522)부터 7년 간 대정현에 유배되었고, 지방 유생들을 가르치다 이곳에서 적사 하였다.

그는 조광조와 함께 조선 5현 가운데 한 사람인 김굉필의 문하에서 공부를 했으며, 중종조 사림과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賢良科와 관계되어 조광조 등의 사림파들과 인연을 맺은 사람이다.

賢良科는 종래의 과거제가 지닌 모순과 새로운 인재등용의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사림파의 정계진출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서 설치된 제도였다. 그런데 현량과는 薦舉科이므로 그 응시 자격은 천거를 받은 자에 한하였다.

따라서 현량과의 실시는 현량의 천거가 선행되어야 했다. 중종 14년(丙子, 1519) 4월 13일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현량과가 실시되었는데 이때에 李世蕃을 포함한 120명이 천거되었으며, 그중 급제한 인물은 28명이었다. 120명은 경향 각지로부터 천거되어 온 이른바 ‘才行可用之人’으로서 이들의 천거는 居京人의 경우에는 홍문관, 대간, 육경 등에 의해, 지방인의 경우는 유향소를 거쳐 관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모든 被薦人

에 대해서는 천거명목 즉 薦目이 제시되어야 했는데 그 평가요목(評語)은 대개 성품, 器局, 재능, 학식, 행실 또는 행적, 지조, 생활태도 또는 현실대응의식 등 7개 항목으로 구분되어졌다.¹⁶⁾

그런데 천거된 120명 거의 모두가 기호지방 내지 영남지방과 관련된 인물들이었고 또 어떤 형태로든 조광조 일파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고 보면 이 천거는 결국 사림파가 추구하고 있던 학문과 가치관, 행동유형, 현실대응의식 및 자세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결국 천거된 120명은 거의가 사림파의 성분을 지닌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세번 역시 예외가 아닌 것이다. 그에 대한 ‘都事李世蕃 有學問操守’라는 기록이 이를 반증한다.

그가 유배 중에 병에 걸리게 되자 부인(황씨)과 두 아들이 간호를 위하여 적소에서 동거하게 되고, 7년만인 중종 21년에 대정 배소에서 사망한 후에는 식구들이 아예 제주도에 정주함으로써 결국 이세번은 古阜李氏 제주 입도조가 된다. 이러한 이세번과 사마시 진사과에 합격하여 당시 태학 유생으로 수학 중이던 아들 李忠賢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가학적 전통은 제주교육사상사의 면모를 다양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15세기 사림파의 학문적 전수관계와 사우관계를 살펴보면 바로 가정적인 학문의 전통이 기초가 되었고 거기에다 혈연적인 관계와 지연적인 연대가 서로 얽히어 있었다. 제주도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리학의 수용 범위는 철저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런 입장에서 이세번의 식구들 같은 경우는 제주도 학풍일신에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양진건, 2001: 213~215).

16) 『燃藜室記述』 卷8, 賢良科罷復條.

<광해군 시대>

② 鄭蘊 1569(선조 2)~1641(인조 20).

정온은 조선 인조 때의 문신으로 자는 輝遠이며 호는 桐溪또는 鼓鼓子이다. 시호는 文簡이고 본관은 草溪이며 惟明의 아들로, 鄭仁弘·鄭述의 문인이다. 광해군 2년(1610) 문과에 급제하여, 설서와 부사직 등을 지냈다.

그는 영창대군이 강화부사 鄭沆에 의하여 피살되자, 정항의 처벌과 당시 일어나고 있던 인목대비에 대한 폐모논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격렬한 상소를 올림으로써 왕의 노여움을 사 광해군 6년(1614) 대정현에 유배되어 인조반정까지 10년간 지내게 된다. 유배 생활 중에 德辨錄·望北斗詩·望白雲歌 등을 지었다. 인조반정으로 등용되어 대사간·관찰사·부제학 등을 지냈고, 병자호란 때 이조참판으로 척화를 주장하다가 화의가 성립되어 항복이 결정되자 칼로 자결을 도모하였으나,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벼슬을 그만두고 덕유산으로 들어갔다. 영의정에 추증되고, 제주의 橋林書院, 함양의 藍溪書院 등에 봉향되었다. 저서로는 『桐溪集』이 있다¹⁷⁾

그는 처음에는 鄭仁弘을 스승으로 하여¹⁸⁾ 大北이 되었으나 永昌大君 문제로 스승과 알력이 생기면서 스스로 제자의 적을 없애고 中北이 되었다가 다시 인조반정 후 南人이 된 사람으로 그의 학문됨은 일찍이 曹植 → 鄭仁弘 → 鄭蘊으로 이어지는 소위 南冥學派의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후일에 가서는 退溪 → 鄭述 → 鄭蘊의 退溪學派 영향을 받게 된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정온의 학문경향은 제주도 유배를 전후하여 크게 질적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유배시에는 아직 성명을 담은 후의 실행을 주창하고 경의를 신조로 하여 反躬體驗과 持敬實行을 학문의

17) 『光海君 日記』 卷11, 6年 甲寅 2月 丙午條 「兩司語鄭蘊極邊安置」.

18) 金埴 『海東名臣錄』, 「蓋公自幼受學於鄭仁弘」.

목표로 삼았던 남명의 학문경향을 따랐었던 때였다.

그는 유배 올 때 많은 서적을 가져 올 수 있어서 독서로써 일과를 삼을 수 있었고 대정현감 김정원이 적소 경내에 서재용으로 두 간의 집을 지어 주었으므로 그 곳에서 지방유생들을 교학하고 먼저 유배와 있던 宋象仁, 李翼 등과도 시문 교류를 하였다.

그는 중국 은대부터 남송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곤란과 우환을 당하여도 정도를 잃지 않았던 59명의 행적을 모아 『德辨錄』이라 하여 자성서로 삼았고, 매년 정월 초하루 새벽에는 자경잠을 지어 연중 자경서로 하였는데 자성과 자경이란 곧 학문과 인간자아의 주체를 지키는 자세이자 그 기반으로 곧 자율학습의 시작이었다(양진건, 2001: 228).

그런가 하면 정온은 이색적인 제주도 풍경을 노래하기도 했는데 특히 노동요를 듣고 느낀 정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노동요는 제주도 민요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노동요의 그 구슬픈 소리에 자신의 처지를 기묘하게 섞어 노래한 방식은 유배의 고통을 더욱 실감나게 한다.

이 지방엔 방아 찧는 풍속이 없으니
마을 아낙네 절구공이를 안고 노래부르네
높고 낮음이 가락이 있는 것 같고
꿇일락 이을락 서로 조화를 이루네
모름지기 그 뜻을 알아듣고자 하여
자주 들으니 점점 귀에 익네
처량하게 새벽달에 잠 못 이루어
먼 곳에서 온 나그네 머리만 세는구나

- 「촌녀저가(村女杵歌)」

인조 때 유배된 이진이 집필한 『제주풍토기』에도 “여인들이 절구를 찧을 때는 群聚하고 힘을 합하여 절구공이 노래(杵歌)를 제창하면서 찧으므로 경각에 두어 휘(斛)의 곡식을 능히 장만할 수 있으나 그 노랫소리가 슬프고 처량하여 차마 들을 수가 없다.”고 써어져 있다.

10년이라는 유배기간을 올곧게 견디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한 인간의 기상증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러나 어떤 처지에서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삶들이 있다. 鄭蘊이 그렇고 金正禧가 그렇다. 제주도 밖에서는 다산 정약용이 그렇지 않았는가. “마음이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곤궁에 오래 처하여 있지 못한다.”는 공자의 말도 있지만 그들은 마음이 어질어서 그랬는가.

다른 유배인들에게 흔했던 소설도 그들은 맞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재미로 유배 생활을 견뎠는가 하는 愚問이 튀어나올 법도 하다. 허나 삶을 어디 재미로만 사는가. 김정희는 서법 연구와 함께 제자를 키웠고 정약용은 수많은 저서를 집필했으며 鄭蘊은 서재 생활을 통한 자기 완성자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양진건, 1999: 104~109).

제주도 유배생활에 대해서는 『桐溪集』에 언급된 독서활동을 살펴보자.

“음(현감)이 선생을 위해 서실 두 칸을 만들어 주었는데 옆의 서쪽 圍籬 앞으로는 橘林을 마주했다. 선생은 날마다 그 안에 거처했으며 經·史·子·集 수백 권을 다락 위에 올려놓고 10년 동안 돌아가며 열람하였다. 大易에는 날마다 上訴(封) 한 통을 외우면서 깊이 연구하고 啓蒙하였다. 밤이 깊어서야 자리에 들었고 아침이 되면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단정히 앉아 읽고 외우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¹⁹⁾

19) 『棟溪集』, 卷1, “邑傳爲先生作書室二間傍西籬前對橘林先生日需其中經史子集累百券閣之架上十年之間皆環觀賢大易則日誦一封精究啓蒙夜深而寢至初拂衣端坐誦讀不輕其

經·史·子·集 수백권을 10년 동안 돌아가며 열람하였다는 언급은 桐溪의 독서활동의 그 깊이나 폭이 과연 어떠한 경지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동계 정은은 자성과 자경, 즉 학문과 인간자아의 주체를 지키는 자세, 주자의 독서관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자는 어디까지나 독서를 제이의적인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자연히 제일의적인 중요성을 갖는 자기 자신의 理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독서를 통해 파악된 성현의 뜻과 이치를 몸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현이 말씀은 밝기가 해와 달과 같다(聖賢之言明如日月)고 생각한 주자는 아무리 독서를 많이 해도 성현의 밝은 도로 자기의 무지와 무명을 깨우쳐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단지 종이 위의 문의 의 파악에만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²⁰⁾

1843년 이원조 목사는 鄭蘊을 봉향하기 위해 대정에 松竹祠라는 사묘를 세웠는데 鄭蘊의 호를 따서 桐溪祠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후일 松竹書院으로 발전된다. 그 명칭을 송죽이라 한 것은 정은이 대정에 유배되면서부터 손수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어 키웠고 유배가 풀려 중앙으로 돌아간 뒤에는 이를 시로 읊어 남겼는데 이렇듯 송죽에 심취했던 정은의 취미를 그리고 송죽을 정은의 절개에 비유하여 붙인 것이다.

<숙종 시대>

③ 柳赫然 1616(광해군 8)~1680(숙종 6).

紀吟”

20) 『朱子語類』, 卷11, “讀書不可只專就紙上求理義須反來就自家身上推究”

“今人讀書多不就切己上體察但於紙上看文義上設得去便了如此濟得其事何必讀書然後爲學”

유혁연은 조선 인조 때의 무신으로 자는 晦爾이며 호는 野堂이다. 시호는 武愍이고 본관은 晉州로, 진양군 孝傑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숲 속에 아이들을 모아 단에 서서 지휘하며 병정놀이를 하며, 그 군율이 엄연함을 보고 노인들이 크게 놀랐다. 병자호란 때 아버지 孝傑이 안주에서 전사하니 형제가 함께 싸움터로 떠났으나 중도에 남한산성이 함락되어 적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와 배나무를 안고 통곡하니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를 유공수(柳公樹)라 하였다고 전한다.

1644년(인조 22) 무과에 급제. 훈련대장·공조 판서 등을 지냈고, 숙종 때 庚申大黜陟으로 영해에 귀양갔다가 대정으로 옮긴 후 사사되었다.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글씨와 竹畫에 뛰어났다²¹⁾

④ 閔黯 1636(인조 14)~1694(숙종 20).

민암은 조선 숙종 때의 문신으로 자는 長孺이고 호는 叉湖이다. 본관은 驪興으로, 이조참판 應協의 아들이다.

1668년(현종 9)에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과 승지, 그리고 함경도 관찰사를 지내고 변무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숙종 6년(1680)에 대사헌으로 있다가 庚申大黜陟으로 南入이 실각하자 파직되고, 己巳換局으로 다시 기용되어 대제학·병조 판서를 역임하였다. 우의정이 되었다가 甲戌獄事가 일어나자 대정에 위리안치되어 사사되었다²²⁾

<영조 시대>

⑤ 金有慶 1669(현종 10)~1748(영조 24).

김유경은 조선 영조 때의 문신으로 자는 德裕이며 호는 龍洲 또는 龍谷

21) 『孝宗·顯宗·肅宗實錄』, 『진양충의세편』, 敎學社, 李弘植 編(1989), 『새國史辭典』.
22) 『肅宗實錄』, 『燃藜室記術』, 『黨議通略』, 敎學社, 李弘植 編(1989), 『새國史辭典』.

이다. 시호는 孝貞이고 본관은 慶州로 진사 斗徵의 아들이다. 1710년(숙종 36)에 문과에 급제하여, 설서와 정언 그리고 수찬 등을 지냈다. 경종 2년(1722) 辛壬土禍 때 유배되었다가, 영조 원년(1725) 노론의 집권으로 풀려나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노론 김유경은 품성이 강직하고 바른 말을 좋아하여 불의를 참지 못하였다. 영조 3년(1728) 丁未換局 때에는 부사직으로서 숙종실록의 보수에 반대한다는 소논의 탄핵으로 제주도 대정에 안치(유배)되었다가, 동왕 5년 소론이 추방당하자 유배가 풀려, 형조 참판이 되고 도승지·대사헌을 거쳐 이조 참판이 되었다. 그 뒤 좌참찬을 역임하고 봉조하가 되었으나 영조의 탕평책을 시종일관 비판했다.²³⁾

그런가 하면 李宣哲은 영의정인 이종성이 영조의 탕평책으로 조태억과 함께 복직된 이광좌의 제자라는 점을 들어 그를 탄핵하다가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된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조의 탕평책을 비판한 것일까? 영조의 탕평책은 노론·소론·남인·북인, 즉 사색 안배를 통한 조제·보합 등 세력 균형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특히 최고 세력인 노론 측의 불만이 없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노론은 수적으로나 당파성으로나 요지부동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영조의 탕평책을 시종일관 비판할 수 있었다. 이런 까닭에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는 그 폐단을 인식하여 사림의 사기 진작에 초점을 맞추어 정계 구도를 時派와 僻派로 재편하였다(양진건, 1999: 170).

⑥ 宋文載 1651년(효종 3)~?.

송문재는 조선 영조 때 문신으로, 자는 士安이며 호는 幸叟이다. 본관은 礪山으로. 아버지는 翼長이며, 예조참의 翼輔에게 입양되었다.

영조 22년(1746) 알성 문과에 급제하였고 가주서·검열·교리·승지 등

23) 『英祖實錄』. 『지수재집』. 敎學社, 李弘植 編(1989), 『새 國史辭典』.

을 역임하였다. 대사간 때 과직되어 대정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동래부사·함경도 관찰사·대사헌을 지낸 후 영조 49년(1773)에 다시 과직되었으며, 정조 3년(1779)에 개성부 유수로 복직되었고, 뒤에 호조 참판에 이르러 은퇴하였다.²⁴⁾

⑦ 沈翼雲 1734(경종 14)~?.

심익운은 조선 영조 때의 문신으로 자는 鵬如이며 호는 芝山이고 본관은 靑松이다. 영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을 거쳐 지평에 올랐다가 동왕 52년(1776)에 朴相老의 탄핵을 받아 대정현에 유배되어 배소에서 죽었다. 저서로는 『百一集』이 있다.²⁵⁾

⑧ 恩彦君 裯 1755(영조 31)~1801(순조 1)

은언군은 조선 순조 때의 왕족으로 莊獻世子の 庶子이며 영조의 손자이고, 정조의 이복동생이다. 또한 철종의 조부이기도 하며, 영조 47년(1771)에 벼슬이 과직되어 稷山縣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대정현에 안치된 후에 풀려났고, 정조 10년(1786)에 아들 常溪君 담이 반역죄로 몰려 자살하자, 왕명으로 강화로 이사하여 살았다. 순조 원년(1801)에 辛酉邪獄으로 사사되었고, 철종(哲宗) 때에 신원(伸冤)되었다.²⁶⁾

그의 동생인 은신군도 은언군과 같이 제주에 유배되었으나 이곳에서 병사하였다. 궁중의 권력투쟁에 종친이 희생된 경우라 할 수 있다.

⑨ 任徵夏 1687(숙종 13)~1730(영조 6).

임징하의 조선 영조 때의 문신으로 자는 聖能이며 호는 西齋이고 본관은 豊川으로 집의 洞의 아들이다. 1713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이듬해 增廣文科(丙科)에 급제하고, 승문원부정자가 되고 정언을 거쳐 1721년 지평에

24) 『英祖·正祖實錄』, 『朝鮮名臣錄』.

25) 『英祖實錄』.

26) 『英祖·正祖·純祖·憲宗實錄』.

이어, 병조좌랑, 사서 등을 역임하다가 申壬士禍로 삭직 당했다. 1725년 노론이 다시 집권하자 장령으로 등용되어 6개조의 상소문을 올려 탕평책을 반대, 소론의 제거를 주장하다가 이듬해 순안에 유배 되고,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등장하자 다시 대정현에 위리안치 되었다. 이듬해 소론의 영수 이광좌의 주장으로 투옥된 뒤 고문을 받고 옥사했다. 정조 때 관작이 복구되고 이조참판에 추증. 시호는 충헌. 저서는 『西齋集』이 있다.²⁷⁾

다행히 그는 제주 목사를 지낸 任弘望의 손자라는 이유로 제주도 사람들로 부터 존경과 대우를 받는다. 임흥망은 송시열의 제자로서 숙종 때 제주 목사를 지내며 특히 향교에 책고를 세우고 책관을 개간하는가 하면 이름 없는 세금들을 없애 제주도 사람들로 부터 선정관으로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임정하는 숙종 때 희빈 장씨를 반대하는 상소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던 김진구의 사위이다. 고영제라는 제주도 사람의 집을 적소로 정한 그는 지방 자제들을 가르치는가 하면 장인의 제자인 김덕항과 친교를 나누었다. 그런가 하면 숙종 때 장희재의 편지에 연루되어 근처에 이미 유배와 있던 처남인 김춘택과 교류하며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다 다음해에 의금부에 연행되어 곤장을 맞고 죽는다(양진건, 1999: 167~169).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인연이 부모와 자녀간의 인연이라고 하는데, 임정하처럼 제주도와 각별한 인연을 나누었던 사람도 드물다. 그의 할아버지는 제주 목사로, 장인과 처남 그리고 본인은 유배인으로 제주도와 관련을 맺고 있으니 그 인연을 두고 결코 하찮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작가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중대한 어떤 사건의 도래를 피

27) 『景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부로 느끼는 걸 예감이라 부른다고 하였는데, 任徵夏는 자신의 죽음이야말로 중대한 사건일진대 죽음을 예감하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가 아니 죽었느냐”고 하는 담담함을 시로 나타내고 있다.

⑩ 趙觀彬 1691(숙종 17)~1757(영조 33).

조관빈은 조선 영조 때의 문신으로 자는 國甫이고 호는 晦軒이다. 시호는 文簡으로. 본관은 楊州이며. 충익공 泰采의 아들이다. 숙종 40년(1714) 문과에 급제하여 수찬과 승지 등을 지내고 경종 3년(1723) 辛壬士禍에 화를 당한 아버지에 연좌되어 홍양에 유배되었다가 영조 원년(1725)에 풀려나와 호조 참의·이조 참의·대사성·홍문관 제학·동지돈녕부사 등을 지냈다. 대사헌으로있을때 정미환국으로 이광좌가 영의정으로 복직되자 그를 비판하다 제주도 대정현 북문 김호의 집에 유배되었다가 다음해에 풀려난다. 저서로 『晦軒集』이 있다.²⁸⁾

조관빈은 경종 때 제주도에 유배되었던 조승빈의 동생이며, 그들의 막내 동생 趙謙彬역시 거제도에 유배되었으니 온 집안이 유배를 경험한 셈이다. 조관빈은 제주도 여자들의 이색적인 삶의 풍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시골 아낙 옷자락은 여미지 얹아 몸을 드러내고
멀리서 샘물 길어 허벅지고 가는구나
처첩 한집안 살이 괴로운데
날 저물어 방아 노래 원성처럼 들리네
- 「탐라잡영(耽羅雜詠)」

28)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教學社, 李弘植 編『새 國史辭典』.

이건의 『제주풍토기』에는 “섬의 여인들이 물을 길 때에 머리 위에 이지 않고 등에 지고 가는데 별통 같은 긴 통에 물을 길어서 지고 가는 모습이 매우 괴상하다”고 하였는데 조관빈 역시 이 광경이 특이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처와 첩이 한집안 살이를 한다는 부분이다. 육지에서는 종종 본처와 첩이 같은 가구를 형성하지만 제주도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고 본처와 첩이 각기 별개의 가구를 형성하는데 조관빈은 그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첩의 비율이 육지보다 제주도가 훨씬 많기는 한데 그것은 이혼한 부인들이 가능하면 재혼을 원하지만 사회적 이동이 적은 지역 사회에서의 女多男少 현상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그 일부가 첩의 길을 밟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처첩간에 신분 차이가 거의 없는 제주도의 특징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양진건, 1999: 171).

<순조 시대>

① 丁蘭珠

정란주는 黃嗣永 帛書 사건의 장본인인 황사영의 부인이다. 중국인 신부 周文謨에게 알렉산드르라는 교명으로 영세를 받은 황사영은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충청도 제천군 봉양면 舟論이라는 도기를 만드는 천주교도의 마을로 숨어든다. 그곳에서 그는 황심·옥천희라는 열렬한 신자와 연락이 닿아 위기에 놓인 조선 교회를 구출하는 방안을 상의한다.

그들은 조선 교회의 박해받는 실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교회의 재건축을 호소하는 편지를²⁹⁾ 10월에 떠나는 동지사 일행에 끼여서 북경 주교에게

29) 길이 62cm, 너비 38cm되는 흰 명주 비단에다 한 줄에 110자씩 121행, 도합 1만 3

전달하려고 한다. 그러나 관헌에게 발각되어 黃嗣永은 처형되고 어머니는 거제도에, 처인 鄭蘭珠는 제주도 대정에, 아들은 추자도에 각각 유배된다.

정난주는 정약현의 딸로서 그녀의 숙부가 되는 정약전·정약종·정약용은 모두 천주교 신자였다. 그녀는 37년 동안을 관노로 제주도 대정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었는데 서울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최근 천주교 제주 교구에서는 정난주의 묘역을 성역화 하였다(양진건, 1999: 189~191).

<현종 시대>

⑫ 金正喜 1786(정조 10)~1856(철종 7).

김정희는 조선 철종 때 문신이며 서화가·고증학자·금석학자이다. 자는 元春이며 호는 阮堂·秋史·禮堂·詩庵·果坡·老果 등 100여가지가 있다. 본관은 慶州이며, 이조판서 魯敬의 아들이다. 그의 어머니 유씨가 임신한지 24개월만에 출산했다는 전설이 있다(이홍직, 1989: 263).

순조 19년(1819) 36세 때 문과에 급제. 설서·검열 등을 거쳐 동왕 23년 규장각대교가 되었다. 충청우도 암행어사를 거쳐 이조 참판을 지냈고, 24세 때에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가서 당시의 거유 阮元·翁方綱과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秋史體를 대성한 명필로 예서·행서를 잘 썼다. 그림은 죽란과 산수를 잘 그렸고, 김석학에도 조예가 깊어 북한산의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阮堂集』·『金石過眼錄』·『實事求是說』·『阮堂尺牘』·『覃擘齋詩稿』 등이 있다.³⁰⁾

친여 자를 검은 먹으로 깨알같이 쓴 긴 편지이다.

30) 『憲宗·哲宗實錄』.

金正禧는 실학의 실사구시 학파 개산조로서, 朴齊家를 첫 스승으로 모시면서 실학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게되고 연경 방문으로 청조학적 전통을 승계 함으로써 실사구시의 방법론을 인식하게 되어 약관의 나이에 몸소 학파의 원류로서 두각을 보이게 된다. 그는 안동 김씨의 정치극으로 자행된 현종 6년(1840)의 尹尙度 獄事³¹⁾가 재론되기 전까지는 평탄하게 벼슬길을 보내다가 이 사건으로 55세 때 대정현에 유배되어 종신무기수로서 9년 간의 중요한 후반생을 제주도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제주도에도 실학의 학풍이 소개되었다. 김정희의 유배생활은 후일 그의 학통을 잇고 『阮堂集』 五卷五冊을 편집하였으며 두 차례나 내도 했었던 내종질 閔奎鎬가 쓴 『小傳』에 잘 나타나 있다.

귀양사는 집에 머무니 멀거나 가까운 데로부터 책을 짚어지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창날같이 몰려들어서 겨우 몇 달 동안에 인문이 크게 개발되어 문채나는 아름다움은 서울풍이 있게 되었다. 곧 탐라의

31) 王世子(純祖 27년부터 대리청정 하다가 동 30년 22세로 병사하였는데 후에 翼宗이라 추시함)가 죽자 그해 前台官, 尹尙度, 尹翰模 父子가 상소하기를 호조판서 朴宗薰, 전유수 申緯, 어영대장 柳相亮 등을 탐관오리라고 논척하였다가 왕은 도리어 尹尙度を 왕과 신하를 이간시키는 자라하여 그들 부자를 추자로 유배시켰다.

그런데 순조 34년에 왕이 돌아가고 憲宗이 즉위함에 대사헌 金弘根은 재차 尹尙度の 凶蔬사건을 재론 엄벌하기를 상소하였으므로 尹尙度 부자를 추자도에서 압송하여다가 여러 차례 국문 하다 죽었는데 이때 尹尙度는 전부사 許晟도 같이하였다 하였고, 許晟은 또 전참판 金陽淳을 끌어들었는데 김양순은 말하기를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병조참판 金正禧가 흉소를 기안하여 李華冕을 시켜 南履翼에 주고 남이익은 許晟에게 준 것이라 진술하면서 심문 도중 사망하였다.

이에 김정희가 끌려들어 갔는데 김정희는 김양순의 진술이 전혀 허위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때 이미 김양순, 이화면, 남이익 등은 고인이 되어 있었으므로 변명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김정희도 尹尙度 흉소옥사(凶蔬獄事)에 관련되어 극형에 처하도록 되었으나 우의정 趙寅永의 力救로 減死되어 제주 대정현으로 유배하게 된다.

거친 풍속을 깨우친 것은 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³²⁾

이렇듯 김정희의 유배는 제주도 교육의 질적 변환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제주인들과 흥학교화의 동화를 통하여 교육 내용의 수준 높은 자극과 변화를 예고하였는데 왕성한 사제관계가 이를 대변한다. 제자가 삼천명 이라는 「阮翁門下三千士 不負才命獨出群」의³³⁾詩語가 시사하듯 그만큼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으며 제주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과 사우강습이 가능할 수 있었다. 즉 姜師孔, 朴啓瞻, 許瑒, 李時亨, 金麗錐, 李漢雨, 金九五, 姜道淳, 姜寄奭, 金左謙, 洪錫祐, 金炳旭 등이 그들로서 이들의 신분계층은 양반사대부를 제외한 넓은 의미의 하층계층으로서 소위 委巷階層이었다.

조선조 제주교육의 질적 변환의 구체적 예증은 김정희와의 사우강습을 통해 발흥한 委巷文化運動으로 나타나는데 제주도의 이 운동은 주로 김정희와 만남을 가졌던 제주인들이 주도하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문하인 중에 뛰어난 분으로서는 제주인 金九五, 대정인 姜道淳, 광지인 朴階瞻 등은 널리 알려졌으며, 제주필원으로 추앙되기도 한다. 이 운동의 하나인 전각운동은 제주인들 가운데 金九五에게 승계 되었으며 이어 金九五의 아들인 愚齊가 正統을 이었고 愚齊의 아들 金義男이 家法을 따랐다. 이어 金義男을 洪鐘時가 이었고 이어 朴判事(성명 미상)가 전승하는 등 조선 후기 특유의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그것은 곧 제주도 나름의 교육내용의 질적 변환을 주창한 일련의 교육운동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제주도의 위향문화운동은 유배인 김정희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32)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卷1, 阮堂金公小傳. “居謫舍遠近負者如市數月人文大開彬彬有京國風 耽羅開荒自公始.”

33) 『姜瑋全集』上, 「同白小香金松年再會紅館送別」.

학예적 흐름이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근본적으로 이 흐름은 淸의 藝苑을 풍미하고 다시 조선학예에 영향을 미쳐 김정희가 삼절의 고봉을 이루고 다시 그의 문하에 중인출신의 무수한 제자를 배출함으로써 기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의 이 같은 문화운동은 조선 말기 “橘園”시회의 모임과 활동으로 계승된다.

이러한 문화운동으로서 교육내용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김정희의 학문관에서 기인한다.

당시 조선 최고의 문화수준을 향유하고 淸나라의 문화와 학자를 접하고 절해고도 제주도로의 유배편력을 통하여 김정희가 절실히 느낀 것은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욱 더 문화가 인간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개인이 타고난 재능의 계발은 어느 지역 어느 계층 어느 신분(上下貴賤南北)에 처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재는 거의 없고 평범한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그 평범한 재능을 비범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개인이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라기보다 차라리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계승 즉 교육에 의해서라는 것이 김정희의 생각이다.

따라서 그는 궁벽한 절해고도 제주도에도 문화의 계발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였고 중인계층의 시재를 유난히 반가워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주도에서 서울의 양자 商懋에게 보낸 서한 가운데 특별히 제주유생 李時亨을 부탁하는 글에서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 이시형이란 사람은 나이가 젊고 재주가 뛰어난데 결단코 학문을 하고자 하니 그 뜻이 자못 예리하여 막을 수 없으므로 올려보내니 함께 공부하여 보도록 하여라. 비록 그 건문은 넓지 않다 하더라

도 만약 같고 닦게 한다면 족히 이 곳의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뛰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가는 것은 배를 타고 가야 하므로 늦을 것 같다.”³⁴⁾

자기는 자신이 속해 있는 동양문화권의 정상에 올라 그 문화의 시원과 맥락 지향점을 가늠해 보는 것을 목표로하면서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 소외된 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정열을 아울러 가졌던 것이 김정희였다. 이러한 까닭에 유배지에서도 문화에 많은 사람들의 내왕이 빈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열악한 환경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문화에 제자들의 내왕이 빈번하다는 것은 師道가 존엄하다는 것과 관련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곧 교사의 권위문제이기도 하다.

유배지에서 김정희가 제주인 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은 바로 그의 덕행과 학문이 제주인 들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제주인들에게 바치는 교육적 관심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승에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크게는 엄격한 스승과 온화한 스승이다. 엄격한 스승은 자신에게도 엄격하고 학생에게도 엄격하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다. 온화한 스승은 차근차근히 타이르면서 언제나 온화하고 성내지 않는다. 그는 학생들의 애대를 받고 그의 온호함 때문에 친화감을 주면서도 스승으로서의 위망을 손상받지 않는 분이다. 김정희가 바로 그러한 스승이었다.

김정희는 이렇듯 문화 전반, 특히 학문과 예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개인적 친분으로 간곡히 당부하거나 白破나 李源祚와의

34) 金正喜 『阮堂先生全集』卷2 「此邑李生時亨 年少才逸 決意欲此學其志頗說 不可阻奪 使之上去 試與同研 雖其見聞不廣若使磨足以傲此地不讀者耳 其行從船 而去 似遲緩矣」.

경우에서 보듯 논쟁하는 방법에 의존,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었다. 특히 그의 학문적 논쟁은 자신의 학문적 입지를 근거하면서 한편으로는 학술논쟁을 통한 자신의 유배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대체로 학술논쟁은 쌍방이 지니는 주장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면서 상대방의 이론적 주장을 깨뜨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장점은 더욱 발휘되고 단점은 천하에 공개된다. 이것은 학문의 발전에 매우 귀중하다. 더욱이 논쟁의 초점을 세상에 내걸어 공표 하는 문제는 논쟁의 커다란 공헌이다. 무엇보다 김정희의 공헌은 논쟁의 초점을 제주인 들에게 공표 함과 동시에 더불어 함께 하는 논쟁정신을 발휘시켰다는 사실에 있다.

근본적으로 그의 관심은 비록 동양문화권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중국 문호에 깊이 경도되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조선의 문화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열망에서였으며 더 나아가 제주도와 같은 낙후된 지역의 낙후된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같은 김정희의 흥학교화의 노력으로 제주도에서는 실학의 분위기에 입각, 교학적 쇄신의 계기를 맞게 된다(양진건, 2001: 238~244).

다음은 그의 제주 유배생활 중 독서활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추사가 유배지 제주도에서 왕성한 독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제자이며 역관이던 이상적의 덕분이었다. 김정희의 유배로 지위와 권력을 잃어버렸는데도 사제간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은 이상적의 인품을 소나무와 잣나무에 비유하여 그려준 것이 “세한도”이다. “歲寒然後知 松柏之後凋也(날이 차가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안다)”는 『논어』의 한 구절을 빌어 “세한도”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다.

또 추사는 이상적에게 그려준 “세한도”발문에 “지난해에 桂馥의 『만학집』(1841)과 惲敬의 『대운산방문고』(1811)의 두 가지 책을 보내주더니, 올해 또 가장령의 『황조경세문편』을 보내주었네”³⁵⁾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 추사는 “이 책들은 모두 세상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천만 리 먼 곳에서 사오고 여러 해에 걸쳐 얻은 것으로 일시에 가능했던 일도 아니었을 것일세.”³⁶⁾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상적은 1841년 10월부터 1842년 3월까지 제5차 연행을 다녀오고 1842년 10월부터 1843년 3월까지 제6차 燕行을 다녀오면서³⁷⁾ 추사가 부탁했던 이 책들을 구입하거나 직접 구할 수 없는 책들은 구입을 부탁하고 돌아온 뒤 서울에서 책을 받아 1843~4년에 걸쳐 추사에게 보내주었던 것이다. 추사가 “세한도”의 발문에서 이 책들을 여러 해에 걸쳐 매우 힘들게 구했다는 말은 바로 이런 사실을 지적함이다.

사실 추사는 이 무렵에 제주도에서 이 책들이 도착하기를 몹시 기다리고 있었다. 추사가 유배 초기인 1841~2년경에 동생 김상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상적에게 부탁했던 책 보통이는 어느 때나 부쳐올지 모르겠네.”³⁸⁾라고 궁금했던 것은 바로 이 책들에 대해 소식을 물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적은 무려 12번이나 중국에 다녀올 정도로 19세기 중반의 대표적인 역관으로 활약했는데 1830년 봄에 28세의 청년으로 처음 중국에 다녀온 뒤 바로 龍湖의 秋史를 찾아가서 인사할 정도로 일찍부터 추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추사가 중국과 교류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주고 있었

35) “歲寒圖”, 跋文, “去年以大雲晚學二書寄來今年又以藕畊文編寄來”

36) “歲寒圖”, 跋文, “此皆非世之常有購之千萬里之遠積有年而得之此一時之事也”

37) 鄭後洙, 『朝鮮後期中人文學연구』, 깊은샘, 1990, 62쪽.

38) 『阮堂全集』, 券2, 與舍季相喜, 二, “李君尙迪許所託徐包不知何時可得付來耶”.

다. 그래서 추사는 평소 이상적의 빈번한 여행과 주선을 통해서 국내에 앉아서도 중국 학예계의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며 국제적인 시각에서 국제적인 차원의 학예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고, 이상적은 추사의 명성과 후광을 통해서 추사가 맺고 있었던 북경 인맥을 활용하여 단순한 역관으로서의 신분을 넘어서 극진한 문사 대우를 받으며 더욱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사는 1840년 9월에 청론 계열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안동김씨 세도정권의 무고로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減死一等으로 겨우 살아난 뒤 절해고도의 제주도에 위리안치 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인 생명이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은 역관으로서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정치적 위험성을 무릅쓰고 모든 권세와 이익을 상실한 추사에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중국의 새로운 자료들을 구해서 제주도까지 보내주었다. 그래서 추사는 꼭 한번 보고싶었던 이 책들을 이상적에게 부탁했다가 1843~4년에 제주도에서 전해 받고 이상적의 변치 않는 마음과 고마운 정성에 진심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세한도”를 그려주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추사는 훗날 이상적이 보내준 『만학집』과 『대운산방문고』를 회고하며 소동파가 해남도에 귀향 갔을 때 지니고 있었던 도연명과 유종원의 문집을 南遷二友라고 불렀던 것에 비긴다고 해도 거의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며⁴⁰⁾ 『황조경세문편』은 재미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누구와 더불어 같이 맛볼 길이 없어서 몹시 안타깝다는 편지를 동생에게 보낼 정도로⁴¹⁾ 추사의 제주 유배에서 이 책들은 매우 각별한 의미

39) 崔完秀, 『秋史實紀』, 『潤松文華』 30號, 韓國民族美術연구소, 1986, 59~94쪽.

40) 『阮堂全集』, 卷8 雜識, “樺桂二集果是南遷二友之不足多矣.”

41) 『阮堂全集』, 卷2, 與舍季相喜, 四, “文編中果有可喜處非一二無緣共嘗獨自看過亦有

가 있었다.

특히 『만학집』은 추사가 평생의 스승으로 삼았던 옹방강(1733~1818)이 표제를 써주고 阮苑(1764~1849)이 서문을 써주었는데⁴²⁾ 옹방강은 이미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절해고도의 유배지 제주도에서 생사의 경계를 넘나 들고 있었던 추사에게는 더욱 각별한 감회가 있었을 것이다.

藤塚鄰은 이들 책과 그 정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교적 소상하게 논하고 있다.

“藕船은 제주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완당을 생각하여 자주 물건을 보내서 위문하는데 성의를 다하였다. 4년째인 헌종 9년(1843)에 그는 桂未谷의 『만학집』과 惲子居의 『대운상방집』을 북경에서 새로 구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완당에게 이것을 보내 그의 심심함을 위로 하였다. 완당은 翁覃溪, 阮藝臺와 학문적 교류를 할 때 일찍부터 未谷의 學問書藝에 마음이 끌리고 또 葉東경이라든가 이월정의 서찰을 통해서 미곡에게 설문의증 오십권의 위대한 저서가 있음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인연이 얹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그의 저서인 『만학집』의 기증에 접하였던 것이다.

본서는 8권으로 되어 있고 도광 21년(1841)의 간각으로 표제지에는 가경병진의 옹방강의 제명이 있다. 권수에 장상체의 『계군미곡전』 다음에 ‘조각성씨’ 도광 21년(1841) 桂顯誥의 식어 다음에 건융 59년(1794)에 쓴 완원의 서가 있고 권말에 는 도광 21년에 쓴 공헌찬의 후서가 있다. 이는 미곡의 경술을 알기에 충분한 훌륭한 저서이다. 惲子居에 대해서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대운산방문고초집』 사권은 가경 16년(1811)에 가각하였는데 이집 사권 일록범집문 구십육편은 가경 20

何意趣耶.”

42) 藤塚鄰. 『清朝文化東傳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昭和50年, 470쪽.

년(1815) 장주의 송장광길포가 광주서호가에서 각하고 있는데 완당이
기증 받은 것은 초집 사권뿐인 것 같다. 완당은 이 두 도서를 얻고 각
별히 기뻐하였다.

우선은 또 이듬해인 도광 24년(1844) 가우경의 편이라고 칭하는 『황
조경세문편』 일백이십권 칠십구 책을 구하여 멀리에서 기증하였다. 본
서는 도광 7년(1827)의 각본으로 자서가 있고 춘추좌씨전의 서법의 오
개조의 의예인 오예를 들고 있다.

위목침이 편찬하고 조가산이 교감한 것이다⁴³⁾

秋史가 “歲寒圖”를 이상적에게 그려준 시기가 1844년임을 고려해 볼 때
『대운산방문고』는 1843년에 기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844년
3월에 그의 친구인 권찬제에게 보낸 편지에 “『대운산방문고』는 귀하의 책
장에 소장하고 있는 모양인데 본인도 한번보고 싶다. ...(중략)... 초집, 이
집 이에 또 외집이 있다. 귀하가 소장하고 있는 것이 만일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잠시 빌려주기 바란다.”고⁴⁴⁾ 했던 것으로 볼 때 추사가 이상적으
로부터 기증받은 것은 등총린의 지적대로 초집 사권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친구로부터 『대운산방문고』의 이집, 외집까지도 빌려 받고
보다 많이 숙독, 완미하여 참된 뜻을 구하려고 하는 추사의 왕성한 독서
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런 처지에 대해 추사는 “제주에 와서는 요즈음 자못 마음이 잠잠해지
니 연구를 할 수 있어 시력을 심하게 사용하고 있다. 다만 기봉을 발전할
상대가 없어서 때로는 책을 덮고 쓸쓸히 웃을 뿐이다. 아무런 교정을 받
을 길도 없는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있다”라고⁴⁵⁾ 토로하고 있다.

43) 藤塚鄰, 前掲書, 453쪽.

44) 藤塚鄰, 上掲書, 455쪽.

이밖에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대하였던 서책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本草』 : 명나라 李時珍이 편찬한 『本草綱目』 52권.
- 『詩醇』 : 청나라 高宗이 편찬한 『御船唐宋詩醇』 47권.
- 『律髓』 : 원나라 方回 편찬한 『瀛奎律髓』 49권
- 『書畫譜』 : 청나라 孫岳頌 등이 奉旨贊한 『御定佩文齋書畫譜』 100권
- 『周易折中』 : 청나라 聖祖가 御贊한 『御纂周易折中』 22권.
- 『藏進帖』 : 명나라 萬歷 陳元瑞 刻의 『渤海藏眞帖』 8권.
- 『千字文』 : 양나라 周興嗣가 편찬한 『千字文』.
- 『靈飛經』 : 道經의 일종.
- 『藝海珠塵』 : 不分卷 48책.
- 『海志』 : 청나라 魏源이 쓴 西洋文物 소개서인 『海國圖誌』.
- 『岐亭詩帖』 : 蘇東坡가 黃州에 귀양가 있으면서 지은 詩帖.
- 『淸愛堂帖』 : 청나라 劉塘이 法帖으로 만든 『淸愛堂石帖』 4권.
- 『古器款識』 : 鐵帖이 만든 金文圖錄 『十六長樂堂古器款識』.
- 『漢隸字原』 : 南宋 婁機가 편찬한 書學에 관한 책⁴⁶⁾

이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책은 『海國圖誌』이다. 『해국도지』는 청조의 위원이 쓴 서양문물 소개서로서 청조 말의 중국은 물론, 조선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끼친 책이다. 이 책은 후일 『만국정표』등이 간행되어 풍부한 해외지식이 제공되기까지는 해외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입문서였다. 이 책은 단순한 세계지사서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청국 공양학파의

45) 藤塚鄰, 上掲書, 456쪽.

46) 이 目錄은 『阮堂全集』에 실린 秋史의 流配書翰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입장을 대변하는 사상서로서 조선 말기에 들어 박규수와 유대치 등을 통하여 김옥균 등의 개화파에 영향을 주었다.

『해국도지』의 50권 본은 1842년에 완성되어 1844년에 간행되었는데 김정희는 1845년에 벌써 이 책을 제주도에서 입수하고 있다. 1845년 막내아우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국도지』는 요사이 좋은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네. 그러나 눈 어두운 것이 이와 같아서 예전처럼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 아쉽기 짝이 없군.”이라고⁴⁷⁾ 쓰고 있다. 그는 또한 이 책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책에다 베끼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는데⁴⁸⁾ 유배 중인 김정희의 관심지향성을 말해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또한 그는 지우 권돈인에게 보낸 서한 가운데서도 “『해국도지』는 꼭 필요한 책이며 나에게 있어서는 다른 집의 많은 보물과 맞먹는다.”⁴⁹⁾고 쓰고 있다. 이렇듯 『해국도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근대조선의 개화사상을 낳는 한 밑거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양진건, 2003: 87~88).



이외에도 대정현에 유배된 인물들을 왕조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연산군 시대> 金舜孫(내관), 金良輔(선전관).

<중종 시대> 李世蕃(의금부도사).

<광해군 시대> 鄭蘊(인조때 문신), 趙稷.

<현종 시대> 申命奎, 李枝達.

<숙종 시대> 柳赫然(훈련대장), 吳始復, 吳碩夏, 張希載(금군별장), 閔黯.

<경종 시대> 申鉉(승정원 승지, 대사간·대사헌), 鶴孫.

<영조 시대> 尹志, 任徵夏, 申應顯, 姜趾煥, 徐宗廈, 李巨源, 金有慶, 宋文

47) 『阮堂全集』, “海志好作近日消遺三去而眠花如此不得如前日之看讀可款”

48) 前揭書 “切欲抄錄空冊之大印札兩券可以得送耶”

49) 上揭書 “海國圖志是必需之書在我似若他家數寶”

載, 李宣哲, 趙重明, 趙觀彬, 權震應, 任觀周, 恩彦君.
 <정조 시대> 盧聖中, 沈翼雲, 金字鎭, 俞彦鎬.
 <순조 시대> 丁蘭珠(천주교인).
 <헌종 시대> 金正禧(조선말의 문신·고증학자·금석학자·서화가).

2. 근대 이전의 전통

1) 유배인의 교학활동

대정현에 귀양온 많은 유배객들이 적소에 지방민 자제를 불러모으거나, 혹은 사숙을 마련하여 학문과 지식을 전달하는 등 학문 향상이나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연산군 시대의 金舜孫, 金良輔 중종 시대 李世蕃, 광해군 시대 鄭蘊, 영조 시대 趙觀彬, 任徵夏, 헌종 시대 金正禧 등은 교학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은의 문집인 『桐溪集』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대정 백성들은 처음에 장유의 차례와 상하의 구별이 없었다. 선생이 이를 구별하여 늙은이를 먼저 하고 젊은이를 뒤에 하여 그 좌석을 구별하였다. 또 연소한 자들을 뽑아 글을 가르치고 인륜을 베푸니, 이로부터 장유와 상하가 조금은 조리가 있었다. 또 전후하여 부임해온 수령들이 모두 무인으로, 날마다 백성들을 사냥에 동원시켰으므로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었다. 선생이 현감에게 말하여 당시 사냥하는 사람들을 모두 농토로 돌아가게 하니, 백성들이 모두 선생을 우러러 사모하였으며, 귀양에서 풀려 돌아갈 때에는 울면서 그를 따라 친척을 이별하는 것과 같이 하였다(양진건, 1999: 106).

김정희의 『阮堂集』小傳에는 “공이 謫舍에 들어간 뒤에 원근에서 글을 배우려고 찾아온 자자 대단히 많았다. 그래서 겨우 두어 달 동안에 인문이 크게 열려 찬란하게 서울의 기풍이 있게 되었으니, 탐라의 황폐한 문화를 개척한 것은 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주도교육청, 1999: 173-174).

유배인들은 교육자 또는 자기완성자로서 현지 주민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현지의 학문 향상과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다. 원래 조선조의 선비들은 개인의 인격과 학문적 소양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린다는 수기치인을 전제로 한 학자관료(士大夫)로서 학문적 소양으로 정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제 유배인들은 현지 주민들과의 동화를 통해서 죄수라기보다 교육자 또는 자기 완성자로서 여러 성과를 남기는데 金正禧가 제주도 유배기간에 秋史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유배인들은 기본적으로는 학자이면서 정치인이었고 정치인이면서 또한 학자였다. 따라서 유배되었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학자적 기능은 여전히 가능했기 때문에 유배생활을 서재생활로 전환하여 치열한 학자적 생활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유배인들은 현지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학자로서 유교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많은 양의 지적 유산을 유배지에 남기게 되었다.

李世蕃은 지방유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유배의 나날을 보냈는데 적거 7년 동안 길러낸 많은 제자들이 후일 높은 벼슬에 올랐을 뿐 아니라 그 맥도 끊이질 않았다.

盧聖中은 적거생활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모아 강학을 하고 官隸를 접견하는 등 외부접촉을 빈번히 했다. 때문에 어사 黃昇源이 이 사실을 논죄

하기에 이르러 타처로 결국 이배되었다.

또 任徵夏는 제주를 떠날 때 자기 뜻과 주장이 후세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리라는 “要訣諸生”의 시를 남기게 된다.

성현의 글을 읽어 배울 바가 무엇이나
하늘을 우러르나 땅을 보나 부끄러움이 없게 함이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가 아니 죽었느냐
굴림이 곁에 있으니 오랜 세상을 기다려 보세
슬프다. 제자들이여, 나의 일을 가지고 경계치 말며
문단고 독서를 부지런히 하여 게으름이 없도록 하라

이 시는 곧 후진교학의 사기진작을 위함과 동시에 교육가치관의 수립과 그 실현방법을 언급함으로써 교육이상의 실현을 염원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이 외에도 많은 유배인들이 지방 유생과 지역의 주민들을 가르치는 등 제주와 대정 지역에 많은 기여를 했다.

2) 대정향교

(1) 제주도의 향교

향교는 조선조 지방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향교는 인재를 양성하고 유교이념을 보급하기 위하여 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군·현에 존재한 유일한 관학이고 孔子를 봉사하기 위해 마련된 문묘가 소재한 공적 기구였다. 따라서 그것은 군·현의 상징이기도 했으며 지방교육의 중심이었

다.

유교국가를 표방한 조선조는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체제를 지지하게 할 교화정책도 아울러 펴나갔다. 교화정책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지방민을 교육하고 교화할 학교의 설립이었다. 따라서 건국 초부터 학교를 ‘敎化의 本’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륜을 밝히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으로는 수도에 성균관을 두어 고급인재를 양성했고 소학으로 중앙에 사학과 지방에 향교를 두어 연소한 京·外子弟들을 길러냈던 것이다.⁵⁰⁾

그리하여 고려 인종 5년(1127)에 등장한 향교가 조선조에 이르러 전국적인 확대를 보게 되었으며 성종대에는 모든 군·현에 설치되었지만 제주도에는 태조 원년(1392)에 일찍부터 향교가 세워졌었다.⁵¹⁾ 이것은 지방향교로는 가장 일찍 설립된 예였다. 태조 3년부터는 교수관을 두고 향교에 10세 이상의 도관 자제들을 교육시켜 국시에 나가게 하였다.⁵²⁾

향교의 설립과 함께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으로 조선의 對 제주도정책과 관련한 회유책임과 동시에 제주도를 교화가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인식한 중앙의 입장이 개진되어 있다. 정의, 대정의 양현은 태종 16년(1416)에 분치되어 그 후 곧 향교가 설치되었으며 이로써 제주도에는 3개의 향교가 설립되었다.

(2) 대정향교의 건립·이설·중수

50) 鄭道傳, 『三峰集』 卷7, 朝鮮經國典上, 禮典, 學校.

5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 學校案, 『在域中 金處禮碑 我太祖元年壬申 學校成 世宗十七年乙卯 鄉校再造』. 『增補文獻備考』, 卷209, 學校考8, 鄉學, 『太祖元年 是年 濟州學校成』.

52) 『太祖實錄』 卷5, 3年3月, 丙寅, 『都評議使司上言…乞自今置教授官 土官子弟十歲以上 皆令入學 養成其材 許赴國試…上從之』.

태종 16년(1416) 始置된 대정향교는 효종 4년(1653) 어사 李慶億이 향교의 위치가 부적하고 또 협소하다 하여 이건을 啓請하고 李元鎭 목사가 현성 남쪽 簞山 밑에 부지를 마련하여 이건 하였는데, 현감 權克中이 주관하였다. 현종 10년(1669) 李演 목사 때 현감 趙門赫에 의하여 대정향교를 중건⁵³⁾하였다. 현종 원년(1835) 朴長復 목사⁵⁴⁾ 때에 현감 張時悅이 大成殿을 중수하고, 순조 11년(1811)현감 邊景鵬이 朱子書體를 본받아 明倫堂額을 揭하고 순조 때 姜師孔이 秋史 金正喜가 쓴 疑問堂額을 게시하였다. 조선조 초기로부터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각도 監司에게 명하여 향교의 흥폐로 각 守丞의 치적을 考査케 하니 향교교육은 융성하였다 그러나 이조 중엽 이후 사학교육기관들이 융성함에 따라 향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오직 文廟祭享의 場으로만 유지되었다.

대정향교의 이설 또는 중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빈번한 이설과 중수의 문제이다. 향교의 유지와 관련된 모든 일들, 예컨대 향교의 이건·중건·중수, 위패의 봉안과 승출, 제례에의 향축하송 등은 반드시 예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예조에서 주관하여 처리케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향교를 사사로이 이건하거나 위패를 손상한 守丞, 校任, 校生 등은 처벌을 받았고 심하면 軍현이 降號되는 예도 있었다.⁵⁵⁾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주 삼읍의 빈번한 향교 이설과 중수는 매우 예외적이다. 또한 그 시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설시기를 눈여겨보면 명종이나 선조 조 이후의 일들인데 명종, 선조 조 이후는 사학인 서원의 융성으로 향교가 급속하게 폐이되던 시기로서 법제상으로도 『續大典』에는 교수, 훈도마저 혁파되어⁵⁶⁾ 교육기관으

53) 上揭書, 『(英祖)四十八年…大靜縣監李寬 重修明倫堂』.

54) 上揭書, 『憲宗元年 春 牧使朴長復 重修大靜鄉校』.

55) 禮曹에서 鄉校에 대한 제반 조치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 『學校謄錄』 7卷이다.

로서의 기능이 마비되고 교생도 지방 토족의 자제만으로 충원되던 것이 그 신분마저 완전히 변질되어⁵⁷⁾ 실질적인 지방교육은 서원이 대행하다시피 하던 때였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향교가 침체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빈번한 향교 이설정책을 펼쳤다는 사실은 주목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규채(李奎采)의 중수기록

1742년 전 지평 ⁵⁸⁾이규채의 중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 지평 이규채의 기록

내가 대정현에 적거한 지, 삼년이 지나자 임금님 은혜를 이고 풀려나, 제주 성에서 배를 타려고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는 대정현의 향교 유생이 뵈기를 청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길한 날에 문묘에 올리는 쌀은 옛날 조정에 아뢰어 밥쌀 4승 5합으

56) 『續大典』, 吏典, 外官職條에 各道の 教授, 訓導는 『減』이라 되어 있고 『續大典』, 吏典, 取才條에는 『外教官今廢』라 하여 鄉校의 教授, 訓導는 革罷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57) 『仁祖實錄』 卷 14, 4年 11月, 庚寅條, 『古之校生 皆是簪纓世族 非今日雜類之比』.

58) <사마방목 CD>에 보면 1703년 태어나 1726년 생원에 그리고 1726년 진시에 합격하였다. <조선 왕조 실록 CD>를 찾아보면, 영조 12년에 성균관 별제에서 장원에 입격하여 진시에 나아갔고, 정언과 지평을 거치면서, 영조 16년(1740) 11월 2일 대정현에 가시나무를 둘러쳐서 출입을 금하도록 하는 유배 명령을 받았다. 사간 이윤신이 삼사(三司)의 합계(合啓)를 정지하려고 하였으나, 이규채가 불가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영조 17년(1741년) 11월 2일에 출륙하도록 명령받았고, 11월 30일 죄를 감등받았으며, 이듬해(1742년) 1월 10일에 임금이 이규채를 풀어 주도록 하였다. 유배지인 대정에서 삼년을 보냈다는 것은 영조 16년에서부터 18년까지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영조 23년에 수찬, 28년에 승지, 30년에 대사간, 37년에 형조 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로 더하여 놓았지만, 제사 그릇은 옛날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그릇이 작아서 조정의 아름다운 뜻을 구현하지 못하니, 사체가 진실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그릇 바꾸는 것은 향교 유생 무리들이 사사로운 힘을 고칠 바가 아니므로, 가히 앞뒤로 부임한 수령들에게 알렸습니다. 수령들은 고을의 힘이 凋殘 하다고 핑계를 대었고, 오직 한 사람이 수궁하였습니다. 신명대 수령이 부임한 초기에 개연히 뜻이 있어서, 소요 비용을 대어 줄 생각을 하고 제기들을 바꾸고 보수하였습니다. 이는 60년 동안 서두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대 수령이 이를 능히 하였으니, 이는 실로 성인을 존경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신명대 수령이 임기가 다 차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온 대정현의 사람들이 그의 공적을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논하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새로 조정에서 금령을 내려 비석을 세우고 이를 기리는 것이 불가합니다. 없어지고 없어져 이에 전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선생께서 한 말씀으로 이를 기록하여 주시면, 장차 판목에 실어 여러 수령들에게⁵⁹⁾ 보이려고 합니다.

나는 부득이 사양하지 못하고 다음처럼 쓴다.

슬프다! 크게는 천하의 국가에서, 작게는 수령이 다스리는 주와 현에서, 그 다스림에는 근본과 끝이 있다. 文物은 근본이고, 政事는 끝이다. 대저 문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단 禮樂과 文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하나의 물건이라도 이를 문채롭게 하면 문물이 되는 것이다. 또 하물며 성인의 위패를 모시는 문묘에 서라, 더욱 반

59) 원문에 '제후 후(侯)라고 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글에는 보통 '뒷사람들에게 보인다'(視諸後)는 표현을 쓸 법한데(諸는 之於의 줄임말). 유독 '수령'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다소 의아해진다. 왜냐하면, '수령들에게 이 사실을 보인다'는 것은 다음 수령들에게 향교의 일을 잘 하라는 암묵적인 압력이 되기 때문이다. 압력을 행사하려고 이런 내용을 판목에 실어 걸어둔다는 것이 좀 유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짜반짜 가히 불 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앞에서 政事라고 말하는 것은 한 舉措 사이의 결정일 따름이다. 맹자가 “공자는 먼저 회계 장부를 닦고 제사 그릇을 바르게 하였다.”고 하였다⁶⁰⁾ 옛날의 성인은 반드시 이 일에 급급하였는데, 어찌 그 뜻이 없겠으랴?

돌아보건대, 지금 속된 관리들의 다스림은 분기별 곡식의 회계 장부(簿書期會)만을 직책으로 삼고, 백성들로부터 가혹히 거두어 모으는 것을 능사로 삼으며, 어느 일이 근본이 되며, 어느 정치가 끝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 제사 그릇 보기를 한가로운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길 뿐이다. 대저 어찌 예약 문물이 그 안에 있는 줄 알 수 있으랴?

지금 신명대 현감이 홀로 정치를 하는 근본을 알았으니, 또한 아름답지 아니한가! 내가 신명대 현감의 치적에 대해서 눈으로 본 것과 귀로 얻어들은 것들이 많다. 대개 그 천성이 조용하고 차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삼가고 부지런하다. 백성들에 임해서는 잘 아끼고 불쌍히 여기며, 자기 자신을 규율함에는 청렴하고 결백하게 하고, 혁혁하게 소문이 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1백리 현 전체가 따듯한 봄날인 듯 넉넉함이 많았다. 생각하건대, 그 가운데에 모아들이 이와 같으니, 그러므로 “정치에서 나타난다.”는 바가⁶¹⁾ 저와 같이 믿을 만하구나! 그 근본이 어지럽고도 끝이 다스려지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아, 대정현은 궁벽진 바다에 있는 치우쳐진 땅의 한 고을이지만, 선비가 된 이들은 반드시 문묘의 제사 그릇들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지

60) 맹자 만장(하)에 보면 만장에게 공자가 벼슬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에서 이 말이 나온다.

61) 맹자 공손추(상)에서 공손추에게 ‘말을 아는 것’(知言)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마음이 바른 이치에 밝지 않으면, 피사(諛辭)와 음사(淫辭)와 사사(邪辭)와 둔사(遁辭)가 그 마음에서 생겨나, 그 정치에서 해가 되며, 그 정치에서 나타나, 그 일에서 해가 된다고 말하였다.

못한 것이 아니다.⁶²⁾ 지금 신명대 현감으로 인하여 제기들을 고쳐 바
꿈도 또한 흥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 또한 하교를 일
으키는 데에⁶³⁾ 일조가 된다고 말할 따름인저!⁶⁴⁾

② 이관(李寬)의 중수 기록.

1772년 대정향교의 명륜당과 전사청과 서쪽 재사를 증건한 이관 현감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⁶⁵⁾

62) 원문에 하나의 부정만을 쓰고 있지만, 문맥에 맞게 되려면 이중 부정을 써야 옳
다(未必不知, 未必無知 등)

63) 수령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학교를 일으키는 것이다. 수령의 임무를 흔히 ‘수령
칠사’(七事)라고 한다. 농업과 잡업을 일으키고, 호구를 늘이며, 학교를 일으키고,
군정을 잘 다스리며, 부역을 고르게 하고, 사송을 간결하게 하며, 간활(奸猾)을 없
애는 일들이다.

64) 前 持平 李奎采 記

余謫居大靜, 越三年, 夢恩有, 候風于州城. 一日, 大靜校儒請見, 而吉日釋奠飯米, 舊
白朝家, 加飯米四升五合, 而簠簋, 則因循未改. 蓋器之小, 而不能體朝家美意, 事體未
安. 然此非校儒輩私力之所改. 可輒告于前後官長, 則託以邑力之凋殘, 而一人肯之者.
申侯命又莅任之初, 慨然有意, 料理區畫, 修改祭器, 此乃六十未違者, 而申侯能之, 此實
□出於尊聖之意.

今當申侯之瓜熟遞歸, 一縣士林之議思, 所以闡揚功業, 而新有朝禁, 不可立石而頌之.
竊泯泯無傳焉. 願子以一言識之, 將欲揭板而視諸侯. 余辭謝不得.

噫, 大而天下國家, 小而方伯州縣, 其爲治也, 有本有末, 文物本也, 政事末也. 夫所謂
文物, 非但爲禮樂文章, 雖一物之□, 文之, 則文物也. 又況且關於聖廟者, 則尤豈非彬彬
可觀乎? 苟如是, 則向所謂政事, 卽□一舉措之間耳. 孟子曰, “孔子先簿正祭器.” 古之
聖人, 必汲汲於此事者, 豈無其意哉?

顧今俗吏之爲治, 以簿書期會, 爲職責, 以掊克聚斂, 爲能事, 不知何事之爲本, 何政之
爲末, 則其視簠簋, 不過一間物而已. 夫孰知禮樂文物之在其中耶?

今申侯, 獨能知爲政之本, 不亦美乎? 余於申侯之治蹟, 得於目擊而耳影者, 多矣. 蓋其
天性恬靜, 一心謹飭, 臨民以慈良惻怛, 律己以廉潔粹白, 不求其赫赫聲, 而百里陽春, 有
足多者. 惟其蘊諸中如此, 故所以‘發於政’, 如彼信乎! 其本亂而未治者, 否矣.

噫, 靜是窮海僻邑, 爲士子者, 未必知聖廟祭器之爲貴重, 而今因申侯之修改, 亦能有興
起之心, 此亦爲興學校一助云爾.

65) 『제주 유맥 육백년사』, 부록 1075면에 탁본 사진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 제주 향

명륜당·전사청·서재를 중건하는 기록

임진년(1772년, 영조 48)겨울 11월 초3일 갑오에 명륜당과 전사청과 서재를 중건하였다. 같은 해 12월 초10일 경오에 士民들과 더불어 낙성식을 가졌다. 대개 중건한 공은 모두 사민들의 힘이다.

사민들의 말에, “지지난 임진년(1652년, 효종 3)⁶⁶⁾ 대정현 성안으로부터 聖廟를 이곳으로 옮겨지었는데, 지난 임신년(1752년, 영조 28)⁶⁷⁾大成殿을 重脩할 적에 (이들)세 채의 집을 보수하는 데에는 힘이 채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보수하는 것을 질질 끌며 비 새는 데를 엮는 것이 여러 해가 되었고, 문묘와 담장에 도색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민들이 길게 탄식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어찌나 다행스러운지, 중건하자는 논의가 먼저 儒鄉으로부터 나와 땡땡이 북(鼗鼓) 소리가 軍吏들에게서도 모두 함께 울렸다. 이에 옹기 굽는 데에서 기와를 구워 내고, 굴 숲 사이에서 나무를 얻었다. 쇠붙이(鐵物)인 즉 講經을 면제받은 일꾼 사람들이 준비하였고, 일품에 드는 식량인 즉 모두 三廳에서 급할 때를 위해서 준비된 쌀에 의존하였다.

한달 사이에 세 채의 집이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는 조정의 학문을 일으키고 글을 숭상하는 덕화가 아닐 수 없다. 대저, 옛날 옮겨짓고, 오늘에 중건하는 것이 모두 앞 뒤 임진년이 되고, 성묘를 중창한 해가 이미 임신년인 즉, 이렇게 ‘임’에 인연됨이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니로다.

교의 중건 기록이라고 적은 것은 잘못이다. ‘현성’(縣城)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면 쉽게 제주 향교의 중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영인(1989) 탐라문화총서5. 『탐라지』, 375면 이하에도 이 기록이 ‘대정 현감 이관(李寬) 기록’으로 실려 있다.

66) 뒤에 있는 권순명 大靜 鄉校 重修記에 따르면, 1652년 李京億 御使가 임금께 아뢰고, 1653년 이원진 목사가 옮겨지었다.

67) 윤구연 목사가 大成殿을 새로 지었다.

아, 이 당에 올라와 인륜을 밝히고, 이 청에 들어서서 제사의 품격을 법식대로 하며, 이 재에 살면서 학업을 익힌다면, 아마 증견한 본래의 뜻을 어기지 않게 되리라. 우리 무리의 여러 군자들이여, 어찌 부지런히 하지 않을 것인가?⁶⁸⁾ 또 대성전의 트락에는 국화를 옮겨 심고, 명륜당의 트락에는 버드나무를 심었으니, 또한 죽히 유럽들의 가히 보며 감상할 만하다.

서리를 이겨낸 향기로운 꽃이 향긋한 냄새를 만들어 내고, 골짜기의 난초가 아름답고 단아하게 금빛 실을 땅에 휘 늘어 뜨려 자태를 뽐내듯이, 장차 더해 가는 講經 나무가 무성하게 흐드러지도록 잘 돌우고 부추겨 기루는 공덕은 또한 여러 군자들에게 있도다.

학교가 때로 헐기도 하고 때로 보수하기도 하는 것은 우두머리 관리의 직분이고, 강경을 배우는 유생들이 공부하고 공부하지 않는 것은 훈장의 임무이며, 거점 유생들이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 않음은 接長의 책임이다. 만약 혹 우두머리 관리이면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훈장이면서 임무를 다하지 못하며, 접장이면서 책임지지 않으면, 건물 보수에 소홀하게 되고, 가르쳐 이룩에 나태해지게 되며, 공부를 권하는 데에 게을러지게 되어서, 자포자기하여 마침내 윤리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집을 헹 비워 두고 살지도 않으며, 장학금으로 받는 쌀만을 허비하면서 부끄러움도 없다면, 가히 두렵지 않을 것이며, 가히 개탄스럽지 않겠는가? 아, 우리 여러 군자들이여, 각자 부지런히 직책을 다하여서 이 집이 썩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승정 삼 계사(1773년, 영조 49) 2월 초8일 상정에 평창 후학 이관⁶⁹⁾이 삼가 적는다.

집 짓는 일을 도맡은 감독 이은성, 훈장 강시응, 재임 김정보·문성위, 공사 감독 고봉헌·임해창.⁷⁰⁾

68) 면전(勉旃)은 면지언(勉之焉: 여기에서 이를 부지런히 하다)의 줄임말이다.

69) 實錄에서는 찾을 수 없고, 邑誌에 당시 大靜 縣監이라고 되어 있다.

③ 박장복(朴長復)의 중수 기록

1835년 박장복⁷¹⁾ 목사의 대정현 성묘 중건 기록은 다음과 같다⁷²⁾

대정현 성묘를 중건하는 기록

우리 夫子의 대성전은 천하를 통틀어 나라와 군·현에 이르기까지 다 있다. 전해 오는 말에 “배와 수레가 이르는 곳마다, 사람의 힘으로 통하여 다니는 곳마다, 해와 달이 비추는 곳마다, 서리와 이슬이 떨어지는 곳마다, 아버이를 받들고 임금을 섬기지 아니함이 없다(莫不尊親),”고 하는데⁷³⁾ 아마 이것이 그것을 말함인저!

70) 明倫堂 典祀廳 西齋 重建記

壬辰(1772년, 英祖 48년)冬, 十一月初三日甲午, 重建明倫堂·典祀廳·西齋. 同年(1772년) 臘月初十一日庚午, 與士民落之. 盖重建之功, 皆士民之力也. 士民之言曰, “二去壬辰年(1652년, 孝宗 3년), 自縣城內, 移建聖廟于此, 而去壬申年(1753년, 英祖 28년), 重朔大成殿時, 力未及修三舍, 牽補架漏者, 有年, 宮牆無色, 士民長歎矣.”

何幸 重建之論, 先發於儒鄉, 鼙鼓之聲, 齊動於軍吏. 於是, 燔瓦於甕所, 取材於橘林, 鐵物則準備 於七人之免講, 役糧則藉賴於三廳之周急. 一月之間, 三舍就成, 此莫非朝家興學右文之盛化也. 大抵, 古移建, 今重建, 俱是前后壬辰之歲, 而聖廟重朔之年, 既是壬申, 則此亦不偶然之事也.

噫, 登斯堂, 明人倫, 人斯廳, 典祀品, 居斯齋, 肄學業, 則庶不負重建之本意. 吾黨諸君子, 盍不勉 旃? 且夫殿庭蒔菊, 堂除之種柳, 亦足爲儒林之可觀.

傲霜香葩薰, 谷蘭之嬰娜, 韞地金絲, 將添講樹之婆娑, 培養扶植之功, 亦在於諸君子. 而至於齋舍之隨毀修補, 官長之職也. 講生之學與不學, 訓長之任也. 接生之勤與不勤, 接長之責也. 若域官長焉溺職, 訓長焉不任, 接長焉恬責, 畧於修補, 懶於教導, 怠於勤課, 而自暴自棄, 終至於無倫之境, 曠安宅而不居, 費廩粟而無恥, 可不惧哉, 可不慨然乎? 嗟, 我諸君, 各勉職責, 庶幾 宇之不朽也.

崇禎三癸巳(1773년, 英祖 49년) 二月初八日, 上丁, 平昌 後學 李寬 謹記

成造都監 李殷成, 訓長 姜時鷹, 齋任 金成寶·文聖緯, 董役 高鳳憲·任海昌

71) <사마방목 CD>에 보면 1778년 태어나 1810년 진사에 합격하였다. <조선 왕조 실록 CD>를 찾아보면, 순조 31년에 대사간을 지내었으며, 헌종 9년에는 경주 부윤, 철종 8년에는 공조 판서를 역임하였다.

72) 『제주 유맥 육백년사』 부록 1086면에 탁본 사진 실려 있다 이원조 『신수 탐라지』(탐라문화연구소 영인 278면)에도 이 내용이 실려 있다.

73) 중용 31장에 나오는 말로서, 아버지와 임금을 섬기고 받드는 유교의 윤리가 보편

탐라목의 대정현에서 살펴보면 과연 이를 믿을 수 있도다. 천하의 바다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왼쪽 가장자리에⁷⁴⁾ 있으며, 탐라는 또 바다의 가장 남쪽인데, 대정현은 또 탐라 땅이 이곳에서 끝이 난다. 그러나 오히려 인류 국가가 이(尊親)를 말미암아 성묘를 세우고,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 즐거이 이를 행한다. 儒者의 모자와 옷을 입은 이들이 문묘의 문과 집을 물 뿌리고 청소하며, 濟濟하게⁷⁵⁾ 교궁을 오르고 내린 지 이미 4백년이 더 넘었다. 아아, 이것이 ‘아버이를 받들고 임금을 섬기지 않음이 없다’(莫不尊親)라고 말하는 것이로다. 우리 조정에서 문화를 융성하게 하여 멀리까지 미치게 하는 덕화가 여기에까지 이르니, 진실로 근심이 없도다.

내가 갑오년(1834년, 순조 34) 첫 여름에 탐라에 목사로 왔는데, 가을이 지나 부서들을 순시하면서 대정현에 이르렀다. 대정현의 校宮을 물어 몸소 문묘의 모양새를 살폈다. 물러 나와 명륜당에 앉자, 유생들이 앞으로 나와 다음처럼 말하였다.

“성인을 모신 문묘는 옛날 대정현 현성 안에 있었는데, 땅이 낮고⁷⁶⁾ 다급하게 막히어 있었습니다. 3번 건넌 계사년(1653년, 효종 4)에 이경억 어사가 옮겨짓는 것을 임금께 아뢰니, 이원진 목사가 고쳐짓기 위해 대정현 현성 남쪽 簞山⁷⁷⁾ 아래에 있는 땅을 정하였습니다. 샘은 맑

적임을 가리키는 말이다.

- 74) 중국의 황제가 남쪽을 앉아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땅이 바다 왼쪽 가장자리에 처해 있는 셈이다.
- 75)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여러 사람들이) ‘많고 많이’라는 뜻이고(衆貌), 다른 하나는 위엄 있게 엄숙하고 아름다운 모양(肅肅)이다. 어떤 뜻으로 해석해도 문맥이 통한다.
- 76) 비(廡)는 원래 집(집의 용마루)이 낮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주어가 땅이 된다. 따라서 저지대의 땅에다 집을 지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 때문에 앞이 막힌 느낌을 주었던 듯하다.
- 77) 오창명(1998: 200 이하)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 출판부)에는 ‘바굼지 오름’ ‘바구미 오름’ 등으로 민간 이름이 올라 있다.

고 봉우리는 빼어나며, 양지 녘을 바라보고 음지를 뒤로하여, 드디어 영원히 성인의 위패를 편안히 모시는 곳이 되었는데, 지금 이 곳이 그 땅입니다. 옮겨 세운 때가 지금부터 거의 2백년이나 되어서 비록 간간이 보수하였었지만 棟樑이 이미 낡았고, 발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중건하기를 청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유생들의 이런 말은 현감이 이미 장계로 알린 바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몸소 살펴본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 말미암습니다. 삼가 응락 합니다.”하고, 드디어 급히 임금께 아뢰었다.

올해(1835년, 현종 1) 1월 향과 축이 서울에서부터 내려왔다. 이에 날을 점쳐서 위패들을 옮겨 모시고, 기와를 헐고 나무들을 모았다. 무릇 4개월만에 일이 끝나게 되었다. 5월 첫 길일에 삼가 위패들을 받들어 되돌려 모셨다. 이에 돌아보면서 위를 쳐다보기도 하고 지계문을 의지하여 창문(바라지)을 살피기도 하였는데, 새가 날개를 펼친 듯이 완전히 새로워졌으니, 걱정을 떨쳐 버리고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듯하다.

사람에서 드디어 나에게 이 일을 적어 주도록 하였고, 나는 사양하지 못하고 이어 다음처럼 짓는다.

“백년 동안 아직 서두르지 못한 것을 하루아침에 다행스럽게 완성하였다. 이일을 여러 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생각해 보니, 올해(1835년, 현종 1)가 우리임금님이 즉위한 첫 해이므로, 온갖 만물이 다시 새로워진다. 이 공사가 완성된 것이 마침 오늘에 있으니, 뜻하기로는 바다 구비에 있는 작은 고을에서라도 유교의 풍속과 문채로운 가르침이 또한 이를 따라 크게 새로워질진저! 일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로다.

원하건대, 여러 유생들이 다만 문묘와 담장의 아름다움만을 사사롭게 다행으로 여기지 말고, 묵은 때를 씻고⁷⁸⁾ 갈마들며 쇠 담금질을 하

듯이 더욱 열심히 배움을 일삼음으로써, 문채롭게 고쳐져서 불 만한 업적이 있게 된다면, 아마 성인의 문묘에 빛이 나게 될 것이며, 새로운 교화를 마주 날리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됨이 어떠하랴! 작디작은 承流의⁷⁹⁾ 희망을 감히 숨길 수 없어, 드디어 견주어 써서 함께 이룩적음은, 문채로써 욕심을 삼음이 아니고, 서로 규율하게 되었으면 할 따름인저.』 임금님 즉위하신 첫해 을미(1835년, 헌종1) 5월 일, 목사 박장복이 적다.⁸⁰⁾

78) 원문에 있는 ‘씻을 탁(濯)을 그대로 새겨 둔다.

79) 『중문 대사전』에 승류는 승수풍교(承受風教: 풍속과 교화를 받들다)로 풀이하였다. 더 쉽게 풀이하면, 박장복 목사의 작디작은 희망은 풍속이 교화되어 백성들이 그 풍속을 잘 받든다는 뜻이다.

80) 大靜縣 聖廟 重建記

吾夫子 大成殿宇, 通天下邦國郡縣, 有之, 傳曰 “舟車所至, 人力所通, 日月所照, 霜露所墜, 莫不尊親.” 其此之謂歟!

觀於耽羅牧大靜縣, 果信然矣. 天下之海, 莫左海遼, 而耽羅又海之絕南, 靜又耽之地盡於此, 而尙有人類國家因之, 而建立聖廟, 則尊慕興起, 樂爲之, 儒冠儒衣, 以灑掃, 殿門堂宇, 濟濟升降, 已四百有餘年. 嗚乎, 此之謂 ‘莫不尊親,’ 而我聖朝, 隆文覃遐之化, 至此, 誠無憾矣.

余以甲午(1834년, 순조 34년)之孟夏, 按鉞于耽. 抄秋巡部. 至縣, 問縣之校宮, 躬審廟貌. 退坐明倫堂, 章甫前進曰, 『聖廟, 古在縣內, 地庫迫隘, 粵三去癸巳(1653년, 효종4년), 繡衣李公慶億, 啓請移建, 則牧使李公元鎮, 爲改, 卜於縣之城南, 簞山下. 泉清峯秀, 面陽背陰, 遂永爲妥安之所, 今此其地也. 距今幾二百年, 雖間有修補, 而棟樑已朽, 岌業在卽, 請重建焉.』

余曰, 『生之此言, 縣監曾有狀, 余今日之親審, 正由此之故, 謹諾.』 遂馳啓以聞.

今年(1835년, 헌종 1년)正月, 香祝自京師下來, 迺卜日移安. 撤瓦鳩材, 凡四箇月, 功告訖, 以五月初吉, 祇奉還安, 於是乎, 周旋瞻仰, 攀戶奉牖, 翼然一新, 震惕其少紓矣.

士林遂徵記於余, 余不獲辭, 乃作而曰, 『百年未遑, 一朝幸完, 此事, 諸君以爲何如也耶?』 余惟今年(1835년, 헌종 1년), 是我聖上初元也. 萬化維新, 是役之成, 適在於今日, 意子海曲十室, 儒風文教, 亦從此而丕新歟, 事有不偶矣. 願諸生 無徒以宮牆之美 爲私幸, 益從事於濯磨淬礪之學, 斐然有改觀, 則其爲有光聖廟, 對揚新化, 爲如何乎也? 區區承流之望, 有不敬隱, 遂書比, 並爲之記, 非以文爲欲以相規云爾.』

上之元年 乙未(1835년, 헌종 1년) 五월 日 牧使 朴長復 記.

④ 권순명(權純命)의 중수 기록

1936년 권순명 대정향교 중수기는 다음과 같다⁸¹⁾

대정향교는 옛날 대정현 현성 안에 있었다. 효종 임진년(1652년, 효종 3)에 이경억 어사가 땅이 낮고 좁다고 하여, 옮겨 짓도록 임금께 아뢰어 청하였다. 다음해(1653년) 이원진 목사가 이를 현성의 동남쪽 1리에 있는 단산 아래로 옮겨 고쳐지었다. 그러나 바닷가 옆이므로 바람을 받게 되 고쳐 지은 것이 여러 번 이었다.

계유년(1933년)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하게 허물어졌다. 향교 直員 강철호가 유희춘·문봉기와 더불어 여러 사람과 도모하여 재목을 모으고, 대성전·명륜당·의문실·전사청들을 차례로 고쳐 완성하였고, 담장으로 이를 두르고 벽을 칠하여 이를 빛나게 하였다. 대정 선비 고병오에게 급히 서신을 갖고 천리를 가서, 권순명을 뵈고 이를 기록하여 주도록 청하였다.

권순명이 그윽히 생각해 보니, 향교는 인륜을 밝히는 곳인데, 인륜은 道로서, 하늘로부터 나와 성인의 가르침에서 세워지며, 집안과 나라의 元氣이고, 백성들의 命脈이다. 윤리가 밝아지면 집안과 나라가 세워지는 바이고, 백성들이 소생하는 바이다. 순임금·우임금·문왕·무왕은 이것으로써 다스려 교화가 융성해졌다. 주공·공자·정자·주자·이율곡·송우암은 이것으로써 가르쳐 배움이 일어났다.

나라의 조정이 정치를 세우면 이것(明倫)으로써 제일 먼저 힘쓸 바로 삼고, 지방에서 모름지기 학교를 세우면 반드시 가르침을 세운다. 이는 학술이 한결같이 바른 데에서 나오는 것이다. 조정에서는 순임금·우임금·문왕·무왕을 강독하였고, 시골에서는 주공·공자·정자·주자를 배운다. 쇠잔한 말세(叔季) 때부터 도가 덜어졌는데, 정치

81) 『제주 유맥 육백년사』, 부록 1087면에 탁본 사진이 실려 있다.

를 하면 난잡스럽게 패도로써 하였고, 배운다면 어지럽게 邪道로써 하
었던 것이다. 九廟가⁸²⁾ 폐허가 되고, 聖宮이 풀만 우거지고 폐지되었
다. 여기서부터 윤리와 도덕이 모독되어 쓰레기가 되고, 성현들 보기
를 사람 죽이는 독약처럼 여겼다.

대저 대정은 바다에 있는 하나의 작은 고을이고, 강철호는 갈옷·배
옷 입는 한 사람의 선비이지만, 이를 개탄 스럽게 여기고 바꾸고자 하
였다. 그리하여 향교를 고쳐 옛날처럼 되살리고 경전들을 높이며 성현
들을 배우는 것을 싹틔우고자 한다. 아직 그 뜻이 왜구가 짓밟는 이런
세상 아래에서 능히 잘 행해질 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 그렇지
만, 일인 즉 바른 일이고, 뜻인 즉 높은 뜻이므로, 그 가히 드러내어
이를 게시하고 風聲을⁸³⁾ 심는 터전으로 삼지 않으랴?

비록 그렇더라도 경전에 이르지 않았는가? 몸소 실천하여 가르치면
따르고, 말로써 가르치면 소송하는 법이다. 지금 여러 선생들로 하여
금, 폐지하여 둔 것을 고쳐 짓는 것만으로 능사를 삼지 말고, 더욱 이
학문을 거느리고 이끌려면, 경전들을 읽지 않으면 안 되고, 성현을 높
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온 고을의 자제들이 이를 따르게 한다면, 무리
들이 어찌 이 향교가 온 나라를 창도하게 됨을 알게 되지 않으랴? 이
때문에 적는다.

때가 병자년(1936년) 늑월⁸⁴⁾ 상한, 안동 권순명 삼가 적음.

공자 나신 지 2485년 갑술(1934년) 2월 일

직원 강철호

재장 임기평

82) 『중문 대사전』에 보면, 구묘는 주나라 때에 9사람의 조상신을 제사 지내던 묘당
이다.

83) 사람의 인격이 갖추어 짐이 바람처럼 절로절로 소문으로 번짐.

84) 짐을 칠 적에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 짐대를 끼는 것을 ‘손가락사이
록’(扞)이라고 한다. 『중문 대사전』에는 수의 나머지(數之餘也)라고 나와 있다. 이
를 따르면, 늑월이 혹시 이 해의 윤달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자의 유희춘·문봉기

의로운 뜻을 내놓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름에 대한 기록

일금 십원 송신용, 일금 십원 조항주, 일금 십원 김문방, 일금 십원
송기원, 일금 십원 허치인, 일금 십원 김진석, 일금 십원 진귀권

특별히 적음

희생에 쓰일 소 한 마리 임성숙, 희생에 쓰일 소 한 마리 이시번⁸⁵⁾

85) 大靜鄉校, 舊在縣城之內, 孝宗壬辰(1652년, 효종 3년), 御史 李公慶億, 以地湫隘, 啓請移建, 明年(1653년, 효종 4년), 知郡李侯元鎮繼之, 就城東南一里, 篳山下, 改築. 然濱海喜風, 累經沿革, 至癸酉(1933년)年間, 頽圯又甚, 校任姜哲鎬, 與柳希春·文鳳岐, 謀衆鳩財, 大成殿·明倫堂·疑問室·典祀廳, 次第修完, 墻垣以圍之, 丹雘以奐之, 命鄉章甫, 高炳五, 馳書千里, 謁純命記之.

純命竊惟, 校所以明倫, 而倫者道也, 出於天, 而立乎聖人之教, 爲家國之元氣, 人民之命脉, 倫之明, 家國之所以立, 人民之所以生, 舜禹文武, 以是治而化隆, 周孔程朱栗尤, 以是教而學興者也.

國朝立政, 以是爲先務, 郡必立校, 校必設教, 此學術所以一出乎正, 而朝講舜禹文武, 野學 周孔程朱, 降自叔季, 政焉而雜以霸, 學焉而亂以邪, 九廟墟矣. 聖宮蕪廢. 於是乎, 倫道蟻爲土苴, 聖賢視若鳩毒.

夫大靜一海邑也, 姜公一韋布也. 慨乎斯 而思所以易之, 以修復校宮, 爲尊經籍·學聖賢之權輿, 未論其志之能行, 於此天之下, 而事則正矣, 義亦高矣, 其可不表揭之, 以爲樹風聲之地? 雖然, 傳不云乎? 以身教者從, 以言教者訟. 今使諸公, 不但以修學廢[置], 爲能事, 益導率斯學, 非經籍不讀, 非聖賢不尊, 使全郡子弟從之者, 衆安知是校不爲一國之倡乎, 是爲記.

岾 柔兆困敦(丙子, 1936년) 朞月 上澣 安東 權純命 謹記.

孔聖二千四百八十五年 甲戌(1934년) 二月 日

直員 姜哲鎬

齋長 林基平

掌議 柳希春·文鳳岐

義捐 芳名錄

一金十圓 宋信用, 一金十圓 趙恒周, 一金十圓 金文昉, 一金十圓 宋基元, 一金十圓 許致仁, 一金十圓 金辰錫, 一金十圓 秦貴權

特別錄

牲牛一頭 林成淑, 牲牛一頭 李時蕃

⑤ 전기진(田璣鎭)의 중수 기록

1937년 전기진의 대정향교 중수기록은 다음과 같다⁸⁶⁾

대정향교를 중수한 기록

조선이 예부터 문명국이라고 불리웠음은 서울·牧·附·郡·縣에 모두 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배웠는가? 떳떳한 윤리일 따름이다. 떳떳한 윤리가 밝아짐은 능히 스스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윗사람에게 의뢰하여 이를 밝히는 것이다. 이리므로 나라에는 태학과 四學이 있었고, 시골에도 교수와 훈도의 관직을 두어 뛰어난 후학들을 나누어 가르쳤으니, 뛰어난 후학들은 장차 서울 안에서는 公卿과 學士가 되고, 서울 밖에서는 監留와 수령이 되었다. 모두 이 길로써 온 세상의 인재들을 길러 내었다.

한 세상의 문명이 동쪽 한국의 땅에 나라가 선 뒤 가장 우선하여 중국 땅을 따라하였으니, 혹 크게 떨어짐은 아직 없었다. 작은 중국이라고 일컬은 것도 또한 마땅하지 않으랴?

나라에 내란이나 외적의 도적질이 있다고 하여도, 임금에게 충성하고 윗사람을 위해 죽음을 아끼지 않는 절개를 아래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여, 보록(寶錄)⁸⁷⁾을 오백 년 넘게 이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법규와 가르쳐 이끄는 직책이 폐지됨 또한 오래되었다. 인재들은 예전의 전성기에 미치지 못하고, 나라의 태학이나 시골의 향교들이 이미 텅빈 이름의 도구가 되어 버렸지만, 오히려 다행스럽게 앞선 성인들을 사당에 모시어, 風紀가 이로 말미암아 나왔다.

호남의 제주는 서울로부터 이천 리나 떨어져 있다. 육지를 지나 바다를 건너면 우뚝이 외로운 섬이 있는데, 사면이 망망한 바다로 둘러

86) 『제주 유맥 육백년사』 부록 1082면에 사진 탁본이 실려 있음.

87) 도가에서 보물스런 미래의 예언서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나라의 운명을 뜻한다.

있어, 대륙과는 서로 관련이 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임금님 덕화(聲敎)가 두루 미치고 임금님의 교화에 목욕하며, 거문고 타며 글을 읽이 끊이지 않았었다. 조선이 망하여 나라 노릇을 하지 못한 이후에, 떳떳한 윤리가 크게 무너지고, 사람들이 모두 배회하며 이리저리 쏘다녔다. 섬의 선비들은 왕왕 나라의 선생과 어른을 따르며, 여느 마을과 향구와 골짜기를 노닐더라도, 오히려 책을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 또한 대륙에서는 드문 일이었다.

제주의 옆 고을로서 대정과 정의가 있는데, 지금은 모두 제주에 합쳐졌다. 그러나 대정 사람들은 또한 능히 향교를 보호하고, 봄가을로孔子님께 예로써 제사를 지냄을 없애지 아니하였다. 바다 섬에 해마다 바람과 비가 불어닥쳐 향교가 거의 지탱할 수 없었는데, 대정 사람들이 놓은 강철호를 有司로 삼았다.

강철호는 드디어 강왈심과 강희진, 그리고 여러 선비들과 의논하여, 고을의 힘을 모으고, 장인들에게 명하여 흰 흙과 기와와 재목으로써 향교의벽을 바르고 색칠하여 한꺼번에 모두 새롭게 되었다. 또 이미 제사 지내는 비용을 댈 토지를 덧붙여 두어,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진실로 향교를 중수한다는 큰 일을 조처해 념에 마땅함을 얻었다.

그러나 윤리를 밝힘을 강론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돌아보면 위로 의지할 바 없으니(나라가 패망하였으니), 옛날 전성기 때처럼 되돌릴 희망이 없어 또한 애통하지 않으랴? 자공이 告朔의 제사에서 희생으로 쓰는 양을 없애려고 하였다는데, 공자가 “사야, 너는(물질적인 것만 보고) 그 양만을 아끼려고 하지만, 나는 그 예를 아낀다.”라고 말하였다⁸⁸⁾ 지금 그대들의 문묘가 오히려 폐지되지 아니하고, 초하루와 보

88) 논어 팔일 편에 나온다. 옛날 천자는 한 겨울의 막바지에 들면 제후들에게 이듬해 12개월의 삭(朔)을 내려 준다. 제후들은 조상의 사당에 이를 모셔두었다가, 매월 초하루가 되면 특별히 양(羊)을 희생으로 써서 사당에 제사 지내면서 알린 뒤에 한 달의 일들을 시행하게 된다. 이런 제사를 ‘곡삭’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쓰는

름, 봄과 가을의 예를 지냄이 한나라 임금(漢朝)의 흥성함과 같도다. 대뢰(大牢)를⁸⁹⁾ 기다리지 않고 공자에게 제사지내고, 스스로 옛 예절을 따라 빠져버린 법식을 닦아 일으켰으니, 왜 꼭 문명스러움을 유독 오백년 지난 일에만 국한하여 거론하겠는가? (지금도 문명이다.)

그런 즉 온 섬이 重修함을 배울 것이니, 가히 주역의 박(剝) 복(復)괘사에 있는 바 「큰 과일을 다 먹지 아니하고 남겨 두어 자손에게 복을 끼쳐 준다는 것과, 땅 속에 이렛날만에 우리가 올림은 하늘의 기운이 운행하여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므로 준비하여 몸을 닦는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도다. 그 조짐이 반드시 이 일에 있지 않겠는가? 윤리가 장차 다시 윤리로 회복될 것이고, 만발하게 피어남이 장차 다시 만발해질 것이다. 오호라, 또한 다행스럽지 아니하라? 강철호가 이일을 시작하여 다음해에 마쳤다. 강철호는 나와 동문 수학한 벗으로서, 우정이 높고 늘 한결 같으며 五屬을⁹⁰⁾ 빛낸다.

담양 전기진이 대정현 현학(鄕校)을 중수한 것을 위해 기록한다.

때는 융희 기원 뒤 정축년(1837년) 월 일이다.

직원 강철호

재장 이두정

청금 유사 김형진

장의 강희진 · 강활심 · 문달인 · 진명인

다사 이도윤

의연금을 낸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름에 대한 기록

일금 십원 지치하, 일금 십원 송시군, 희생에 쓰인 소 한 마리 박창

희생을 ‘희양’이라고 불렀다.

89) 임금이 社稷에 祭祀를 지낼 적에 犧牲으로 소와 양과 돼지를 갖추어 쓰는데, 이 제수를 大牢라고 부른다.

90) 『중문대사전』에 보면 네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 두 번째 뜻으로 관중이 제정한 4만 5천 가호(家戶)가 이 문맥에서 제일 어울리는데, 대정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말을 쓴 듯하다.

진, 일금 십원 정태화, 일금 십원 강태근, 일금 십원 황석만, 일금 십원 김형진, 일금 십원 양영하, 일금 십원 양정화, 일금 십원 송봉심, 일금 십원 강태신, 일금 십원 문달인.⁹¹⁾

91) 大靜縣學 重修記

朝鮮古稱文明，以國都·牧府·郡縣，皆有學也。學之如何？倫商而已。倫常之明，不能自明，必賴上之人明之。是以國有太學·四學，鄉亦置教授·訓導之官，分教後秀，後秀將入爲公卿·學士，出爲監留·守令，皆以是道，陶鑄一世，一世文明，爲東韓有國後，最而埒之中州，未或多遜也。小華之稱，不亦宜哉？

所以國有內亂外寇，而下不失忠君·死上之節，延長寶籙，於五百餘年也。然學校之規·教導之職，廢亦久矣。人材不及前盛，國學鄉黷，已爲虛名之具，而猶幸先聖廟食，風紀由出也。

湖南之濟州，在韓師二千里，過陸普海，兀然孤島，四面瀕瀆，與大陸若不相關，而聲教普及，沐浴王化，絃誦不絕，及鮮韓不國以後，倫常大頹，人皆翔走趨。而島之人士，往往從國中先生·長者遊閩里港谷，尙聞讀書之聲，亦大陸所罕有也。

濟之傍邑，有大靜，旌義。今合於濟，而靜人又能護覺，不毀春秋祀夫子如禮。海上連年，多風雨，覺幾不支，靜人推農隱姜公哲鎬，爲司，姜公遂與姜曰沈·姜憲震，及僉章甫協議，集鄉力，命匠堊瓦木，塗墍丹牖，一時俱信，既又添置祭土，以補不足，誠重修鉅役，而措畫得當也。

然講學明倫，最其大者，而顧無賴上，復舊之望，不亦痛哉？子貢欲去告朔之餼羊，子曰“賜也，爾愛其羊，我愛其禮。”今子之廟，猶不廢，朔望春秋之禮，如漢祖興者，不待大牢祀魯，而率由舊章，修學闕典，則何必文明，獨稱五百年過者？然則，一島學重修，可爲『剝上碩果，而地低之七日雷，復』，未必不在是也？倫將復倫，華將復華，嗚呼，不亦幸哉？姜公之爲是役也，役已之明年，姜公介吾同門，友高有常，炳五屬。

潭陽 田璣鎮，爲大靜縣學重修記，時隆熙紀元後 丁丑(1837年) 月 日也。

直員 姜哲鎬

齋長 李斗正

青衿 有司 金亨珍

掌議 姜熙震·姜曰沈·文達仁·秦明鞠

多士 李道潤

義捐 芳名錄

一金十圓 池致河，一金十圓 宋時郡，牲牛一首 朴彰振，一金十圓 鄭泰和，一金十圓 江泰根， 一金十圓 黃錫萬， 一金十圓 金亨珍， 一金十圓 梁永河， 一金十圓 梁丁和， 一金十圓 宋奉心， 一金十圓 姜太辛， 一金十圓 文達仁

(3) 대정향교의 규모 및 내용

① 학전(學田)

향교는 관학이었기 때문에 학전이 지급되고 있었다. 제주도의 경우도 선초부터 향교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학전이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데 정조 2년(1778) 목사 黃最彦에 의해 설정되었다는 기록⁹²⁾이 보인다. 그런데 나라에서 지급한 학전은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만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규모는 성균관 400結, 주·부 향교 7결, 군·현향교 5결이었다⁹³⁾ 학전 외에 향교의 중요한 경제기반 가운데 하나가 향교노비였는데 부의 향교는 30명, 대도호부, 목의 향교는 25명, 도호부의 향교는 20명 그리고 군·현의 향교는 각 10명이었다⁹⁴⁾

제주삼읍의 향교 역시 학전과 노비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제주향교의 학전은 7결로 노비가 18명이었으며 대정향교는 학전이 5결, 노비가 4명 그리고 정의향교는 대정향교와 마찬가지로 학전이 5결이고 노비가 4명이었다. 이로 보건대 노비 수는 모자란 형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비가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⁹⁵⁾ 제주삼읍의 경우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향교에서는 학전 이외에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사유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정향교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② 직제 및 구성

92) 金錫翼, 『耽羅紀年』, 『(正朝二年)牧使黃最彦…設三邑學田教士』.

93) 『續大典』 卷2, 戶典 諸田條.

94) 『經國大典』 卷5, 刑典 外奴婢條.

95) 『學校謄錄』 3, 甲辰(顯宗 5年) 閏 6, 10. 『學校謄錄』 6, 戊辰(肅宗 14年) 6,1.

직제를 보면 대정향교에는 訓導(중 9품)가 각 1명, 掌議 2명, 有司는 2명에서 4명이 있어서 교육을 담당하였다⁹⁶⁾ 세종 초 대정향교의 생도수는 50여 명에 이르렀고 제주인 가운데서 학행이 뛰어난 자를 골라 교도를 삼아 가르치게 하였다. 향교 교생의 정원은 『經國大典』에 의하면 대정현이 30명이라고 하나⁹⁷⁾ 수의 제한이 엄격하지 않아 때에 따라 정액보다 적을 수도 있었으나 대체로 초과하는 예가 많았다. 경국대전 이전이지만 세종 2년(1420)에는 대정향교의 생도수가 50여 명이나 되었으며⁹⁸⁾ 효종시의 생도수로 대정현은 15人으로 반밖에 안되었다⁹⁹⁾

숙종 30년(1704) 대정향교는 北城中에 있다가 城南篔山下에 이진, 60여 명의 교생이 있었다. 이때 李衡祥 목사는 향교의 건물, 위판, 시설 등이 낙후되었음을 상계하여 윤희를 얻고 殿宇, 明倫堂, 東·西齋, 祭器, 祭服, 床卓을 포진하고 모든 위판의 파손은 개수하기도 하고 개조 및 개편하였다. 이때 제주도의 유생수는 제주가 277명, 정의가 161명 그리고 대정이 42명이었다.¹⁰⁰⁾ 또한 정조 때(1793) 읍지¹⁰¹⁾에 의하면 대정향교는 액내교생이 30명, 액외교생이 70명, 별치거점생이 5명 그리고 청금유생이 110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③ 교생(校生)

원래 액내교생이란 정액내의 교생으로서 교생의 정액은 『경국대전』에

96) 『經國大典』, 吏典, 外官職條.

97) 『經國大典』 禮典, 生徒條.

98) 『世宗實錄』 卷10, 2年11月, 己卯, 『濟州京在所上言 大靜旌義二縣 始置鄉校 兩縣生徒 各五十余人 請選州人 經明行修者爲教導』

99) 上揭書, 大靜縣 學校條, 『鄉校 舊在北城內 中移東門外 環移西城內 今移城南篔山下 校生時數 十五人』.

100) 李衡祥, 『南宦博物誌』, 誌文條.

101) 『濟州·大靜·旌義邑誌』.

부·대도호부·목은 각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¹⁰²⁾ 이를 토대로 보면 제주향교의 액내교생은 정액을 넘어선 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액규정은 양반에게만 적용될 뿐 비양반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액내교생은 양반이며 액외교생은 서얼 또는 평민이라는 구별은 서원의 등장과 발달이 양반들의 향교천시를 가중시키게 되면서 허물어지게 되는데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점차 비양반이 액내 및 액외교생을 차지하였다. 특히 인조조에 들어 새로 바뀐 군역제도를 통해 良役人의 확보를 위해 校生考講에 대한 원칙이 새롭게 마련되어 낙강한 교생을 신분제 구애없이 군역에 충당하려고 하자 신분특혜를 고수하려는 양반들이 고강을 모면하기 위하여 청금록을 별도로 작성하고 유생이라 호칭하였는데 이것이 곧 청금유생이다.

영조 14년(1738) 洪重徵 목사가 선비를 대접하고 지위와 문벌이 있는 10여 가문을 선택하여 청금안을 세워 토목 역사를 면해 주었듯이¹⁰³⁾ 제주도에서도 군역을 모면할 대책을 모색하여 양반임을 입증해 주는 향안에 입학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청금록의 입안에 신경을 썼던 것 같으며 결국 정조조 읍지에 기록된 교생들 가운데 액내·외교생과 별칭 거점생의 구별은 명확한 것이 아니며 많은 수의 청금유생은 兩班士族의 신분유지 노력과 관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대정향교의 상당수에 달하는 청금유생들은 당대 청금록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시사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 청금안이 설치된 것은 그 유래가 오래지만 중간에 폐지되었다가 洪重徵 목사에 의해 다시

102) 『經國大典』, 卷3, 禮典 生徒條.

103) 金錫翼, 前揭書, 『(英祖)十四年…洪重徵 特士以禮學 青衿生立案 勿責土木之役』.

설치되었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숙종조와 정조조의 제주삼읍 교생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청금안 설치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석익은 청금안이 설치되면서부터 매일 학문을 강독하는 풍습이 폐지되었고 사람을 논하여 추천하지 아니하고 문벌을 숭상하는 습속이 나왔으며 선왕의 학문을 일으키고 선비를 기르는 본뜻을 구원하지 못했다¹⁰⁴⁾고 통박하였다.

결국 校生考講을 강행함으로써 향교의 청금록 작성을 부추킨 것은 인조 때부터였는데 그러나 교생고강은 비록 의례적이긴 하지만 선초부터 행해졌었다. 선조 33년(1600) 12월 제주목사 성윤문은 전염병과 흉년으로 제주 민호가 3분의 2 줄어 군정이 부족하므로 고강에 불통한 교생을 군역에 충당할 것을 주청하면서 고강에 불통한 교생수를 제주 106명과 정의 2명이라고 지적하였다.¹⁰⁵⁾

이러한 지적에서 보듯 勸學과 勸課에 목적을 두어 조선 초부터 교생고강이 행하여 오기는 했으나¹⁰⁶⁾ 향교교육의 쇠퇴와 교관의 무능 그리고 양반들의 향교교육 외면으로 의례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교생고강에 불통한 수가 많았던 것은 군역을 모면해 보기 위해 향교를 이용했었던 당대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예이다.

특히 선조 년 간에는 방어상 수령이 무관으로 임명되고 있었기 때문에 향교 교생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아 교생들을 군역에 종사시키는 외에도 때로 천역에도 충당시켰는데 훈도 결원시 향교교생들이 훈도가 빨리 부임

104) 金錫翼, 『破聞錄』, 『以後課目講學之風遂廢不舉論人尙闕之習出而莫救卒使先生建學造士之本意至旅一敗塗地可謂得失不掩矣』

105) 『宣祖實錄』, 卷132, 33年 12月, 壬申, 『濟州牧使成允文馳啓曰…本州校生 額數過多 托名校籍 偃然閑遊 極爲無理 曾時讀考 講純粗以上 元額充數 其餘不痛者 州一百六名 旌義縣二名 依法隆定軍役事 啓下兵曹』.

106) 『經國大典』, 卷3, 禮典 勸獎條.

해주기를 바랐던 것은 단적으로 말해 이런 천역을 면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조는 조종조의 법례라는 명분으로 校生考講充軍法은 강력하게 고집하였지만 신분의 특혜를 고수하려는 양반들은 청금록 설치 등을 통해 이에 반발함으로써 실제 고강실적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고강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강을 회피하거나 고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자주 중단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落講者의 소요도 고강을 형식적으로 그치게 하는데 큰 이유가 되었다.

영조 21년(1745) 제주목사 尹植이 유품과 가솔들을 고강과 試射에서 떨어뜨려 騎兵과 步兵에 충당하자 이들 낙강자들이 성이 나서 심야에 객사의 殿牌를 봉안한 곳에 모여 곡을 하였던 사건¹⁰⁷⁾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생고강을 논의하면서 낙강자의 원망이 일어난다면 이는 군역의 폐단보다 더 처리하기 힘든 것이니 낙강자들의 불만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군역 회피와 관련한 청금유생의 등장은 다른 한편으로 관료의 보수화 경향과도 관계되어 있다. 홍학이 제왕지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져 선조 역대 왕들에 의해 홍학이 자주 강조되어 인재양성을 위한 향교 교육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교육적 효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중앙관료들에게 홍학절목, 홍학조건, 홍학지방에 대한 의견을 자주 개진하도록 요구되었던 것은 홍학운동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큼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107) 『英祖實錄』卷413, 21年 5月 癸未, 『領議政金在魯曰 濟州牧使尹植狀論 本島有品假率名色見落於考講試射降充麒步則此輩發怒 深夜會哭於客舍 殿牌奉安之可云』.

러한 현상은 체제 정비를 통하여 집권세력이 보수화되면서 그 운영체제도 그런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말해서 관료조직의 보수화 경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흥학정책의 실시를 위한 관료들의 의견 개진이 자주 행해졌을 지라도 근본적 개혁보다는 비본질적 외형상의 변화를 강조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향교는 인재양성을 위한 흥학 기구로서보다는 특권 양반층의 피역장소로 그 성격이 점차 변질되었던 것이며 청금유생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1839년 구재룡(具載龍)¹⁰⁸⁾ 목사의 대정향교 절목¹⁰⁹⁾을 보면 그 윤곽을 짐작할 수 있다.

주나라에서 ‘향사’라고¹¹⁰⁾ 하고, 한나라에서 ‘공조’라¹¹¹⁾ 불렀던 것이 지금이 鄉所이다. 하물며 이곳 탐라는 삼성의 옛 나라로서, 성주와 왕자의 끝에 처음 鎮撫라¹¹²⁾ 작위로 바뀌었고, 두 번째는 (都智管으

108) <조선조 실록 CD>를 찾아보면, 헌종 4년(1838년) 전라 우도 수군절도사를 지내었고, 제주 목사를 지낼 적에 가파도에 영국 군함이 들어 와서 소들을 훔쳐간 일 때문에 파직되었지만, 헌종 9년(1843년)에 경상 좌도병마절도사, 12년(1846년) 함경북도 수군절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109) 『제주 유맥 육백년사』, 1085면에 부록으로 탁본 사진이 실려 있다.

110) 주례(周禮) 추관(秋官)에 보면, “鄉土掌國中, 各掌其鄉之民數, 而糾戒之”(향사는 나라 안을 관장하는데, 각각 그 고을의 백성숫자를 맡아서 이들을 규찰하고 타이른다)라고 되어 있다.

111) 공조(功曹)는 사공(司功)이라고도 하였는데, 『중문대사전』에 보면, 진나라와 한나라 때에 서사(書史)를 담당하는 지방 구실아치나 군(郡)의 속리(屬吏)를 공조라고 불렀다.

112) 김봉옥 편역 1944 『속 탐라록』 66면과 326면에 보면, 1284년(충렬왕 10년) 원나라에서 탐라에 총관부를 혁파하고 대신 安撫使를 세웠다고 되어 있다. 鎮撫라는 말은 ‘누르고, 보듬어 준다’는 뜻으로, 적들의 침입을 막고 백성들을 아껴 주는 임무의 직책이다(지금의 제주 방위 사령관 겸 제주도 도지사에 해당함). 安撫는 잘 살피서 보살핀다는 뜻이다. 아마도 이 절목에서는 안무사를 진무사로 간주하여 쓴

로¹¹³⁾ 이름이 바뀌었으며, 세 번째는 유향소로¹¹⁴⁾ 바뀌었지만, 자손들이 이으니 조상의 일이 계속되었다. 지금 저 좌수와 별감이란 직책은 모두 다 성주의 뿌리와 가지의 자손들이고, 왕자의 안팎의 먼 손자들이다. 비록 바다 속 섬의 궁벽진 곳에 살고 있지만 그 대대로 문벌을 이어받음은, 실로 우리나라(三韓)를 통틀어 일컬을 만하니, 또한 작게 동쪽을 편안케 했다고 말하지 않으랴!

靑衿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나라의 元氣이므로, 우리 동쪽 나라에서 높이어 다르게 대우하는 정책이 지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섬의 유(儒)와 향(鄕)은¹¹⁵⁾ 이미 다른 두 길이 아니다. 청금을 유생들로부터 뽑고, 청금으로부터 유향소의 품관들을 뽑는다. 청금의 아버지는 유향소 품관이고, 유향소 품관의 자식은 청금이다. 그런 즉 청금은 유생 무리들 위의 담비 꼬리와¹¹⁶⁾ 같이 높은 지위이고, 유향 품관은 청금 가운데 닭부리와 같이 작은 단체의 우두머리이다.

듯하다.

- 113) 金奉玉 編譯 1986 『조선왕조실록』 중 『탐라록』 28편에 보면, 1404년(태조 4년) 성주와 왕자를 각각 도주관(都州官:우두머리 제주 관리) 都知管과 右都知管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다. 知管은 백성을 관장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의 뜻이고, 都는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 114)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한국 한자어 사전』에 보면, 고려 말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지방 품관(品官)들이 조직한 수령 보좌 기관이지만, 수령을 능멸하는 사례가 있어 태종 때에 혁파되었다가 세종 때에 다시 부활되었으며, 세조 때에 이시애의 사주를 받아 품관들이 수령을 죽였으므로 다시 폐지되었다가 성종 때에 다시 부활되었다. 유향소에는 좌수와 별감이란 직책이 있었다. 향소(鄕所), 향청(鄕廳), 향당(鄕堂), 풍헌당(風憲堂) 등으로도 불리운다. 유향소에서 ‘머물 유’(留)가 들어가는 것은, 원래 서울에서 벼슬을 한 경대부가 은퇴하여 자신의 고향에 “머물면서” 그 고을 풍속을 고쳐나간다는 의미로 붙여졌다. 향소의 역할은 대체로 나라의 정령(政令)을 백성들에게 알려 준다든지, 향리의 횡포를 막는다든지, 또는 세금을 거두는 것을 돕는 다든지 하는 일이라고 한다.
- 115) 유(儒)는 청금 유생을 가리키고, 향(鄕)은 유향소에 있는 품관들로서 좌수와 별감을 가리킨다.
- 116) 담비의 꼬리로 높은 관리들의 모자에 장식을 달았던 데에서, 담비 꼬리가 높은 벼슬자리를 가리킨다.

아아, 저 대대로 유향과 청금을 지내는 가문에서 끝내 과거에 합격한 존귀함과 좋은 비녀와 갓끈을 단 높은 벼슬이 없다고 하여, 어찌 가히 보통 사람의 부류에 스며들어가 州와 里의 부역을 책임지는 데에 섞일 수 있으랴? 지금 대정현의 창고에 쌀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급작스럽게 이와 같이 쌀을 내어놓는 부역에 섞여 징발 당하게 되자, 청금 유생들과 유향 품관들이 연이어 와서 의관들(하소연하는 유생들)이 관가의 뜨락을 가득 채웠다.

다만 생각하기를, 땅이 비록 멀다고 하더라도 명분은 균등한 것이고, 사람이 비록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진해 받은 문벌은 (무시해 버리기에는)가히 아까운 것이다. 그 차츰차츰 고쳐가는 길에 있어서도 어찌 이런 점들을 깊이 헤아리지 않으랴? 날줄과 씨줄을 참작하고, 넓히고 좁힘을 잘 써서, 옛부터 유향 품관과 청금 유생을 물려받는 자손들에게는 이제부터 (부역을 대신해서 내는 쌀 세미를)벗겨 면해 주도록 절목을 만들어 놓으니, 벽 위에 걸어 두고 이를 잘 따라 지킬 것이라 고 말할 따름이다.

도광 19년 기해(1839년, 헌종 5년) 11월 일
행 목사 수결¹¹⁷⁾

117) 大靜 鄉校 節目

周曰鄉土, 漢曰功佐, 卽今之鄉所是也. 矧茲耽羅三姓古國, 星主王子之末, 而初變爲鎮撫爵, 再變爲都知管, 三變爲留鄉所, 子繼孫承, 箕裘連綿, 今夫座首別監者, 率皆星主之本支苗裔, 王子之內外雲仍, 雖處海島窮陬, 其所承襲世閥, 實貫三韓, 不亦謂之小安東歟!

至若青衿, 國之元氣, 我東方優異之政, 靡不庸極, 而本島儒鄉既無二路, 青選於儒, 鄉選於青, 青之父鄉, 而鄉之子青, 則青惟生徒上貂尾, 鄉是青衿中鷄口.

嗟, 彼世鄉之家, 舊青之門, 縱無科第之貴, 簪纓之顯, 寧可以淪沒, 常人之流, 混責州, 里之役也? 今因本縣料倉之不足, 遽有此等米役之混徵, 而儒鄉連章, 衣冠盈庭.

第念, 地雖遐遠, 名分惟均, 人雖遇駭, 來閥可惜, 其在漸摩之道, 盍於是淵量歟? 參酌經權, 特用闊狹, 世鄉之曾孫, 舊青之子孫, 自今頗免, 成給節目, 揭于壁上, 遵以行之云爾.

④ 운용의 실제

군역 충당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 제주향교에서 실시되었던 고강의 구체적인 내용을 헌종시 기록¹¹⁸⁾을 토대로 살펴보면 향교의 유생은 정식으로 합격해서 들어온 유생인 접생 60명 외에 강론 받기를 원하는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은 모두 뽑아들였고 시험은 고강의 경우 매달 10일, 20일 그리고 말일에 보았다.

시험일이 되면 향교에서 기숙하며 공부하는 학생인 齋生들은 갓과 의복을 갖추어 시간에 맞춰 모였다가 목사가 나오면 동서로 나뉘어서 뜰 아래서 공손히 맞이한다. 목사가 명륜당으로 물러나 앉으면 訓長, 掌議, 直月은 동쪽 계단 아래에 서고 재생은 서쪽 계단 아래에 서서 마주보고揖한 뒤 목사를 향해 차례로 올라온다. 훈장, 장의, 직월은 앞줄에, 재생은 뒷줄에서 목사를 향해 두 번 절하고 목사는 이에 읊으로 답한다.

시험에 임할 때는 책상을 방 가운데 두고 목사는 북쪽 벽에 훈장, 장의, 직월은 동쪽 벽에 앉고 재생은 서쪽 벽에 앉는다. 직월은 나이가 많고 학문이 높은 이를 2명 뽑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책상 앞에 나아가 소리를 가다듬어 朱子의 『白鹿洞規』를 낭독하면 재생은 조용히 듣고 난 뒤에 고강한다. 40세 이하는 목사와 뒤돌아 앉아 글을 외우는 背講을 하게 하고, 40세 이상은 面講토록 하는데 이 때 음과 뜻풀이 보다 글 뜻을 분명히 하고 句讀이 잘 되었는가를 보아 높고 낮음을 評한다.

벌칙으로는 선비가 한 번 부(不 : 최하 점수)를 맞으면 벌로 종이 10장을 내고 두 번 부를 맞은 접생에게는 급료를 주지 않았다. 이때 접생이 아닌 사람은 벌지 1권을 내며 세번째 부를 맞으면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

道光 十九年 己亥(1839년, 헌종 5년) 十一月 日

行使(具載龍) 手決

118) 이하 濟州鄉校에서 발견된 文件 參照.

반면 한 번 순통을 맞으면 상으로 종이 10장을 주고 두 번 순통을 맞으면 종이 1권을 준다. 세번째 순통을 맞으면 접외 유생에게는 장학금을 접내의 유생에게는 종이 1권과 10장을 주었다.

양반들이 고강 때문에 액내교생 입학은 회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금록을 작성하면서까지 향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액내교생 때와 마찬가지로 향교가 유일한 관학이요 문묘가 있는 교화와 유학의 상징으로 향교에의 출입 자체가 신분유지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향교는 비단 교화의 중심지이며 학생을 가르치던 교육기관에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향교는 지방양반들이 출입하여 활동하던 장소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향교는 지방양반들의 모임 장소로서, 공론의 소재지로서 지방양반들의 정치사회적 활동을 보장해 주는 활동근거지요 향촌 기구였던 것이다.

수령들도 향교를 이용하여 군·현 통치의 원활을 기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一邑의 대민들이 모여 관정의 시비를 내놓는 곳이 향교였으며 의정하는 곳이 향교였기 때문이다. 이에 향교에서 관정을 보좌하는 향소를 圈點케 하거나 향소를 선발하는데 향교에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향교를 통하여 관정의 득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관에서 작성한 각종 節目을 향교에 하나씩 頒布하거나 보관케 한 것도 향교의 한 군·현 내에서의 위치나 기능을 이용한 실례라 하겠다.

⑤ 부수적 기능

원래 향교는 공자와 선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례를 위해 마련된 대성전, 동·서무 등 문묘와 학생들이 공부하고 기숙하는 명륜당, 동·서재의 학교가 기본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는 향교의 두 기능인 제례와 교육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東齋와 西齋는 학생들의 기숙처로서 둘은 위치의 차이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성적에 있어서도 구별되고 있었다. 하여 동재를 출입하는 유생을 일컬어 동재유생, 寒散庶孽 및 민의 우수자 가운데 서재에 출입하던 유생을 서재교생이라 하였다.¹¹⁹⁾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제주향교가 특이한 점은 효종조 까지만 해도 서재를 誠明이라 하여 책을 보관하는 책고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문고가 불비되었던 환경과 함께 서재교생에 대한 당대 제주향교의 실정을 대변하는 예이기도 하다.

조선조는 주지하다시피 향교의 설립과 개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신설향교에는 우선적으로 나라에서 책을 찍어 보내는¹²⁰⁾ 등 향교에는 교육에 필요한 서적을 모집, 보관하는 교육문고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렇듯 향교 등의 교육기관에 서책이 모여지기 시작한 것은 세종조 이후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향교에 서책이 증가되어갔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이를테면 서책분실의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향교에서는 서적목록을 작성하여 철저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였으니 향교에 따라서는 상당량의 서책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향교의 경우는 교육문고를 위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서재를 함께 쓰는 등 매우 협소하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 경영되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숙종 6년(1680)에 들어 任弘望 목사에 의해 향교 옆에 책고가 세워지게 되고 책판이 개간됨으로써 제대로운 교육문고가 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재를 책고로 쓴 예에서 시사하듯 제주도의 경우는 다른 곳에서보다도

119) 安鼎福, 『雜同散異』, 鄉校約令.

120) 『文宗實錄』, 卷7, 元年辛未四月甲戌條, 『禮曹啓 平安道慈城郡 新設鄉校 未有書冊 請令諸道板子所在官 印四書三經 各二件以送 從之』.

특히 양반들이 향교에 많은 집착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인들은 과거라는 공식적인 관문을 통과해야만 양반으로 인정받는 중앙의 정책에 순응하였지만 실제 제주인들이 중앙관료직에 진출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물론 제주인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과거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시험에 합격하여 명예를 얻는 것으로 그칠 뿐 실제로 등용되어 제주도를 떠나 한양 또는 다른 지방에서 관료생활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實職을 받지 못한 자들과 과거에 응시하지는 않았으나 양반 가문 출신의 자제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 향교를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었다. 이들에게는 향교에 출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권의 상징이었으며 다른 지방과는 달리 이들은 鄉職을 독점하였다. 향직은 제주도의 경우 양반임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職役이다. 어쩌면 그만큼 양반의 경우 중앙관직을 얻을 기회가 적고 과거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향교에의 직책과 향직을 중요시 여기고 신분유지의 수단으로 파악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3) 대정서당

(1) 서당의 종류와 조직

서당은 삼국시대 이래 서민교육의 기초 기관으로 유지되어 왔고 조선초에 들어와서 유학중시의 국책에 따라 서당의 위치는 더욱 확고하여 졌다. 서당은 향교나 다른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준비 교육의 성격을 가졌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훈장 자신이 자기 생계를 위하여나 자기의 교육 취미에 의하여 교육하는 子營書堂이 있고, 둘째는 마을 중에 가세가 넉넉하여 자기 자체

를 교육시킬 목적으로 훈장을 초빙하여 그 훈장이 혼자 담당하면서 약간의 이웃 자제에게는 덧붙이 가르치는, 獨營書堂이고, 셋째는 마을 유지들이 합자하여 학계 같은 것을 조직하여 훈장을 초빙하여 자제 교육을 시키는 有志組合書堂이고, 넷째로는 마을 전체가 합자하여 조합을 만들어 훈장을 두고 마을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村組合書堂이 있다.

서당의 조직에는 訓長, 接長, 學徒로 구분되고 있다. 훈장은 서당의 속사로서 학식의 표준은 일정하지 않았다. 촌 훈장들은 강독에 능통한 자는 드물었고, 주석이나 언해를 참고하여 가며 겨우 경서의 글 뜻을 해득하는 정도가 많았다.

接長은 큰 서당에 훈장 혼자서 많은 학도를 지도할 수 없으므로 연령과 학력이 우수한 학도를 접장으로 세우는 것이었다. 접장은 자신이 훈장에게 배우는 한편 자기 보다 학력이 낮은 학도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훈장이 학행이 고매할수록 접장도 훌륭한 인물이 선택되는 것이었다. 접장은 직접 학도와 상대하고 교유하느니 만큼 서당기풍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學徒는 7, 8세로부터 15, 16세의 아동들이 보통 이었으나 20세 이상된 자도 있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들의 학력은 10인 10층으로 정도가 높은 학도로 하여금 다른 학도를 가르치게 하여 훈장과 접장의 노고를 덜게 하는 일이 있었다.

(2) 서당의 교육내용

서당의 교육내용은 講讀, 製述, 習子の 세 가지 영역이었다.

講讀으로는 千字文, 童蒙先習, 通鑑, 小學, 四書三經, 史記, 唐宋文, 唐律 등이 보통이요 춘추, 예기, 근사록 등의 서적을 읽혔던 서당은 상당히 수

준이 높은 서당이었다.

製述로는 五, 七言絶句, 四律이나 十八句詩, 作文 등이 보통이었고 서당과 훈장의 품위에 따라서 각종 문체를 연습하기도 하였으며 궁한 촌락 혹은 작은 촌락의 서당에는 전혀 제술을 취급하지 않았었다. 벽촌 훈장에는 제술을 모르는 이도 있었다.

習字는 해서와 초서로 숙달시키고 나중에는 冊抄와 書禮體의 연습으로 실용에 힘쓰도록 하였다(제주도교육위원회, 1979: 14).

(3) 대정서당

정조 19년(1795)에 대정현감 高漢祚는 지방 자체 교육을 위하여 읍내에 대정서당을 건립하였고, 다음해(1796) 현 안에 상·하 二齋를 세우고 목사 柳師模에게 청하여 扁額을 걸어 齋號를 悅樂이라 하고 門號를 進德이라 하였다.



정조 23년(1799)에 현감 夫宗仁은 선현 棟溪謫廬遺址인 성 동쪽으로 옮겨 교학 하였으며 사인 姜晩榮 목사 鄭觀輝에게 記를 청하여 게시하였다.

悅樂齋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鄭觀輝 記 내가 젊어서 學問에 뜻하고 聖賢의 글을 읽을새, 論語 學而篇의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遠方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고한 대문에 이르러 그으기 일찍 스스로 마음에 힘쓰게 하여 “배우는 것은 德을 向上시키기 위한 것이니 때로 익혀 기쁜 것은 德을 向上시킨 工이요, 벗이 와서 즐거운 것은 德을 向上시킨 보람이므로, 배워도 기쁘고 즐거움에 이르지 못한다면 德이 어찌하여 向上할 수 있으랴?”고 생각하였다. 내가 濟州를

지킨지 三年만에 대정 士人 姜晩榮 등이 글로써 請하여 말하기를 “대정은 본디 書齋가 없더니 丙辰年 현감 高漢祚가 목사 柳師模와 함께 논의하여 邑中의 鎭吏廳을 사서 처음으로 學子 修業하는 곳을 설치하고 扁額을 悅樂이라고 하고 門을 進德이라고 하였는데, 그 三年을 지난 己未년 현감 夫宗仁 두 서재를 縣 동쪽에 있는 桐溪 鄭先生 謫廬 遺墟에 移築하고 根本 額대로 懸板을 걸었으니 書齋가 그제야 그 땅을 얻게 되었으며 林壑은 幽靜하고 厯簣은 멀어서 학사 講習하는 자 또한 그 學業을 오로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願컨대 한 마디 말을 빌어 인증방을 빛나게 하여서 學子로 하여금 항상 보는 資料가 되게 하고자 합니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韓愈는 湖州의 刺史가 되니 湖州 사람들이 글 배울 줄을 알았고 文翁은 蜀을 지키자 蜀人들이 學問을 일으키게 된 것은 그 어찌 말로써 했던 것인가? 그것은 반드시 몸소 이끌어서 그리 된 것이었다. 돌아보건대 나는 수루(搜陋)해서 여태까지 몸소 한바가 없다. 부질없이 말만 하는 것이 무엇이 有益하랴? 마치 말라는 것이라면 柳公의 扁額名稱이 또한 이미 말하고 있다. 學子 어찌 이것으로써 항상 보지 않겠는가? 배워서 기쁘게 되고 기뻐서 즐겁게 되어 기쁨을 進德의 工으로 삼고 즐거움을 進德의 보람으로 삼는다면 그 學問을 하는 始終에 있어서 다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또 어찌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있으랴? 마침 내 나이 젊었을 때의 일찍 스스로 마음에 힘쓰게 하였던 바를 여기 적어 學子들에게 힘쓰게 하는 것뿐이다.¹²¹⁾

121) 悅樂齋

鄭觀輝記餘少志于學讀聖賢書至論語學而篇曰學而時習之不亦悅乎有明自遠方來不亦樂乎竊嘗自勉于心曰學所以進德也時習而悅進德之工也明來而樂進德之效也學而不至於悅樂德何出進及余守濟之三年대정之士姜晩榮等以書請曰靜舊無書齋丙辰知縣高漢祚與柳牧使師模議買邑中鎭吏廳荆置學子修業之所扁之曰悅樂門曰進德越三年己未知縣夫宗仁移築二齋于縣東里許桐溪鄭先生謫廬遺墟仍舊額而攜之齋於是乎得其地矣林壑幽靜厯簣既遠學士之講習者亦可得以全其業矣願借一言而煖插吏學子爲常目之資焉余惟韓子刺

溫故堂과 進修堂은 高宗 辛未年 縣監 金夢求 重建하고 壬申年 士人 姜始炎 記를 請하여 揭示하였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沈東臣 記 大正 南쪽에는 文學이 뛰어나 훌륭한 士人이 많이 있으니 姜斯文 姜始炎이 곧 그 사람이다. 어느 날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 仁侯 金公 夢求가 郡治에 臨한 후 文教가 크게 자랐으며 閤門을 열어 거의 온 고을의 선사를 禮로 待接하고 勸하여 工夫를 하게 하여 極盡히 하지 아니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 郡治 동쪽에 若干楹을 얻어만들어 諸生을 거주하게 하고 그 學業을 붙이게 하였으니, 大概 溫故堂의 舊制입니다. 당의 作掇 沿革은 본디 無常하니 이제 반드시 張皇하게 말할 必要가 없되 堂은 본디 이름이 없을 수 없으며 또한 記가 없을 수 없으므로, 당신께서 나의 말을 아름답게 여겨 이 당에 이름하고 이당에 記하여 來後에 紹介할 바를 꾀함이 좋을까 합니다.”고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좋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먼바다를 건너고 千里 길을 걸어서 반드시 기를 나에게 구하는 것은 어찌 내가 일찍 이 郡에서 일하여 이 郡의 文物 風土를 다 밝아 알지 못함이 없고 그 顛末을 目睹하여 다 아는 까닭으로써 하는 것이 아닌가?”고 하였다. 아아! 우리나라의 文學을 尊重하는 政治가 僻陋와 물가에까지 미쳐 彬彬郁郁하고 州에는 序가 있고 鄉黨에는 庠이 있어 무릇 縫掖估畢의 무리가 그제야 모여 살아서 學業을 힘쓰게 되었으니, 이것은 眞實로 列聖의 朝廷에서 培植하고 作育한 教化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郡은 땅이 南

潮而潮人知學文翁守蜀而蜀人興學者夫豈以言語爲也其必躬導之得其道也顧餘溲陋既無以身之矣徒言奚益無已則柳公之扁之名亦已言之矣學子盍於是常日焉學而至於悅悅而至於樂悅以爲進德之工樂以牧進德之效則其於爲學之始終至矣盡矣餘又何贅說焉遂書餘小日之所嘗自勉于心自以勉

服의 南에 위치해서 環海 孤嶼가 京師에 멀리 떨어지기 數千里餘나 되고, 風俗 習慣은 或같지 아니한 바가 있으며 王이 教化는 或 짓지 못한 바가 있고, 그 生民의 利를 말한다면 漁採로 業을 삼을 뿐이며 그 禦邊의 策을 말한다면 弓馬를 崇尚할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儒術을 敦篤히 崇尚하고 봄에 글을 읊고 여름에 거문고를 타면서 이따금 宏儒와 碩學이 있어 그 사이에 輩出하여 德業으로써 사귀며 힘쓰게 하여 이리함으로써 慥慥하지 아니 함이 없으니, 이 어찌 王宮의 큰 美德과 太守의 이끌어 나아가는 效果가 아니라? 易에 이르기를 “進德修業은 때에 미쳐 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니 大概 君子의 道는 德業보다 먼저 함이 없고 德業의 實은 또한 進修보다 먼저 함이 없다. 이제 그 大政의 여러 君子는 다 能히 德業에 낮고 進修에 부지런 할 수 있으며, 나아가면 王庭에 올라 皇猷를 도울 수 있고 들어오면 膠庠에 놀아 經術을 힘쓸 수 있으니, 이것은 實로 당이 설치되어 風教가 미친 바로서 돌아 보건대 크고도 멀지 아니한가?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 당에 이름하고 이것을 위하여 적어 그 大政의 여러 君子들을 힘쓰게 하는 것이다. 崇禎 紀元 後 五年 壬申 仲春¹²²⁾

122) 沈東臣記靜之南多文學魁偉之士姜斯文始炎卽其一也日造余而言曰我仁候金公夢求莅治以後文教丕鬯開閤近一鄉善士禮接之勸課之靡所不用其極今郡治東構若干楹居諸生隸其業蓋溫故堂舊制也堂之作掇沿革固無常今不必張皇爲說而堂固不可以無名亦不可以無記子其嘉惠我一言名斯堂記斯堂圖所以詔昧來後其可乎余曰諸君子之涉重溟走千里必求記於余者豈不以余曾往役茲郡茲郡之文物風土靡不足躡而目睹稔悉其顛末故也歟噫我東右文之治泊陬澗彬彬郁州有序黨有庠凡縫掖佔畢之徒於是乎群居而攻業此誠列聖朝培植作育之化有以致之也茲郡處在南服之南環海孤嶼距京師數千里餘俗習或有所不同王化或有所未霑語其生民之利則漁採爲業焉已語其禦邊之策則弓馬是尙焉已然而人皆敦尙儒術春誦夏絃往往有宏儒碩學輩出於其間莫不以德業交勉以是慥慥茲豈非王國思皇之美太守導迪之效歟易曰進德修業欲及時也蓋君子之道莫先於德業德業之實亦莫先於進修今夫靜之諸君子皆能優於德業勤於進修出則可以登王庭而贊皇猷入則可以遊膠庠而子經術此實堂之所由設而其風教所覃及顧不大且遠乎哉余以是名斯堂而爲之記而勉夫靜之諸君子云爾崇禎紀元後五壬申仲秋

3. 근대 이후의 전통

1) 민족사상 교육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으로 향교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떠나 문묘 향배와 학전 관리나 하고 유생을 통하여 향토문화 향상과 사회 교화에 기여하였으며 신교육 도입 후 한문 교육은 점점 쇠퇴하여가고 서당 교육은 국민으로부터 소외되어 갔다.

일제는 1929년 6월에는 1918년 제정한 서당 규칙을 고쳐 서당의 지도 감독을 통하여 교육을 규제하게 되었고 서당은 반드시 총독부에서 편찬한 일본어 산술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고 일본의 국민도덕까지 가르치도록 하였다.

일본의 차별적인 교육정책과 민족적 탄압은 우리 민족에게 크게 반감을 샀고, 한편 자주독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민족적인 자각심과 구국의 길을 교육을 통하여 생각하게 되었고 사람마다 가슴속에 교육에 대한 정열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일제의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민족에 대한 집념과 교육에 대한 열의도 대단하였다.

그 한 예로 1922년 金成淑은 “조국이 독립하려면 우선 힘이 있어야 하고 그 힘은 앎으로써 얻을 수 있으니 학교를 설립하여 동포들은 깨우칠 수밖에 없다”하여 가파도에 辛酉義塾을 설립하였다. 그 성과는 당시 가파도 리민 중에는 출가잡녀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문맹자가 없었다고 한다. 또 이 학교 학생 모표가 무궁화이었던 관계로 일본 관헌이 이를 트집 잡아 그를 연행하여 옥고를 치르게 하였지만, 그는 완강히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날 가파도 주민들이 진취적이고 씩씩한 기상은 그의 교육의 힘이

켰다고 전해지고 있다(제주도교육연구원, 1974: 112).

대정 지역의 항일 민족 교육을 주도했던 교육기관(개량서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光鮮義塾(1920~?): 모슬포 교회에 개설, 창설자는 기독교 목사 尹植明, 장로 崔貞淑 이고 속장은 元容赫(추자), 교사로 크리스천인 姜圭彦(중문), 鄭桐圭(일도) 등이 재임하였다. 처음 중문리에 永明學塾을 창설했으나 학동 수가 얼마 되지 않자 모슬포에 새로 개량 서당을 개설한 것이다. 광선의숙의 설립되어 소학교 6년 과정과 1923년 고등소학 2년 과정의 補習科를 두어 지방 청소년 교육에 기여하였으며 멀리 서귀면 법환리에서 구우면 두모리까지의 청소년들이 공부(민족교육)하였는데 그 때문에 경찰의 감시가 항상 뒤따랐다. 그 학교 교원 중에는 기미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징역형을 받은 송실대학 졸업자 姜圭彦과 역시 같은 징역형을 받은 鄭桐圭 등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일제의 감시가 심하였다.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는 만주에 건너가서 東滿靑年總同盟을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 신의주경찰서에서 취조를 받던 중 가혹한 고문으로 말미암아 폐인이 되어 죽은 용수리 출신 秦聖國과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 후 환국하여 헌병사령관으로 포로 석방을 지휘한 추자도 출신 元容德이 있어 당시 光鮮義塾 교육을 말해주고 있다(박용후, 1990: 182). 학내 분위기는 항일 민족주의 성격이 강하여 光鮮이라는 의숙 이름도 ‘조선을 광복한다’는 뜻으로 지었다고 전해진다.

② 辛酉義塾(1922~32): 가파도 355번지에 개설, 속장 초대 金成淑, 2대 金玉千, 3대 李道一 등이 재임하였다.

신유의숙은¹²³⁾ 전주민을 교육대상으로 출발하였던 일제 하에서 제주도

민중교육의 모범적인 예이다. 경성고보의 졸업생으로서 3·1운동으로 투옥되었다가 귀향한 24세의 김성숙은 가파 도민의 皆學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개량 서당을 개설, 항일 인사들을 교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담당하였다. 李致化, 金玉千, 金漢貞, 李道一 등 마을 어른들의 조력으로 6년제 신유의숙을 설립하게 되는데 金漢貞(가파), 朴昌桂(제주시), 金鎬千(조천) 등을 교사로 초빙, 본격적인 교육활동을 벌이게 된다. 뒤이어 宋鍾炫(신촌), 張鐘植(제주시), 姜昌攀(지역) 등도 교사로 초빙되는데 이들은 모두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1932년 제주도 공산당 재건운동에 연루되어 검거됨으로써 신유의숙은 일경의 감시대상이 됨은 물론이요 1년 가까이 폐교의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신유의숙 3회를 졸업하고 1939년부터 신유의숙의 교사를 맡았던 李貞白은 ‘내가 선생을 맡으면서 맨 먼저 생각하였던 것이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민족적인 교육을 본받고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라고 술회했듯이 교사들의 민족주의적 노선이 매우 강고 했었음을 알 수 있다.

후원 단체는 가파도 어촌계였는데 교사들에 의해 부녀회, 청년회, 새별소년회가 조직되었고 문맹퇴치를 위한 ‘토요야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야학에서는 불빛이 모슬포 주재소 쪽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을 가려 공부하는 등 그 노력이 각별하였는데 그 결과 가파도의 문맹을 일소할 수 있었다. 야학의 석유 호롱불을 켜기 위한 석유 값은 마을별로 모금해 운영함으로써 공동체적 단결력을 과시하였는데, 이러한 모든 노력들 모두가 교사들의 민족주의적 노선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123) 濟州4·3연구소, “조선의 진정한 독립을 건설하는데 다같이 뭉쳐 일어나서야...”, 『4·3 長征』, 1990.8.11, pp.23~38.

것이다.

신유의숙의 민족주의적 특징은 특히 한글을 가르쳤던 수업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는 4, 5, 6학년의 시나 동요 모음집을 매달 한글로 만들었다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일반사회 상식을 가르쳤던 예도 마찬가지이며, 학생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과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회를 개최했던 것도 특이한 내용이다. 또 다른 신유의숙의 민족주의적 특징은 김성숙이 만든 “가과도 신유의숙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유의숙가에서 강조된 무궁화는 신유의숙의 모표에서도 쓰여져 민족주의를 간접적으로 상징하였던 것이다.

1. 활발하고 건강한 우리 학도들, 일조의 서광이 비치었으니 소리를 마주치고 용맹스럽게, 아 찬송합시다.
2. 외롭다 한라산을 쳐다보세요, 일제의 동풍한설 몇 번 지나도 만고불변 엄연하기 군장의 절개, 아 고상하도다.
3. 고금천지 고금역사 들어보아라, 나폴레옹은 누구이며 콜롬부스는 누구인가. 아아 어느 때 누구누구 영웅열사가 씨가 있으랴. 아 찬송 합시다.

후렴: 신성하다 우리 학교여! 화려하다 우리 학교여! 무궁화 세가지의 꽃이 아닌가, 아 잘 배양합시다.

신유의숙에서 활동했던 교사들은 金成淑을 필두로, 李辛浩, 金漢貞 朴昌桂, 金鎬千, 趙應浩, 宋鐘鉉, 張鐘植, 文達珍, 姜聖華, 李致化, 金玉千, 姜鐘昊, 金泰能, 李炳浩, 金昌諡, 李昌孝, 姜昌舉, 李丙浩, 金昌廈, 李元貞, 鄭在京, 朴用厚, 李道一, 文始旭, 宋丙吉, 李貞白, 姜文範, 丁鎬明, 李斗玉, 高京秀, 金太淳, 許基麟, 李元含, 李元吾, 金東宇, 姜君涉 등이 있다(양진건,

2001: 309).

현재 가파초등학교 교정에는 신유유숙의 개설자인 김성숙 상이 건립되어 있다.

③ 漢南義塾(1925~28): 하모리 향사에서 개설, 숙장은 姜文錫이었다. 강문석은 안성리 태생인데 당시 모슬포 청년회장으로 당국에서 급진적인 항일 인사로 지목 받아 개량 서당 운영에 대해 심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폐속 하게 되었다.

④ 大同書塾(1935~40): 보성리 1216번지에 개설, 당시 대정면장 禹寧夏의 권유로 재래 서당을 통합하여 설립을 보았다. 숙장 宋京富, 교사로 李斗玉(인성), 趙世珍, 등이 재임하였다. 1937년에 대동서숙은 대정 사설강습소로 인가 받아 인성, 안성, 보성, 신평, 구역리 등 5개 마을의 학동들이 취학하던니 이를 기반으로 1940년 7월 사립보성심상소학교의 개교로 발전하기도 하였으나 나중에 취학생이 없어져 자연 폐속 되었다.

⑤ 以文義塾(1922~40): 무릉리 2968-4번지에 개설, 숙장 金錫柱, 교사로 金龍河(화순), 宋珍富, 姜恩玉 등이 재임하였다. 이문의숙은 1930년 이문서당으로 개칭되어 운영되다가 1940년 5월 무릉공립심상소학교의 개교로 자연 폐속되었다. 무릉, 신도, 영락리 3개 마을의 학동들이 이문의숙에 통합하였다(제주도교육청, 1999: 351~352).

이외에 대정 지역의 일과·동일·신평리 등지의 학동들은 이웃마을의 私塾에 통학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근대 학교

근대학교로는 李在喬의 개성학교를 들 수 있는데,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되고 우리의 주권은 상실되기 시작하였

다. 이때 학부에서는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칭하고 종래의 학제를 개편하여 사범학교령 실업학교령 외국어 학교령을 제정하고 서울과 지방 각 중요 도시에 보통학교를 증설하는 한편 실업학교도 몇 곳에 세웠다.

그 때까지 崇儒 사상에 젖은 전통사회에서 신교육 신학문에 동화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제를 학교에 보내기를 싫어하고 종래의 서당 교육이 옳은 것으로 여겼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천주교의 전래로 도민의 정신 세계에 갈등을 빚기 시작하였고 1908년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세를 확장하였으며 일본 어민들은 어장을 탐내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각자들은 구국의 길은 오직 교육임을 깨달아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일합방 때까지 사학을 세우기 시작하였으니 대정 지역에서도 李在喬¹²⁴)가 개성학교를 설립하여 자신이 교장이 되고 국권 회복을 위하여 독립의식을 고취하였다. 李在喬는 교육구국과 인재양성의 급선무를 역설하고 청소년 교육에 진력하였고 1910년 韓·日合併 이후에는 지방 수재 십여 명을 선발하여 외지에 유학시켜 신학문을 수렵하고 민족갱생과 국권회복을 주장하였는데 대정 지역에서는 이것이 근대학교의 시초이다.

또한 1908년 10월 안성리에 私立漢一學校가 설립되었으니 이것이 뒷날 대정초등학교가 되었다(박용후, 1990: 180).

1910년 나라가 망함에 민족적 悲憤에 잠겨 있는데 그 해 정의 보통학교의 설립되고 다음해 1911년 조선교육령에 의하여 대정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124) 李在喬는 대정인으로 시문에 능하고 開化思想을 가진 사람으로서 유배인 李世蕃의 後孫이다.

3) 현대학교

(1) 대정현(慕瑟浦) 중심지 학교

① 대정초등학교

1908년 10월 19일 대정읍 안성리에 처음으로 私立漢一學校가 설립 개교되어 1911년 2월 1일 사립대정학교로 개칭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일 공립대정보통학교로 인가되었다. 제주도내에서는 제주북교와 표선교에 이어 세 번째로 오랜 학교이다.

공립대정보통학교는 1924년 3월 31일 모슬포(상모리)에 부설학교가 설립되었는데, 1931년 3월 31일 공립대정보통학교가 안성리에서 상모리 3864번지로 이전되어 모슬포(상모리)에 부설학교는 자연 폐지되었다.

1938년 4월 1일 공립대정심상소학교로 개편되었고 1950년 6월 1일 대정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학교의 위치는 초창기에는 안성리 1677번지 옛 대정군 객사를 교사로 사용하다가 1931년 3월 31일 대정읍 상모리 3864번지로 이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광복 후에는 제9대 한국인 교장으로 姜雲玉이 부임하였고, 제1회 졸업생은 9명이었다.

제1회에서 제10회까지의 졸업생수는 남자는 69명이고 여자 아동은 없었다는 것으로 볼 때 당시 교육은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50년 4월 29일 대정초등학교 일과분교장이 대정면 일과리 223-21번지에 신설되었다가 1955년 2월 1일 폐지되었다. 1960년 4월 29일 동일리 2659번지에 다시 일과 분교장이 설립되어 교육시켜 왔으며 1968년 12월 17일 동일리 일과1, 2리를 학구로 하는 대정서국민학교로 승격 분리되었다. 1976년 특수 학급이 설치되었으며, 1984년 3월 1일 병설 유치원이 개원하였다(제주도교육청, 1999: 285).

② 보성초등학교

1935년에 설립된 대동서당을 시초로 하여 1937년에는 교명이 대정사설 학술강습소로 개칭되었으며, 1940년 4월 18일 사립보성심상소학교로 설립 인가되어 같은 해 7월 1일 개교하였다. 초대 교장으로 金元鐘이 부임하였고 제1회 졸업생은 35명이었다. 이 보성심상소학교는 산남에 설립된 유일한 사립 학교였다.

그 후 1944년 공립대정초등학교 부설 국민학교로 인가되었으며, 1946년 9월 1일에는 보성공립국민학교로 개편되어 대정면 보성리 1216번지로 이설하였으며 학구는 보성·안성·인성·신평리가 해당된다. 1949년 2월 15일에는 대정북국민학교(대정동국민학교와 구억분교장의 전신)를 본교에 통합하여 같은 해 3월 10일 폐지된 대정북초등학교 아동들을 수용하게 되었고, 1950년 6월 1일에 보성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1956년 11월 1일 현재 위치로 이설 하였다.

1965년 4월 1일 구억분교장이 인가되었으나 1995년 3월 1일 본교에 통합되었으며 신평분교장이 1969년 9월 10일 인가를 받고 1970년 9월 10일 개교하였다. 1992년 3월 1일 본교로 통합되었다(제주도교육청, 1999: 287).

③ 가파초등학교

1922년에 金成淑이 대정면 가파도에 신유의숙을 설립하였는데, 1930년에는 신유서당으로 개칭하여 낙도민의 유일한 교육 기관 구실을 해 왔다. 광복 이후 1946년 9월 1일 공립가파국민학교로 설립 인가되었고, 서당을 흡수하여 대정읍 가파리 464번지에서 같은 해 11월 1일 개교하면서 제1대 교장으로 高敬沃이 부임하였고, 제1회 졸업생은 12명이었다. 1958년 8월 30일에는 우리나라 최남단의 고도인 마라도에 마라분교장을 설치하기도 하였다(제주도교육연구원, 1979: 223).

④ 대정중학교

대정초급중학교는 1946년 9월 24일에 설립인가를 받았고 동년 10월 1일 일본군이 사용하던 오무라(大村)兵舎를 미군정청과 사용 계약하여 개학하였다. 초대 교장으로는 李道一이 부임하였고, 제1회 졸업생은 59명이었으나, 이 후 6·25전쟁 때, 재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전사자가 많았고, 졸업생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1950년 4월에 공립농업중학교로 개편되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미군정기간의 제주도 중등학교 설립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해방이 되자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大村兵舎 건물을 토대로 1945년 말경부터 기성회를 조직, 각 마을에서 500원에서 1000원씩 약 8, 9개월 모금을 했었다. 教師로는 대정국민학교에 있던 姜達勳을 출발로 수학담당에 이태식, 물리, 화학에 이경선 등이 담당하였다. 특히 이경선은 동덕여학교를 거쳐 일본 고오베 약전을 졸업한 당시 여자로서는 대단한 인텔리였다. 이경선의 남편은 음악을, 金達三은 역사를 담당했다.

朴景勳 도지사가 1946년 9월 개교식에 축사를 하러 왔을 때 공립으로 인가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인가를 위한 기금 100만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모금했던 돈을 합쳐 100만원을 만들어 金仁志 학무과장에게 납부함으로써 공립으로인가를 받게 되었다. 공립으로 인가됨에 따라 교장 선출이 문제가 되었고 종내는 이경선의 부친이 되는 이도일을 임명하였다. 1947년 11월 8일에는 창립 1주년 기념으로 추계운동회를 개최하기도 했었다. 그 후 1948년 4, 5월경 총파업이 지령되자 학교가 폐업되는 등 해방후의 정치적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양진건, 2001: 343).

1947년 국방경비대가 모슬포에 주둔하게 됨에 따라 임시 校舎를 국방경비대에 명도하여 교사가 없게 되었으므로 대정국민학교 일부 교실, 면사

무소 회의실, 상모리와 하모리 향사 등을 빌어 수업을 하다가 1950년 5월 5일 하모리 788번지에 신축 교사가 완공되었으므로 현 위치로 교사를 이전 정착되었다.

1952년 3월 대정고등학교와 병설 인가되었으며, 1979년 2월 29일 대정고등학교와 분리되고, 1964년에는 대정여자중학교가 분리 개교하였다가, 1984년 3월 1일 대정여자중학교와 다시 통합 인가되었다.

⑤ 대정여자중학교

1964년 1월 11일 설립 인가되고 동년 3월 16일 개교와 동시에 대정여자고등학교와 병설되어 모든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1984년 3월 1일 대정여자고등학교와 분리되면서 다시 대정중학교와 통합되었다. 제1회 졸업생은 53명이다.

⑥ 대정고등학교

1946년에 대정중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교육법 개정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됨에 따라 지방민들이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느껴 학교설립을 추진하였다. 1952년 3월 21일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동년 6월 2일 대정중학교에 병설 개교하여, 초대 교장에 趙成煥이 부임하였다. 제1회 졸업생은 33명이고, 때마침 6·25동란으로 大村兵舎 자리에 육군 제일훈련소가 설치되고 피난 학생들이 격증하여 한 때는 軍都의 고등학교 면모를 갖춘 때도 있었다.

1974년 중·고 분리 정책에 의하여 이설작업을 추진하고 1979년 대정읍 상모리 3428번지(현 위치)로 이설 하였다(제주도교육연구원, 1979: 238).

⑦ 대정여자고등학교

대정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었으나 학생 인구의 자연증가와 남녀공학으로 인한 여성전문교육의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에 따

라 대정여자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회장 李在俊)를 조직하였고, 훈련소 9·8육군병원 자리(하모리 1363번지)에서 대정여자중학교와 병설 개교하였다.

1964년 1월 11일 3학년 6학급의 편제로 설립인가를 받고 동년 3월 16일 개교하였다. 초대 교장에는 姜達勳이 부임하였고, 제1회 졸업생수는 19명이다. 학교 설립에 있어서 제일 교포들이 시설설비에 지대한 지원을 하였으니 李鼎根, 高麗京, 姜太佑 등이다(제주도교육연구원, 1979: 238).

⑧ 모슬포유치원과 셋별유치원

1920년 모슬포 예수교회에서 처음으로 유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일제 말에 일제의 탄압으로 중지되었으며 1935년 12월 21일 민족교육 탄압을 극복하면서 지방민들이 육영회를 만들어 모슬포 유치원을 설립하였다(박용후, 1980: 180~186).

1935년 당시 모슬포금융조합 이사로 부임한 高有璜이 중심이 되어 부지 300여 평과 유치원 기본 시설을 제공하였다. 지방유지인 金壬吉, 이신희, 李道一, 崔益炫, 趙生奎, 禹榮華 등이 후원회를 조직하여 유치원 운영을 지원하였다.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로 일제의 감시가 심하여 원아들의 통학이 끊어졌다. 그러나 명맥만은 유지하면서 광복 때까지 이름은 계속되었으나 4·3사건 등 혼란기에와서는 폐원되어 건물은 지방의 각 단체 공동 사무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968년에 이르러서야 모슬포유치원 재건위원회에 의해 대정읍 하모리 1546-1번지에 재 개원하였다(제주도교육청, 1999: 518).

한편 이보다 앞서 1952년 11월 13일 육군 제1훈련소에서 상모리 강병대 교회 앞에 셋별유치원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2) 대정읍 지역 학교

① 대정서초등학교

1950년 6월 2일 대정국민학교 일과분교장이 대정면 일과리 223-21번지에서 신설되었다가 1955년 2월 1일 폐지되었다. 따라서 본 학구 학생들이 대정국민학교에 통학하게 되었고, 1960년 4월 29일 동일리 2659번지에 다시 일과분교장이 설립되게 되었다. 1968년 12월 17일에 대정서국민학교로 승격, 같은 해 4월 26일 개교하여, 초대 교장에는 金仁昌이 부임하였고, 제1회 졸업생은 58명이다(제주도교육청, 1999: 531).

② 영락초등학교

1966년 3월 1일 대정읍 영락리에 무릉국민학교 영락분교장이 설립되어 1·2학년을 1학급에 수용했다.

1970년 3월 1일 영락국민학교로 인가되고 동년 3월 10일 개교하였다. 초대 교장에는 左泰珍이 부임하였고, 1971년 3월 1일 무릉교에서 6학년 41명을 인수받아 6학급을 편성하였다. 학교 설립에 제일교포 金正基 등이 유공 하였다. 제1회 졸업생수는 41명이며 1995년 3월 1일 무릉초등학교에 통합 폐교되었다 (제주도교육연구원, 1979: 223).

③ 무릉초등학교

1922년 무릉리 2868번지에 무릉의숙이 설립되어(사숙장 김용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1930년 4월 1일에 무릉의문서당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40년 5월 7일 공립무릉심상소학교로 설립 인가되어 제1대 교장으로 白貴南이 부임하였고, 같은 해 6월 1일 개교하였다. 제1회 졸업생은 63명이었다. 1941년 4월 1일 공립무릉국민학교로, 또 1950년 6월 1일에는 무릉국민학교로 개칭되었고, 1953년 5월 31일에는 신성분교장(무릉동국민학교의 전신)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1965년 신성분교장이 무릉동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가 1994년 3월 1일 본교에 통폐합되었다. 1966년 3월 1일 영락분교장이 설립되었고, 1970년 3월 1일 영락국민학교로 승격 운영되다가, 1995년 3월 1일에는 본교에 통폐합되었다. 1998년 3월 1일 신도초등학교가 통합되었고, 1982년 3월 12일 병설 유치원이 개원되었다(제주도교육청, 1999: 286).

④ 신도초등학교

1946년 3월에 학교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고 같은 해 9월 1일 인가를 받아 12월 6일 신도리 1381번지에 시설을 갖추어 공립신도국민학교로 개교하였다. 초대 교장으로 秦君賢이 부임하였고, 제1회 졸업생은 62명이다. 1950년 6월 1일 신도국민학교로 개칭되었고, 1955년 2월 10일 신도 2리 아동들의 본교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흥분교장을 설치하기도 하였고, 1998년 3월 1일 무릉초등학교에 통합 폐교되었다(제주도교육연구원, 1979: 223).



⑤ 대정공립북초등학교(보성국민학교 구역분교장)

현재의 대정읍 구역리864번지에 1938년 4월 1일 공립대정심상소학교 부설 구역간이학교로 인가되어, 1944년 4월 1일 공립대정북국민학교로 승격 개편되었다. 제1회 졸업생은 22명으로, 4·3사건으로 인하여 보성국민학교에 통합되었다가 1965년 4월 1일 구역분교장으로 분리되어 1, 2, 3학년 어린이들이 수학하여 오다가 취학 아동의 감소로 1995년 3월 1일 보성초등학교에 통합 폐교되었다(제주도교육청, 1999: 285).

⑥ 보성초등학교 신평분교장

보성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되는 아동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947년 8월 30일 가칭 공립신평국민학교로 설립 신청을 하였으나, 1948년 6월 10일 재정상의 이유와 대정북국민학교(대정동국민학교와 구역분교장의 전

신)의 수용 정원 미달로 인해 두 마을간의 조정을 전제로 설립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 후 1969년 9월 10일에 대정읍 신평리 371-1번지 교지 3.180평을 확보하여 보성초등학교 신평분교장 설립 인가를 받아 1970년 3월 10일 개교하였고, 1992년 3월 1일 본교에 통합되었다(제주도교육청, 1999: 532).

⑦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장

우리나라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낙도인 마라도의 취학 아동을 위해 1958년 8월 30일 가파국민학교 마라분교장이 설치 개교되었다. 단급학교로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용하여 복식수업을 하고 있다. 제1회 졸업생은 4명이었고, 1972년까지 졸업생은 모두 72명이다(제주도교육연구원, 1979: 531).

⑧ 무릉북초등학교(무릉동초등학교)

1943년 4월 16일에 중앙서당을 설립하여 金聲珍이 무릉리 581번지 향사에서 교육을 담당했고, 1947년 4월 1일 무릉북국민학교로 인가를 받아 서당을 흡수, 그 자리에서 개교하였다. 초대 교장에 金泰鎬가 부임하였고, 제1회 졸업생은 17명이다. 1949년 3월 4·3사건으로 마을이 疏開되자 같은 해 3월 10일 무릉국민학교로 통폐합하여 아동들을 수용하게 된다. 사태가 수습되면서 1953년 5월 31일 무릉국민학교 신성분교장으로 개교되었다가 1965년 8월 5일 무릉동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 무릉 2리 부지 3961평을 학구민이 부담으로 매수하여 회사하였다. 1994년 3월 1일 본교에 통합되었다(제주도교육연구원, 1979: 223).

⑨ 신도초등학교 보흥분교장

1955년 2월 10일 대정읍 신도 2리 2959-2번지에 교지 660평을 마련하여 통학 거리가 멀어서 불편을 느껴오던 신도초등학교 취학한 저학년(1, 2학

년) 아동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보흥분교장이 설치되었다(제주도교육연구원, 1979: 223).

⑩ 무릉중학교

1952년 5월 23일 무릉고등공민학교가 설립되어 무릉국민학교 일부 교실과 무릉 향사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여 오던 중, 1953년 3월 15일 무릉중학교 설립 기성회의 발족과 더불어 학교 설립 운동이 결실을 맺어 1954년 5월 22일 설립 인가되어 7월 15일에 개교하였다. 초대 교장에는 金龍河가 부임하였고, 제1회 졸업생은 47명이었다(제주도교육청, 1999: 540).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대정 지역 교육의 특수성을 알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대정 지역의 교육사적 전통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 제주교육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출발하였다.

이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사적 전통에 대해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와 대정 지역의 관계에서는 제주도 애월읍 빌레못 동굴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되었는가 하면, 이곳 대정 지역에도 신석기 시대에 용천수가 풍부하고 사냥과어로 생활에 편리한 상모리 산이수동에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고있다.

둘째, 대정 지역의 기능으로, 일본은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이 곳에 비행장 건설과, 도로를 확장포장하고, 비행기 격납고를 설치하는 등, 가미가제 항공조종사를 훈련시켰던 곳이며, 6·25전쟁 때에는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어 후방 작전지역 이었다는 지역 특수성으로 동양은 물론 세계사와도 연결할 수 있는 군사적 기능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셋째, 대정 지역의 교육사적전통은 조선 시대 유배인들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된 교학활동으로 교육과 지역 특수성에도 큰 영향이 나타난 곳이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遠惡流配地로 유명했다. 아마 당시 조정은 대정현을 ‘나라의 끝’, ‘땅의 끝’으로 여겼던 듯 하다. 유형제도는 조선 태조 시대부터 그 위력을 발휘했는데 이후 이 고장에 유배온 인사들로는 연산군 때

에 왕의 부도덕행위를 간하다가 쫓겨온 내관 金舜孫을 비롯하여 이후 古阜李氏 제주 입도조가 된 李世蕃, 또 오현 중 한사람인 鄭蘊, 그리고 申命奎, 申鉉, 任徵夏, 權震應, 任觀周, 金正喜, 趙觀彬, 또 장희빈의 오빠인 張希載와 恩彦君, 등이 모두 이 지역(고을)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이들 중 申命奎, 任徵夏, 權震應 같은 분들이 유배지의 아동들을 모아 훈학을 했고, 金正喜 같은 분은 여기서 불휴의 명필 ‘추사체’를 완성하고 유명한 “세한도”를 남겼다. 이밖에 그들은 서울의 문화와 유교적 관습을 이 지방에 접목시키는 역할도 했다.

넷째, 대정 지역은 조선 시대 민란의 발생했던 대표적 지역이다. 순조 18년(1813)에 별개의 국가로서 분리주의적 성향을 띤 梁濟海난을 비롯하여, 方星七난, 그리고 1862년 姜悌儉 金興采 등이 주도한 壬戌年의 농민 봉기와 광무 5년(1901)에 있었던 천주교 타도를 주창하며 유교 단체인 상무사에 의해 주도되었던 李在守난(辛丑聖敎亂)등도 어찌면 과거 이들 유배 객들에 의해 심어진 지식과 기질에 연유된 것일 수 있다.

특히 1801년 천주교인 黃嗣永의 아내였던 鄭蘭珠가 이 고장에 유배돼 온 후 꼭 100년만인 1901년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辛丑聖敎亂’은 후세에 깊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마을에는 지금도 귀양온 정난주가 죽은 후 묻힌 무덤이 성역화 되어있는가 하면, 그가 유배 온지 100년 후인 천주교 타도를 선봉에 서서 주도했다가 난의 평정 후 처형된 吳大鉉, 姜遇伯, 李在守 등 세 장두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三義士의 비가 불과1km 어간을 두고 마주하고 있다는 것도 특이한 광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후세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절박한 인연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생각해야 할 것인가.

다섯째, 대정 지역은 역사적으로 민란의 진원지였고, 일본이 대륙 침략

전을 위하여 군사시설을 하였던 곳으로 일제의 탄압도 가장 심하였지만 그럴수록 항일의지도 높았다. 항일 의병운동이 제주도에 미치자 의병장이었던 高仕訓이 金萬石 등과 의병모집을 시작했던 것도 바로 이 곳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의리와 끈은 절개를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리와 절개도 적거인들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대정 지역은 동·서양을 향해하는 외국 선박들이 이곳(조수포)에 자주 좌초하여 표착인들을 통하여 근대 문물을 접하기도 하였지만, 6·25당시 육군 제1훈련소와 피난민들에 의해 육지문화와 접목되어 도내에서는 일찍 근대화가 이루어진 곳이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형성된 특수성은 대정 지역의 특수한 교육사적 전통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대정 지역의 교육은 유배 객들과, 대정향교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향교를 정점으로 시작된 교육은 후에 서당으로 연결된 훈학 체계로 바뀌어 한말에서 일제까지 구학문의 맥을 유지하였다.

대정향교의 빈번한 이설·중수는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당시 향교의 이설과 중수는 예조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또 예조에서 주관 처리토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사사로이 이건·중수가 이루어진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현재 대정향교는 총 165평의 건물로 대성전에는 성인 28위를 모시고 매년 봄가을에 석전제를 지내고 있다.

향교의 교육과정은 소학, 사서, 오경, 구경이 중요한 교재였고 이 외에 近思錄, 諸史 등을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가르쳤다. 교생들의 성적을 수령이 평가하였는데 수령은 교생들의 교과서와 독서한 일과를 매월 말에 관찰사에 보고하고 또 때때로 순행하면서 임시 시험 격인 고강을 하고 학령에 따라 권하고 徵 한 것을 치부하여 그 성적의 高下가 교사의 근무 성적에

반영 하게되었다.

재원은 원래 임금이 하사한 학전으로 유지하였고, 최초의 학전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영조 때 주·부의 향교에는 7결, 군·현의 향교에는 5결로 하였고 이 밖에 지방민으로부터 징수하고 혹은 유림으로부터 기부금을 얻어 매수한 밭과, 산림 등이 수익으로 충당되었다.

이렇게 유지되어 오던 향교도 서원이 발달하자 자연 유생들이 서원으로 물러들게 되어 서서히 그 힘이 약해졌다. 즉 교육의 기능은 미약해지고, 성현에 대한 제사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여덟 째, 서당은 일반 서민 자제들을 교육하여 이 고장의 문화 및 유학 전통에 이바지한바, 특히 조선조 중기부터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도내 三邑에도 많이 건립되었다.

이 지역의 송죽서당은 정조18년(1794) 현감 夫宗仁이 대정현 동성 밖에 건립하였고, 대정서당은 정조 19년(1795)에 현감 高漢祚가 지방자제 교육을 위하여 현 안에 상·하 二齋를 세웠다.

이러한 공식적인 교육기관 외에 훈장에 의한 훈학도 활발하였는데 보성리 趙奎珍과 인성리 林泰興, 柳典, 안성리 高文秀 등이 한말에서 일제까지 훈학 하였다.

아홉째, 1895년 고종의 교육조서 발표를 전후하여 향교 및 서당 교육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여 근대학교 교육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민족교육에 뜻 있는 선각자들이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학교 설립에 심혈을 쏟았던 바 1908년 10월에 안성리에 사립 한일 학교를 개설하였다¹²⁵⁾

마지막으로 일제 강점기 초부터 일부 선각자에 의해 서당교육에 대한

125) 설립자는 강형규, 학감 김병수, 교원, 김용식 이다.

반성이 나타나 새로운 개화 문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신교육 운동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개량서당이 태동하였는데 이 지역에도 일제시대(1922)에 가파도에 金成淑이 설립한 辛酉義塾은 항일 민족교육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또 1925년 漢南義塾이 있었는데 당시 교사 姜文錫은 이후 좌익으로 월북해버렸으나 일제 이후의 마을 청년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구학문의 맥은 4·3사건 이전까지 대동서당이 남아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은 속칭<서문동산>에 위치해 향사로도 사용되었으며 4·3사건 때는 지서로 사용되다가 좌익의 습격으로 불타버렸다.

현대학교(初等)로는 1911년 6월 22일 조선교육령에 의하여 대정공립보통학교가 대정읍 보성리에 설립되어, 1931년 3월 31일 현 위치인 대정읍 상모리 3864번지로 이설 되었다.

그 후 9개년 동안 이 마을에는 학교 없이 지내오다가 안성, 인성, 보성리에 거주하는 아동을 가르치기 위하여 1940년에 강습소를 시작함과 동시에 지방민들에 의해 1940년 4월 18일 사립보성심상소학교를 개교하였다. 그 후 1944년 4월 1일에 보성심상소학교가 공립대정국민학교 부설 국민학교로 개교하였고, 1945년 9월 1일 공립보성국민학교로 승격되었고, 1996년 보성초등학교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결 론

이 세상 모든 사물에는 그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도나

각종 사건에 있어서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건이나 제도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야말로 가치 있는 교육자료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제주도 대정 지역의 교육사적 전통’이란 주제로 연구하게 되었고, 이는 대정 지역의 특수한 교육사적 전통을 밝히고 정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야말로 조선 시대 제주 유배인 49명중에서 34명이 대정 지역에 유배되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의미가 있고 또 실재로 현 단위로는 가장 많은 유배 지역이었다. 이런데 의미를 두고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정현이 중심이 되었던, 대정 지역은 제주도 유배 문화의 전형을 내·외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핵심적 지역이라 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 시대에 이 지역에는 사대부계층의 정치인들이 많이 유배되어 이 고장에 문화적·교육사적으로 끼친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李世蕃을 비롯한, 桐溪 鄭蘊, 秋史 金正禧 등을 들 수 있었다. 특히 김정희가 대정에 적거하게 되자 원근 학도들이 그를 따라 수학하였고, 그의 해박한 학문과 강직 공명한 성품은 학도들에게 큰 감화를 주었다.

한편으로 조선 대표적인 지식인들의 대정현 유배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교육과 제주문화를 성숙시키는 밑거름이었다. 당대 최고 지식인에게 교학사상과 정신세계를 배워 상대적으로 낙후된 제주의 학문과 문화기틀을 마련할 기회가 된 것이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인 유홍준 교수는 “완당(秋史)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제주 유배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제주 유배생활을 겪은 후에는 구속받고 본뜨는 경향 없이 말 그대로 일법을 이루게됐다는 것이다. 이는 이 지역에 학풍적으로 끼친 영향이 크기도

했지만 유배인 에게도 이 지역에 적거하는 동안 자신을 수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 이 곳에서 추사가 제자 이상적에게 그려준 “세한도”등은 유배문학·예술의 백미로써 평가받고 있다.

둘째, 대정 지역에는 양제해 난을 비롯하여 강제검이 주동이된 임술민란 그리고 신축성교난 등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란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유도, 불의를 미워하는 대정인들의 씩씩한 기상과 기백을 보여주는 사건들로써, 의리와 곧은 절개 그리고 모든 정사를 바르게 논하는 氣概에 찬, 유배인들이 교학전통이 영향이라 할 수 있다.

辛丑聖教亂의 장두였던 李在守나, 근대학교의 효시인 開城學校를 설립하여 교장이 되고 경술국치 후에는 인재 육성과 민족 갱생에 주력했던 李在喬, 참서와 초대 대정면장을 지내고, 뛰어난 기상과 구변에 능했던 李成喬, 4·3당시 좌익의 거물로 활동했던 김달삼(본명 李承珍)도 유배인 李世蕃의 후손들이다.



셋째, 대정 지역의 교육사적 전통과 관련된 이 지역의 생활세계는 유배인들의 유배지에 대한 현실인식으로 그들의 漢詩에 잘 드러난다. 동계 정온은 7언시 ‘빈여음’에서 “(아낙이) 밤 깊어 잠자는 겨울에도 옷을 벗지 아니하여 밝은 아침 빌려온 조를 또 혼자 방아 찧는구나”라며 제주섬 아낙의 모습을 연민의 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추사의 ‘부인 예안 이씨 애절문’은 부인의 부고를 두 달이나 지나서야 알게 된 비통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 원악유배지인 이 지역은 절해고도로, 외부와 단절된 애절하고 고달픈 생활세계라 할 수 있다.

넷째, 대정향교는 태종 16년(1416)에 지방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대정현 북성 안에 창건되었으나 그 후에 동문 밖으로 옮기고, 다시 서성으로 이설 한 후, 효종 4년(1653) 이원진 목사에 의해 지금의 단산 아래로 이설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뒤 수 차례에 걸쳐 개·보수하였으며, 특히 순조 11년(1811) 현감 邊景鵬이 朱子筆을 본받아 <明倫堂>額을 게시하고 순조 때 姜師孔이 金正禧 의 글씨를 청하여 <의문당>액을 게시하였다.

다섯째, 대정서당은 일반 자제들을 교육하여 이 고장의 문화 및 유학진흥에 이바지한 바 컸으며, 대정현(인성·안성·보성)을 중심으로 그 교육적 영향도 지대하였다.

여섯째, 대정 지역의 교육은 결국 대정향교와 서당이 중심이었지만, 이 지역 교육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유배인들이 교학활동 이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소설 『신화를 삼킨 섬』이 제주도를 무대로 삼은 이유가 독특한 역사성과 신화성·현실성 때문이다.”라고 하였다(이청준, 2003). 유형의 땅, 저항의 땅으로서 각인된 영향이고, 여기에는 오랜 ‘유배’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최남단의 유배지, 대정현에는 많은 유배인들이 이 지역을 거쳐감으로 해서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수한 교육전통을 이식하는데 큰 몫을 하였다. 유배인들의 신분은 각계 각층으로, 이들로 하여금 대정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의 근대 교육전통을 수립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어느 작가는 “섬이라는 사실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유배의 땅이었고 삼별초의 난을 겪어야 했고 4·3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겪어야 했던 제주의 역사지만 “제주는 제주만의 누릴 수 있는 독특하고 낭만적인 문화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하고 낭만적인 문화가 바로 유배문화라 할 수 있고, 그 것은 국토의 끝자락인 대정 지역이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國朝人物考』.
- 『朝鮮王朝實錄』.
- 『朱子語類』.
- 『耽羅錄』.
- 朴世采. 『東儒師友錄』.
- 宋時烈. 『宋子大全』.
- 尹榮善. 『朝鮮儒賢淵源圖』.
- 李恒老. 『華西集』.
- 崔益鉉. 『勉菴集』.
- 金奉玉(1987). 『濟州通史』. 제주: 제주문화.
- _____(2001). 『증보 濟州通史』. 도서출판 세림.
- 金智弘외(2003). 『제주삼읍교학사료집』. 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 朴用厚(1968). 『元 大靜郡誌』. 제주: 박문출판.
- _____(1990). 『最南의 港都 慕瑟浦』. 도서출판 제주문화.
- 梁鎭健(2001). 『濟州教育行政史(증보판)』. 도서출판 제주문화.
- _____(1999). 『그 섬에 위배된 사람들』. 문학과 지성사.
- 吳成贊(1988). 『귀향객들 님이 스민 大靜고을』. 도서출판 반석.
- 禹樂基(1980). 『국민관광 濟州道』. 서울: 정문사.
- 이기백(1984). 『韓國史新論』. 서울: 일조각, .
- 이만계(1949). 『朝鮮教育史상·하』. 서울: 을유문화사.
- 이영훈(1988). 『朝鮮후기 社會經濟史』. 서울: 한길사.
- 李弘植(1989). 『새 韓國史 辭典』. 서울: 교학사.

- 정순목(1986). 『退溪의 教育哲學』. 서울: 지식산업사.
- 濟州道(1982). 『濟州道誌 上·下』. 제주: 삼화인쇄.
- _____(1984). 『밝고 활기찬 濟州道』. 제주: 소년체전준비위원회.
- 濟州道教育廳(1999). 『濟州教育史』.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 濟州道教育研究院(1974). 『濟州教育通史』. 서울: 신일인쇄.
- 濟州道教育委員會(1979). 『濟州教育史』. 제주도교육사편찬위원회.
- 韓國教育史研究會(1982). 『韓國教育史研究의 새 方向』. 서울: 집문당.
- 韓國教育學會 教育史研究會 編(1987). 『教育思想家評傳』. 서울: 교학연구사.
- 韓國教育史學會(2003). 『韓國教育史學』 제25권 제1호. 한국교육사학회.
- 韓國人名大辭典編輯室(1983). 『韓國人名大辭典』. 서울: 신구문화사.
- 현상윤(1977). 『韓國儒學史』. 서울: 민중서관.
- 梁鎭健(1991). “조선교육사상사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2004). “제주유배문화관기본계획”. 제주문화예술재단.
- Flitner, W.(1950). *Allgemeine Pädagogik*. Stuttgart: Klett-Cotta.
- Monroe, P.(1976). *History of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Ulich, R.(1950). *History of educational thought*.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Abstract>

Educational Tradition of Daejeong Area in Jeju

Hur, Dae Ok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 Ge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scribe the unique educational tradition of Daejeong area. Daejeong was a place of exile which is the farthest place from the main land, so many deported criminals came to Daejeong. They were one of the prominent scholars or politicians of the day, thus they had a culturally and academically significant effect on dwellers in Daejeong and Jeju. They taught residents in Daejeong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to transfer unique educational tradition to this area.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er analyzed various ancient books and documents and arranged them based on the period to describe Daejeong area's local and educational uniqueness.

For the local uniqueness, Mosulpo at Daejeong became an important spo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5, 2004.

for connecting Korea with foreign countries and many foreign ships and wrecked persons came to Daejeong. Thus, Daejeong becomes the first place to be modernized and receive foreign cultures. Also, it was one of supply bases during the World War II and became a military base for training new soldiers during the Korean War.

For the educational tradition, there was a Confucian temple and a school belong to it, and a village schoolhouse at Daejeong. Also, deported criminals such as Dong-gae Jeong On, Seo-jae Im Jing Ha, and Choo-sa Kim Jeong Hee taught many persons and contributed to get a firm stand for scholarship and cultural development in Daejeong and Jeju which fell behind other areas of mai land.

Finally, insurrections of the people were another unique character of the area. Almost all the revolts raised in Jeju were raised at this area and this fact shows that residents at this area resisted injustice to preserve chastity and show mettle. It seems that these spirits were influenced by the deportees.